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
과거 | 현재 | 미래를 논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중국태평천국역사박물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12. 11. 9(금) 13: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동학농민혁명 정기심포지엄]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 과거 · 현재 · 미래를 논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중국태평천국역사박물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일시_2012년 11월 9일 13시

장소_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최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정읍시

주관_전북사학회

후원_문화체육관광부

[심포지엄 일정]

13:00~13:30	접수 및 등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중국태평천국역사박물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3:30~14:00	사회 : 홍성덕 전주대 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영석 이사장
	중국태평천국역사박물관 후닝(胡寧) 서기 겸 부관장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학술발표	
14:00~14:20	개회식 사회 : 홍성덕 전주대 교수
	개회사 : 이재운 전북사학회 회장
	대회사 : 김영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기념사 : 김생기 정읍시장
	축사 :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14:20~14:30	휴식
14:30~16:00	제1부 전봉준과 홍수전 사회 : 유지원 원광대 교수
	홍수전의 사상과 실천
	웨이즈칭(崔之靑) 남경대 교수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사상과 활동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16:00~16:10	토론 김성찬 인제대 교수
	휴식
16:10~17:40	제2부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의 기념사업
	사회 : 유지원 원광대 교수
	중국의 태평천국 기념사업
	장티에바오(張鐵寶) 중국태평천국역사박물관 교수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광환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 이사장
	토론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목차]

제1부 전봉준과 홍수전		
제1발표	홍수전의 사상과 실천 □ 웨이즈칭 남경대 교수	7
제2발표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사상과 활동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35
토론	토론문 : 전봉준과 홍수전 □ 김성찬 인제대 교수	71
제2부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의 기념사업		
제1발표	중국의 태평천국 기념사업 □ 장티에바오 태평천국역사박물관 교수	81
제2발표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조광환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 이사장	107
토론	토론문 :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의 기념사업 □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173
【中文】		
第一部 全瑋準和洪秀全		
第一发表	洪秀全 : 思想和实践述论 □ 崔之清 南京大学 教授	23
第二发表	东学农民革命最高指导者全瑋準的思想和活动 □ 卢泰久 京畿大学 名誉教授	55
讨论	讨论稿 : 全瑋準和洪秀全 □ 金诚赞 仁济大学 教授	77
第二部 东学农民革命和太平天国运动的纪念事业		
第一发表	中国太平天国纪念事业 □ 张铁宝 太平天国历史博物馆 教授	95
第二发表	韩国的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 □ 曹光焕 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 前 理事长	143
讨论	讨论稿 : 东学农民革命和太平天国运动的纪念事业 □ 赵宰坤 东国大学 研究教授	179

홍수전의 사상과 실천

웨이즈칭(崔之清)

중국태평천국사연구회 / 남경대학 교수

번역 : 김지아(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
1. 홍수전 사상의 원천
 2. 홍수전 사상구조의 각 측면 분석
 3. 홍수전 사상의 변천 과정
 4. 홍수전 주도 하의 태평천국운동과 그 사회적 실천
-

태평천국운동의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 홍수전은 14년에 걸친 반청혁명운동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 무력으로 대립하는 태평천국 천조(天朝) 정권을 수립하여 통치자가 되었다. 또한 배상제교(拜上帝教)의 설립자로 유일신 신학사상을 통해 정교합일의 권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때문에 홍수전의 사상과 실천은 태평천국 운동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헌적 분석과 실증연구를 통해서 홍수전 사상이 움트고 변화해 온 역사 과정을 재조명해보고, 그의 사상구조에 대한 성찰과 함께 홍수전과 태평천국운동의 사회적 실천과 영향력, 그리고 파급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미흡한 점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홍수전 사상의 원천

일반적으로 사회의 존재가 한 사회의식을 결정짓는다. 때문에 홍수전의 사상은 당시 사회구조, 문화 환경과 교육 및 인생 경험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정신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홍수전의 사상 원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청나라 가도(嘉道, 가경제(嘉慶帝), 도광제(道光帝)) 시기 광둥, 광서(兩廣) 지역의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홍수전의 특유의 인생경험 및 심경에서 시작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또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학술적 견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 과거시험 실패 이후 정권교체를 향한 반청혁명사상이 싹트다

홍수전(1814~1864)은 광둥 화현(花縣, 오늘 날의 광주시 화도구-廣州市花都區)출생으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유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유학 교육을 받고 자라며 중국 역사와 희귀 서적을 즐겨 읽었던 그는 네 차례에 걸쳐 광주현의 현시(縣試)를 보았으나 끝내 수재 합격하지 못해 고향 서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처럼 유학적 교양을 쌓았던 농촌의 지식청년 홍수전은 계속해서 과거 시험의 쓴 잔을 마시자 과거제도에 대해 크게 절망하였고 청조, 관아와 사회에 대한 원한과 반항심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1837년 과거의 세 번째 고배를 마신 홍수전은 너무나 낙심하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십여 일을 앓아 누웠다. 그는 병상에서 시를 통해 포부를 밝혔다는데 스스로 “천왕(天王)”이라 칭하고 청조 타도와 신왕조 건립이라는 혁명 이념을 세웠다.” 1843년 다시 한 번 과거시험에서 낙방한 그는 철저히 좌절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 자신을 잠룡으로 비유하며 잠시 은둔하고자 했다: “바람과 구름이 만나는 때를 기다리니, 그 때 높이 비상하여 천하를 다스리리라(等待風雲齊聚會, 飛騰六合定乾坤).”²⁾ 바로 이때부터 홍수전은 반청 혁명과 신왕조 건설을 위한 이론과 조직에 대

1) 홍인간(洪仁玕) 구술, (스웨덴)한산문(韓山文) 기록, 「태평천국 의거기(起義記)」, 『태평천국』(6)을 참조,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00, pp.840~843.

2) 「홍인간(洪仁玕) 자술」, 『태평천국』(2)을 참조,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00, p.840~848. 홍인간에 따르면, 기록의 오류가 있어 이 시는 원래 1837년에 쓰여진 것으로 그 해에 홍수전이 과거응시에 패하고 병져 누워 가마를 타고 고향에 돌아갔다. 1843년 재시험에 다시 낙방하자 배를 타고 귀향하였다. 홍인간은 그가 “배에서 시를 읊으며(在舟吟詩云)”라고 했는데, 이 시는 1843년에 지어진 것으로 내용에서도 선상에서 읊은 시임을

한 구상을 시작하였고 반청 세력을 모아 정권교체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코자 하였다.

- 2) 양광(광둥, 광서)은 천지회(天地會)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었고, “반청 복명(反淸復明)”은 당시 비밀조직의 보편적 정치목표였다. 반만주족의 식은 광둥 지역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전파되었고 한족 정치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양광 지역은 청조 통치권에서 멀리 떨어져 청조의 영향력이 가장 약한 곳으로 반청비밀결사조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가도(嘉道) 기간 천지회 혹은 삼합회(三合會)가 이주민과 함께 양광 지역에 유입되었고, 아편전쟁 후 군부에서 감원을 당한 청년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이 조직은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나가며 군사화 과정을 겪어 후에 청나라의 양광지역 정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반항세력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협판대학사 두수전(杜受田)은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서광둥 지역에 도적무리가 일어나, 도광(道光) 초기부터 각 부주현(府州縣)에서 결사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한 바…… 도광 25, 26년(1845-1846)에 이르러서는 광둥 인근 및 각 좌우 강 지역 등에서 도적떼가 판을 치기 시작해…… (도광 연말 즈음, 도적떼는 수십 무리(股)로 늘어나 각 무리 마다 두목이 있다고 하옵니다.³⁾

양광 지역에서 생활했던 홍수전은 어려서부터 만주족이 한족을 통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스스로 반청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반청의 길로 들어선 후 천지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반청 투쟁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았다. 특히 천지회의 반청 목표에 수긍하면서도 “복명(復明)”에는 동의하지 않고 신왕조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천지회에 대해 “그 중 몇 가지 악습은 원 취지를 흐려놓아 저속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했다.⁴⁾ 때문에 홍수전은 천지회에 가입하는 것보다 청조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론적 토대와 조직을 설립하는 쪽을 택했

알 수 있다.

3) 「협판대학사 두수전의 양광봉기 상황보고 및 토벌방략 상소문(協辦大學士杜受田奏陳兩廣起事情形并剿捕方略單)」, 중국제일역사기록보관소(檔案館) 편, 『청정부 진압 태평천국 기록사료(檔案史料)』(1), 북경: 사회과학문헌출판사, 1992, p.206.

4) 홍인간(洪仁玕) 구술, 한산문(韓山文) 기록, 「태평천국 의거기(起義記)」, 『태평천국』(6)을 참조,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00, pp.872~873.

다. 하지만 당시 청조의 엄격한 통제와 잔혹한 진압이 있어 공개적으로 반청운동을 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했다. 때문에 홍수전은 천지회의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의 형식을 빌려 반청혁명의 준비작업과 궤기 과정을 암암리에 진행해나갈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로 기독교를 알게 되었던 홍수전은 청조의 완화정책(弛禁政策) 힘입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그는 유교 사상을 기독교 문화에 접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종교와 풍속 또한 받아들여 배상제교(拜上帝教)를 창립했고 이로써 태평천국운동 고유의 종교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3) 홍수전 사상의 문헌적 기원

(1) 기독교에서 유일신 등의 교리 채택

원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홍수전은 1836년 광주에서 우연히 한 선교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후 중국인 양발(梁發)이 쓴 선교 소책자 『권세양언(勸世良言)』 9권을 선물 받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1843년 과거시험에서 네 번째 낙방한 그는 다시금 반청 혁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 때 어떤 이의 권유로 『권세양언』을 정독하기 시작했다. 홍수전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상적 자료를 얻었으며 이를 배상제교 창립의 중요한 사상적 근거로 삼았다. 1847년, 다시 한 번 광주를 찾은 후 미국 선교사 나효전(羅孝全 I. J. Roberts)을 따라 성경공부를 시작하였고 이 때 비로소 기독교 교리와 종교 의식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배상제교는 기독교 교리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채택하였다.

1. “상제(上帝)만이 유일신이며, 상제를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상제 이외의 다른 악한 영을 따르지 않는다”.⁵⁾ 이로써 그간 중국인들의 다신숭배와 포용 및 공존의 종교적 이념과 관습을 버리고 유일신 종교관을 수립하여 상제만이 유일신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상제만을 예배해야 하며, 상제 이외의 다른 신은 모두 우상과 잡신으로 여기고 심지어 공자와 조상의 위패를 포함해서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에서 배상제교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기타 종교는 모두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5) 홍수전, 「원도구세가(原道救世歌)」, 『태평천국』(1)을 참조, 상해 : 상해인민출판사, 2000, p.87.

2. 상제를 숭배하고 선행을 쌓는 자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상의 복을 누리며”, 악령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는 “죽은 후에 귀신에게 붙잡히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⁶⁾

3. “황상제가 이 땅에 내려와 만천하의 아버지가 되심에” 세상사람은 모두 상제의 자녀이며 서로 형제자매 된 자로서 온 천하가 한 가족이 된다. 상제 앞에서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서로 돕고 안빈낙도하여 “하늘이 낳아주고 키워주니 서로 화목하고 함께 태평을 누릴찌니라”.⁷⁾

4. 성경의 “모세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 “십관천조(十款天條)”를 제정하여 신도들을 가르치는 규범과 인생규칙으로 삼았는데 이는 의거 이후 군사적 규율이 되었다. 배상제교의 각 의례 제도는 기독교에서 따온 부분이 많으며 성경 이야기를 참고하여 성고제도(聖庫制度) 및 군사적 공산주의 분배 방식을 구축하였다.

(2)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접목 및 융합으로 기독교 현지화 실현

홍수전은 기독교 사상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난제에 부딪혔다. 첫째로, 배상제교는 유교사상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종교적 이론과 교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통치자와 사대부에게는 엄연한 “이단 사교”로 “민중을 현혹시키는”것으로 비취질 수 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배상제교는 상제만을 숭배하며 그 외의 다른 우상과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역시 금지하여 중국인의 전통 신앙과 숭배 사상에 크게 위배되었다. 하나님(상제)은 서구 기독교의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사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야만족을 따르는(從番)” 행위로 여기고 질책하였다. 게다가 당시 상황은 아편전쟁 후여서 열강의 침략과 수모를 당한 중국의 애국 정서는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더욱 오해와 공분을 살 뿐이었다. 셋째로, 홍수전을 포함해서 서구 학문과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중국 실정과 정서에 맞지 않아 특히 지식인들을 포함한 민중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유교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홍수전은 중국 전통 문화와 풍습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합리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즉 기독교와 유교사상의 결합을 통해 기독교에 농후한 유교 특색의 옷을 입히는 것이었다. 또한 황상제(皇上帝) 역시 중국화 과정을 거쳐 중국인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홍수전은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기독교를 선택했

6) 『원도각세훈(原道覺世訓)』, 『태평천국』(1)을 참조,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00, p.97.

7) 『원도각세훈(原道覺世訓)』, 『태평천국』(1)을 참조,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00, p.92.

으며 이를 반청운동의 사상적 무기로 삼았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내와 순종을 강조하는 비폭력적 종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청 무장 투쟁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수정과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홍수전은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얕은 지식을 가지고 중국 실정과 반청혁명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배상제교를 창립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 과정 중 기독교 교리에 대한 대폭 수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때문에 배상제교가 뚜렷한 중국 문화와 정치적 특색을 띄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기독교 문화가 “인내와 겸손”을 강조하고 “악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함”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⁸⁾ 오히려 “참사유정(斬邪留正)”을 주장하며 무장 투쟁을 통해 청나라 타파 및 인간천국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2. 배상제교는 기독교 교리 중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점을 수정하여 상제 또한 자신의 가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제는 하늘의 아버지(天父)이고 예수는 장자, 홍수전은 차남이며, 풍운산(馮雲山), 양수청(楊秀淸), 위창휘(韋昌輝), 석달개(石達開)와 같은 인물이 각각 삼남, 사남, 오남, 육남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조귀(蕭朝貴)는 상제의 사위이고, 그의 아내 홍선교(洪宣嬌)는 상제의 딸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하늘의 어머니(天母, 즉 상제의 아내), 하늘의 형수(天嫂, 예수의 아내) 등이 있다. 이로써 유일신 상제는 일종의 상제 가족으로 확대되었고 상제를 중심으로 예수가 천국을 다스리고 홍수전이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체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의거 리더들은 혈연적인 형제가 되어 지도자 집단이라는 단단한 내부적 연결고리를 형성했고 신의 권위를 더욱 강하게 세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청혁명은 굉장히 짙은 성전(聖戰)의 색채를 띄게 되었다.

3. 배상제교는 기독교의 “원죄”와 “구속”의 교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점 이외에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 예로, 1) 1837년 “황상제는 천사를 보내 천왕을 하늘로 모셔가 마귀를 멸망시킬 것을 명한 후 다시 이 땅에 보내 인류를 구원한다”. 이를 통해 홍수전의 황권은 상제가 직접 수여했음을 주장하였다. 2) 1850년 가을과 겨울, 황상제는 “동왕을 세상에 보내 사람들을 병에서 구해냈다”. 이는 동왕 양수청이 민중의 병을 고쳤다는 공로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양의 권위 또한 상제가 직접 수여했다는 것이다.⁹⁾

4. 성부(상제), 성자(예수), 성령(The Holy Ghost)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상제교와 기독교의 해석은 전혀 다른 것이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고수하지만 배상

8) 홍인간(洪仁杆) 구술, 한산문(韓山文) 기록, 「태평천국 의거기(起義記)」, 『태평천국』(6)을 참조, 상해 : 상해인민출판사, 2000, p.864.

9) 「천정도리서(天情道理書)」, 『태평천국』(1)을 참조, 상해 : 상해인민출판사, 2000, p.366.

제교는 삼신분립(三神分立)이라고 본다. 즉 상제는 하늘의 아버지(天父), 예수는 하늘의 형(天兄), 성령은 동왕(東王)으로 이 삼자를 분리했다.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의 존재로 보지만 배상제교는 상제를 유형한 존재로 여기며 심지어 홍수전은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 어머니, 형과 형수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5. 기독교가 말하는 천당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돌아가게 되는 “천국”인 반면, 배상제교는 천당을 이 땅에서도 실현코자 했다. 즉 천국이란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가는 천상 천국인 동시에 이 땅에서는 태평(太平) 천국이라는 것이다. 홍수전은 “천상에는 천국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천국이 있다. 천상 천하 모두 하늘 아버지의 천국이니, 천상 천국만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지니라……(하늘 아래 천국은 즉) 오늘 날 하늘의 아버지와 형이 이 땅에 내려와 만든 지상 천국이니”라고 말한 바 있다.¹⁰⁾ 때문에 배상제교의 신자들은 영혼이 천당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더 현실의 삶 속에서 인간 천국(소천당)을 추구하여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사는 태평세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성경』은 기독교의 절대 진리이자 모든 기독교 이론을 점점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서로 다른 교파 또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응용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는 있어도 절대로 『성경』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다. 이런 점에서 배상제교는 기독교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비록 『성경』이 가진 경전의 지위를 존중하지만 이를 절대적인 진리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투쟁 형세와 지도자 개인의 수요에 따라 실용주의 차원에서 성경에 대해 취사선택을 하고, 심지어 성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거나 다른 해석 또는 수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히 홍수전의 성경에 대한 해석과 평론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제가족설, 삼위분립설, 소천당설, 상제의 5대 분노설 등은 홍수전의 성경에 대한 수정과 확대해석 과정을 보여주며, 그 목적은 전적으로 정치적 수요에 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수전은 심지어 자신의 일부 조서와 양수청, 소조귀가 천부와 천형을 대변한 어록을 『진천명조지서(眞天命詔旨書)』로 편찬하여 성경을 보완하고자 했다. 후에 홍수전은 천경을 수도로 정한 후 조서를 내려 배상제교의 『성경』은 『구유조성서(舊遺詔聖書)』(구약), 『신유조성서(新遺詔聖書)』(신약) 및 『진천명조지서』등 세 개 영역으로 이뤄짐을 선포하였다. 홍인간(洪仁玕)은 『친정사계조례(欽定士階條例)』에서 이를 『구약』, 『전약(前約)』, 『진약(眞約)』이라고 개칭하였다. 실제로 배상제교는 『진천명조지서』를 기독교의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10) 「홍정전유조성서(欽定前遺詔聖書)」, 『태평천국속편』(1)을 참조, 계림 : 광서사범대학출판사, 2004, p.117.

이 밖에도 종교 의례, 절기, 규율 등과 같은 규정상에서도 배상제교는 기독교와 어느정도 거리가 있었다.

비교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홍수전은 청조타파와 신왕조 수립이라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독교에 대해 대대적인 가공 및 개조 작업을 벌여왔다. 이를 테면 반청 혁명에 유리한 핵심부분을 취하고 현실 사회 저항 운동에 불리한 내용은 과감히 버린 것이다. 또한 여기에 중국 농민의 평등과 균등에 대한 요구, 유가사상의 대동사회에 대한 구상, 전통적 윤리와 삼강오륜, 그리고 심지어 중국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무속과 같은 제사형식 등을 배상제교 교리에 가미함으로써 정치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했다. 이처럼 동서양 사상이 만나 서로 적응하며 한데 어우러지는 긴 과정을 거쳐 배상제교의 교리는 조금씩 완비되어 중국 본토화 종교로 거듭났다. 때문에 배상제교는 기독교의 한 지파도 아니요 기독교가 변형된 이단도 아니며 오히려 태평천국 운동의 자체적인 종교적 형식과 사상적 무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홍수전 사상구조의 각 측면 분석

연구자는 1994년 『홍수전평전』을 펴내면서 머리말에서 이와 같이 소개한 내용이 있다.

홍수전 사상은 유동적이고 끊임없는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동적인 특징은 그 구조형태의 끊임없는 조정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때문에 홍수전 사상연구는 반드시 그 내부구조에 대한 정태적 및 동태적 측면의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¹⁾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홍수전 사상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각기 홍수전 사상의 핵심요소가 되어 그가 태평천국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다른 영향력과 제약 및 주도력을 행사하였다. 다음은 이를 나누

11) 웨이쯔칭(崔之清), 후천요우(胡臣友), 『홍수전 평전』, 남경 : 남경대학출판사, 1994, p.27.

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주도적 측면 : 반청혁명 사상

1837년 처음 반청혁명 사상이 움튼 후 홍수전은 한동안의 방황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1843년 다시 한번 시험에 실패하고 나자 비로소 청조타파와 신왕조 건설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 이후에 반청혁명 사상은 홍수전의 일생에 걸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후일에 그가 태평천국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홍수전의 저서, 조서, 시에서도 농후한 반청혁명 정신을 볼 수 있다. 그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여 청조 황제를 “염라요(閻羅妖)”라 하였고 청조 관원의 경우 염라요의 “요도귀졸(妖徒鬼卒)”로 모든 인생 고난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제의 자녀라면 반드시 홍수전을 추대하고 따르게 되며 함께 이 마귀들을 격파시켜야만 태평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홍수전에게 타협과 흔들림이란 없었다. 실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는 군민을 동원하고 함께 청조와 외세의 적군에 맞서 혈투함으로써 중화민족의 폭력과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저항하는 위대한 민족정신을 나타냈다.

2) 희석화 측면 : 평등 및 균등 사상

홍수전은 하층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가난한 농민과 유생들 가운데서 자라 하위 계층 백성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 때문에 그는 신왕조 수립을 다짐하게 되었고 “참사유정(斬邪留正)”을 통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따듯하고 배부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해를 일가로 삼아 함께 평화를 누리는(四海一家, 太平一統)”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홍수전은 배상제교를 통해 모든 사람은 다 상제의 자녀이며 이에 평등한 지위를 가져야 함을 선포하였다. 때문에 “서로 나누고 환난 가운데 도우며, 동족상잔해서는 안 된다(有無相恤, 患難相救, 不能爾吞我并)”는 것이다.¹³⁾ 이 후 천경(天京)에 수도를 정착시키고 나서 태평천국은 「천조전무제도(天朝田亩制度)」를 제정하여 평균주의를 사회제도화하고자 했다. 그 중 “함께 밭을 나눠 경작하며,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함께 옷을 나눠

12) 「원도각세훈(原道覺世訓)」, 『태평천국』(1)을 참조, 상해:상해인민출판사, 2000, p.97.

13) 「원도각세훈(原道覺世訓)」, 『태평천국』(1) 참조, 상해:상해인민출판사, 2000, p.91~92.

입고, 함께 돈을 나눠 쓴다(有田同耕, 有飯同食, 有衣同穿, 有錢同使)“라는 규정을 세웠다. 또한 지주 토지소유제를 폐지시키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인원 수에 따라 균분하였으며 생활 물자 분배 시에도 모든 백성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하였다. 즉 “천하가 모두 한 양식으로(通天下皆一式)” 모든 분야에서 균등하며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배불리 먹는 사회를 실현코자 했다.¹⁴⁾ 이와 같이 그의 사상은 평균주의에서 비롯된 이상적 사회에 대한 미래상이자 유가사상 중 대동사회의 새로운 버전으로 하층민의 염원과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홍수전의 평등 및 균형사상은 취약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태평천국 역시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로 권력자와 관원들이 특권을 누리며 “대대로 녹봉을 받으며(世食天祿)” 일반 백성들은 “밭을 일궈 녹봉을 내는(耕田奉上)” 것으로써¹⁵⁾ 특권계층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었다. 둘째, 균등하게 농작지를 나누고 모두 동등하고 배부른 사회제도는 실현되지 않고 다만 문서 상의 자료로 남게 되었다. 때문에 평등 및 균등 사상은 점점 희석되어 홍수전 집권 말기에는 아예 그의 황권주의 그늘에 가리게 되었다.

3) 강화 측면 : 황권주의

평등 및 균등 사상이 희석되는 것과 달리 홍수전의 황권주의는 날로 강화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더 나아가 지도자층의 집단 의식으로 자리잡아 이후 태평천국의 실패를 가져다 주는 주원인이 되었다. 왕조시대에서 자라난 홍수전은 유교적 교육을 받아들이며 왕조 교체라는 혁명 모델을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홍수전은 반청 사상이 싹트기 시작할 당시부터 신왕조 수립과 스스로 천왕이 되는 것을 꿈꿔왔는데 이는 황권주의가 그의 반청혁명에 중요한 사상적 동기를 부여한 것이었다. 그는 비밀리에 의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황포(黃袍)를 만들어 입어봤으며 당시 소조귀로부터 비난과 경고를 들었다.¹⁶⁾ 금전기의(金田起義)를 일으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군의 포위 공습 속에서도 홍수전은 후궁을 거느리고 황제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 후에 농촌지역 동향(東鄉)에서 등극한 후 용안고성(永安孤城)에 이르러서는 대대적으로 봉왕건제(封王建制) 실시하여 지도층의 집단적인 황권 의식이 이때부터 싹트게 되었다. 후에 천경(天京)을 수도로 정하고 나서 제왕(諸王)들도 함세하여 수많은

14) 「천조전무제도(天朝田亩制度)」, 『태평천국』(1), 상해:상해인민출판사, 2000, p.321~322.

15) 「천조전무제도(天朝田亩制度)」, 『태평천국』(1), 상해:상해인민출판사, 2000, p.321.

16) 「천형성지(天兄聖旨)」, 『태평천국 속편』(2)을 참조, 계림: 황서사범대학출판사, 2004, p.276.

후궁을 거느리니 이들의 부패로 인해 집단 황권의식은 극도로 부풀려져서 중국에는 동족상잔의 천경사변을 일으켰고 태평천국은 결국 몰락일로로 걷게 되었다. 홍수전은 집권후기에 이르러서는 군사(軍師) 직위를 폐지하며 “짐(朕)이 주인이자 곧 군사”임을 공포하였다.¹⁷⁾ 극권통치(極權統治)를 실시함에 따라 다른 성씨를 배척하였고(排斥異姓) 사촌동생 홍인간(洪仁干) 또한 더더욱 권력을 놓지 않는 등 이 시기의 황권주의는 극에 달했다. 결국 민심을 잃고 각 지역의 장수 또한 황권의식의 영향을 받아 각기 칭왕[割據稱王]하여 중앙정권과 점차 멀어짐으로써 태평천국 멸망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4) 종교 신학적 측면 : 배상제교

홍수전은 배상제교를 창립하여 신도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였고 “십관천조(十款天條)”로 신도들을 관리하는 등 종교 조직의 군사화를 추진해나갔다. 봉기 후 홍수전은 천왕이자 교주로 등극하였고 태평천국은 정교합일(政教合一)의 왕조정권이 되었다. 하지만 신권과 세속적인 권력이 이원화 구도를 나타내면서 양수청은 천부(天父, 즉 상제)의 대변인 신분으로 홍수전의 머리 꼭대기에 앉은 격이었다. 이로써 홍수전의 황권과 신권 모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어 천경사변(天京事變)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당시 홍수전은 양수청, 위창휘를 모두 죽이고 석달개를 추방하여 결국은 신권을 다시 손에 넣게 되었다. 태평천국 후기에 들어서는 배상제교가 홍수전의 황권강화를 위한 종교적 도구가 되었고 군민(軍民) 동원 및 조직 기능을 빠른 속도로 상실했다. 종교에 빠져 상제를 미신화했던 홍수전에 대하여 이수성(李秀成)은 그가 “국가와 군민의 일에 무관심한 채 궁에 칩거하고, 뜯구름 잡는 얘기만 할 뿐 국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비평하였다.¹⁸⁾ 이처럼 중앙권력을 욕심 많고 무능한 형제에게 맡긴채 친히 조정에서 나서지 않은 결과 조정은 혼탁해지고 탐관오리들이 창궐했으며 점차 민심을 잃게 되었다. 배상제교는 오히려 역기능을 하여 태평천국 실패의 중요한 내적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중국 역대 왕조는 유가사상과 공자를 숭상하며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왔고 일반 백성들은 불교, 도교와 같은 종교와 각종 미신을 포함한 우상을 숭배하였다. 태평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로 배상제교를 전파하는 동시에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공자

17) 「복음경록(福音敬錄)」, 『태평천국』(2)를 참조,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00, p.514.

18) 「이수성(李秀成) 자술」, 태평천국역사박물관 편: 『태평천국문서취편』 부록을 참조, 북경: 중화서국, 1979, p.531.

와 유가사상에 반대하며(反孔非儒) 여타 종교를 타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련 서적을 소각하고 절과 신사를 파괴하는 등 기존의 전통문화를 부정하였다. 이처럼 너무 과격한 반전통 행위는 지식인들과 민중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배상제 교에 대한 종교적 정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전통 신앙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반대로 태평천국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지식인은 청조를 지지하게 되어 중국번(曾國藩)의 “극사위도(克邪衛道)”를 환영하였다. 결국 과격한 종교정책은 태평천국을 고립시키고 오히려 민중과 지식인들을 청나라 진영에 합류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명백한 정책상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5) 신생적 측면 : 민족주의와 반침략사상

홍수전의 민족주의 사상은 두 가지 다른 정서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국내 민족관계로 홍은 강력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화이지변(華夷之辨)을 견지하며 멸만흥한(排滿興漢)을 주장하여 한족 왕조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구축호로, 회복중화(驅除韃虜, 恢復中華)”는 반청 혁명사상의 중요한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태평천국 운동의 중요 목표이기도 하다. 두번째로는 중국의 대외관계로 주로 중국과 서방열강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도 홍수전은 화이지변을 고수하고 천조상국(天朝上國)으로 자처하며 스스로를 “천하만국 태평진주(眞主)”라 칭하고 열강은 “오랑캐(夷)”, 혹은 “서양 야만국(番國)”이라 부르며 열강의 조공 헌상을 명하기도 했다.¹⁹⁾ 하지만 열강 역시 기독교 국가이므로 홍수전은 서로 공통된 종교신앙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국 사절을 “서양 아우(番弟)”라 불렀는데 이는 “천부 안에서 한 가족(同敬天父同一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홍수전은 열강이 태평천국을 도와 “요괴”를 제거하기를 바라며 반청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⁰⁾ 열강은 초반에는 “내정중립” 입장인 척하였고 반면 태평천국 세력은 열강과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했다. 하지만 1862년에 이르러서는 열강이 청나라와 결탁하면서 태평천국의 영토를 침범하였고 이에 홍수전은 영유권을 지키도록 조서를 내렸다. 태평천국 군민은 상해, 소남(蘇南), 영파(寧波) 등지에서 외세 침략군에 용감히 맞서며 중화민족의 반침략 투쟁의 역사의 효시가 되었다.

19) 「동왕 양수청의 영국인 대한 답변 31항 및 질문 50항 고시(東王楊秀清答覆英人三十一條并質問英人五十條詰諭)」, 태평천국역사박물관편 : 『태평천국문서회편』을 참조, 북경: 중화서국, 1979, pp.299, 307.

20) 「영국전권특사엘긴(Elgin)에 내리는 조서」, 태평천국역사박물관편 : 『태평천국문서회편』을 참조, 북경: 중화서국, 1979, pp.42,44.

3. 홍수전 사상의 변천 과정

홍수전 사상구조를 각 측면에서 분석해본 결과 각기 다른 변천 과정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반청혁명은 홍수전의 생애에 걸친 정치행위와 태평천국의 사회적 실천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태평천국운동의 핵심목표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황권주의와 종교적 측면에서는 서로 결합하여 홍수전의 신인동체(神人同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초월적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종교신권과 세속황권의 통합이 이루어져 홍수전의 절대적인 황권은 결국 상제와 예수 신권의 빛을 가렸다. 이로써 홍수전의 군주적 지위와 황권이 상제로부터 내려왔으며 태평천국 또한 상제가 보우하는 신성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천부(天父) 천형(天兄) 천왕(天王) 태평천국(太平天國)”이라 불렀다. 때문에 배상제교는 홍수전이 절대적 황권과 태평천국 정권을 포장하는 일종의 신학적 도구가 되었다. 때문에 홍수전의 사상구조 속에서 황권주의와 배상제교의 지위는 부단히 강화되었고 이는 그의 발언과 행위를 주도하는 중요한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평등 균형 사상은 홍수전이 하층민을 반청혁명운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상적인 포고로서 반청혁명의 최고조 시기에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으로 구현되어 「천조전무제도(天朝田亩制度)」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하지만 홍수전과 지도자층의 집단적 황권의식 및 봉건적 특권의식이 커감에 따라 이들은 일반 백성들과 점점 멀어져 새로운 봉건제왕으로 군림하고자 했다. 때문에 평등 균형사상 역시 하나의 이상일 뿐 사회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중들은 태평천국과 청나라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 밖에도 반침략 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 홍수전은 원래 열강 침략에 반대하는 근대 민족주의를 지녔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전통 민족주의가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태평천국 후기에 이르러서 열강 군대의 침략을 받아 반침략 무력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때문에 이 부분은 홍수전 사상구조 중 새로이 생긴 측면이자 홍수전의 노년기 사상에서 주목되는 점으로 중국 근대사 중 반제국주의 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배상제교 창시 및 초기 선교과정에 참여했던 홍수전의 사촌동생 홍인간(洪仁玕)의 경우, 봉기에 가담하기도 전에 홍콩, 상해 등지로 도주하여 약 9년을 거주하며 서양 선교사와 교류하다가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것이다. 1859년

홍인간은 천경(天京)으로 건너가 홍수전의 임명 하에 조정 업무를 도맡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자정신편(資政新篇)』을 펴내어 홍수전의 비준을 받아 이를 반포하였다. 『자정신편』은 서방 과학기술을 배움으로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를 이끌며 법제, 언론매체, 정치, 경제제도 등과 같은 서방사회의 “국가 법도”를 도입하고자 하였고 이는 중국 역사상 첫 번째 근대화 강령이 되었다. 홍수전은 이를 비준, 반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럽 선진화(철로, 증기기관 등) 도입 주장은 특히 천왕의 높은 찬사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¹⁾ 여기서 그의 근대화 사상이 움트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감성적인 인지 단계에 머물러 그의 사상구조에서 새로운 측면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홍수전은 기본적으로 근대화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때문에 그에게서 구체적인 근대화의 실천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이수성과 같은 장수의 경우 서양식 총, 대포와 기선 등을 구매하거나 생산해보는 등의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홍수전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다소 뒤떨어진 편이었다. 하지만 청나라 황제와 중국번(曾國藩), 이홍장(李鴻章)과 같은 청조 “중흥의 명신(中興名臣)”에 견줄 때 홍수전이 기독교 사상 도입, 자유무역 주장, 열강과 평등 협상, 불평등조약 거부, 아편 엄금, 『자정신편』 비준 등 측면에서 보여준 사상 및 정책 실천은 그가 대외개방과 근대화 의식에서 이들보다 한층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홍수전 주도 하의 태평천국운동과 그 사회적 실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위와 사회적 실천은 사상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환경의 제약과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실천과 사상은 서로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거나 심지어 역설적일 수 있다. 농민운동 사상가였던 홍수전은 태평천국운동을 위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그렸지만 청조와 외세 열강이 연합해서 무력 진압 공세를 펼치고 태평천국 내외적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 처하자 그는 태평천국운동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사상적으로 이러한 현실과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했으며 이에 따른 조정과 수정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과 실천 측면에서 실용적인 점

21) 「서양의 태평천국에 관한 보도」, 『태평천국속편』(9)을 참조, 계림 : 광서사범대학출판사, 2004, p.235.

군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실천 사이에서 괴리 또는 역설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사실 사상가와 정치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 사상가의 경우 이론적 사고와 사상 구축에 주력하지만 정치가는 현실적인 사회 실천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홍수전은 이 두 가지 역할을 일임했기 때문에 상호 다르거나 모순된 모습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홍수전과 태평천국의 중요한 사회적 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홍수전은 태평천국 의거를 일으키고 14년간 청나라에 무력 투쟁으로 맞서며 전국적인 반청혁명운동을 이끌어냈다. 그는 청나라 집권자 세력을 타파하고 청조의 정치구도를 바꿔놓았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한족세력이 빠르게 확장되어 점차 지방권력에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권력의 분배에 참여하여 “총독과 순무의 독재체제[督撫專政]와 지방 강화, 중앙 약화의 외중내경(外重內輕)의 정치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청나라의 중앙집권이 점차 흔들리고 만주족이 주도하던 정권은 “만한공치(滿漢共治)” 및 지방분권(地方割據)이라는 형태로 변모했다. 이는 후에 신해혁명을 거쳐 한족의 각 정치세력들이 연합하여 만족정권을 타파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2. 홍수전은 태평천국 군민을 모집하며 “모든 이는 용감하게 적군과 외세 맹군에 맞서라 …… 이로써 천하태평을 이루고, 내외 적군을 무찌르는 대업을 이루리라”라고 밝혔다.²²⁾ 태평군은 낙후된 무기에도 불구하고 폭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선 결과 열강 침략군의 무력 간섭을 물리쳐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던 이수성은 1862년의 상해전투에 대해 “당시 오랑캐군은 감히 나랑 맞설만한 자가 없었는데, 그들은 싸우는 족족 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회고했다.²³⁾ 태평천국 군민의 애국 및 반침략 정신은 중국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던 것으로 중국 근대 민족주의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는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반제국주의 침략에 용감하게 맞서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과 국가 독립 쟁취를 위한 위대한 투쟁으로 이끌었다.

3. 홍수전의 반청혁명 사상과 실천, 그리고 토지균분정책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혁명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손중산(孫中山)은 스스로를 “제2의 홍수전”이라 하였고 태평천국의 업적을 이어받아 무력투쟁으로 반청혁명을 이끌어 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또한 태평천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황권주의와 군주전제(君主專制)를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와 동시에 태평천국의 균전정책(均

22) (영)『북화첩보(北華捷報)』, 상해, 제676호, 1863년7월16일 ; 간우문(簡又文)의 번역문을재인용 : 『태평천국전사』(하), 홍콩 : 맹진서옥(猛進書屋), 1962, p.2135.

23) (영)Augustus Frederick Lindley, 왕유주(王維周) 옮김, 『태평천국 혁명 경험담』, 상해 : 상해고적출판사, 1985, p.636 ; (영)베넷 · M · 에런, 손양(孫梁) 편역, 『중국에서의 고든(戈登在中國)』, 상해 : 상해고적출판사, 1995, p.59.

田政策)을 참고하여 “평균지권(平均地權)”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후에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경작농민에게 토지를)”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태평천국이 농민을 동원, 조직하여 무장세력으로 키운 경험을 본받아 무력 혁명을 이끌고 일본침략군에 맞서며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결과 민족 민주 혁명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

4. 홍수전과 태평천국의 실천에는 여러 가지 약점과 교훈을 담고 있다. 1) 군사적 지휘에서 여러 차례 전략적 착오가 있어서 비록 많은 승리를 일궈냈지만 그 전략적 역량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청나라와 외세 열강에 의해 진압될 수밖에 없었다. 2) 홍수전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황권을 둘러싼 쟁탈전을 벌여 피 비린 내 나는 천경사변(天京事變)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권력투쟁 가운데 태평천국의 집권력과 전투력이 모두 소모되고 약화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때 청나라가 이 기회를 틈타 공세를 펼쳤고 반청혁명운동은 결국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여러 측면에서 과격한 정책을 펼친 결과 지식인, 부유계층, 상공 계층, 도시 주민, 일반 백성 등과 같은 민중 이익에 큰 손해를 가져다주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전쟁으로 인한 부담감이 날로 커져 중국에는 민심을 모두 잃고 사회적 기반이 약해지는 등 태평천국은 점차 고립적인 종교 및 군사 정권으로 변모되어 파국지세로 밀려드는 청조 및 외세 열강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했다.

洪秀全：思想和实践述论

崔之清

中国太平天国史研究会 / 南京大学 教授

-
1. 洪秀全思想渊源考论
 2. 洪秀全思想结构之层面分析
 3. 洪秀全思想演变简论
 4. 洪秀全主导的太平天国运动之社会实践
-

洪秀全是太平天国运动的政治和精神领袖，领导了这场历时14年的反清革命运动，建立和统治了与清朝武装对峙的太平天国天朝政权，同时，创立和推行拜上帝教，构建了一元化的神学意识形态，建成了了政教合一的权力体系。因此，洪秀全的思想和实践对太平天国运动的兴衰存亡具有决定性的影响。本文拟通过历史文献的分析和实证研究，重建洪秀全思想发轫、演变的基本史实，探究其思想结构，论述洪秀全及太平天国运动的主要社会实践及其影响和效应。不当之处，祈请各位专家批评指正。

1. 洪秀全思想渊源考论

社会存在决定社会意识，洪秀全的思想是当时社会结构、文化环境和个人教育及人生经历交互作用的精神产物。所以，追溯和厘清洪秀全思想渊源，需要从清朝嘉道年间两广地区的社会和文化实态、以及洪秀全特定的人生道路和心路历程，展开系统考察与辨析，才能得出符合历史事实的学术见解。

1) 科举失利，萌生改朝换代的反清革命理念。

洪秀全(1814-1864)是广东花县(今广州市花都区)的一位农家儒生，自幼接受一般儒学教育，喜好阅读中国历史及奇异书籍，曾四次去广州参加县试，但一直未能考中秀才，遂在家乡村塾教书。所以，他是经受儒学熏陶的农村知识青年，随着屡次科场失意，对科举入仕之路深感绝望，并滋生和累积了仇恨清朝、官府和现实社会的反抗心理。1837年，第三次科考失败，洪氏深受刺激，悲愤郁积，猝然重病40余日，病中赋诗言志，自命“天王”，产生推翻清朝、创建新朝的革命理念。¹⁾1843年，再次失败，彻底绝望，赋诗自比潜龙，暂时潜藏，“等待风云齐聚会，飞腾六合定乾坤。”²⁾自此，洪秀全开始思考和寻求建构反清革命、创建新朝的理论 and 组织形式，以动员和凝聚反清力量，实现改朝换代的政治目标。

2) 两广是天地会活动的重要区域，“反清复明”是秘密会党的普遍政治诉求，反满意识在广东民间社会长期渗透和传播，构成汉族政治文化的重要层面。

两广地处边陲，是清廷统治的薄弱地区，因此，反清秘密会党绵延不绝。嘉道年间，天地会(三合会)随移民渗入两广，鸦片战争后，因大批被裁撤壮勇加入而迅速扩展，并完成军事化进程，成为威胁清朝两广政权的主要反抗力量。协办大学士杜受田奏称：

粤西贼匪为患，自道光初年，各府州县已有结盟拜会……逮至道光二十五、六年间(1845-1846)，左右江及各江接近广东等处盗风滋炽……(至道光末年)，贼匪多至数十股，每股各有渠魁。³⁾

1) 洪仁玕口述、(瑞典)韩山文记录：《太平天国起义记》，见《太平天国》(六)，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840~843页。

2) 《洪仁玕自述》，见《太平天国》(二)，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848页。按洪仁玕：误记此诗写于1837年，查1837年秀全应试不售，带病乘轿归里，1843年再试失败，始乘舟回家，洪仁玕既说“在舟吟诗云”，则此诗当作于1843年，又诗的内容也与乘舟吟咏相符。

3) 《协办大学士杜受田奏陈两广起事情形并剿捕方略单》，见中国第一历史档案馆编：《清政府镇压太

洪秀全生活在两广，自幼对满族压迫汉族强烈不满，具有自发的反清意识。走上反清道路后，密切关注和研究天地会活动，并从中汲取反清斗争的经验教训。他肯定天地会的反清目标，却不赞成“复明”，而主张“开创新朝”。并且，认为天地会“又有数种恶习，彼等原有之真宗旨，今已变为下流卑污而无价值了。”⁴⁾因此，洪秀全没有选择参加天地会，而是决定构建新的反清理论和组织形式。由于清廷的严密控制和残酷镇压，公开发动反清运动，很难成功，洪秀全遂借鉴天地会的现实经验，决定采取宗教形式，掩护反清革命的准备和动员工作。由于偶然接触和清廷弛禁政策，他选择了基督教。但是，洪秀全深受儒学熏陶，故将儒学融入基督教，还汲取了某些中国民间宗教习俗，创立了拜上帝教，建构了太平天国运动独特的宗教形式。

3) 洪秀全思想的资料来源

(1) 从基督教选择了一神教等教义

洪秀全原来对基督教一无所知，1836年他在广州偶遇传教士讲道，获赠9本中国人梁发编写的传教读物《劝世良言》，第一次接触基督教，当时却并未留意。直到1843年，第四次科考失败，再度走上反清革命道路，才在别人推崇下翻阅和研读《劝世良言》，并从中汲取若干思想资料，作为创立拜上帝教的重要理论依据。及至1847年，他又赴广州，师从美国传教士罗孝全学习《圣经》，才对基督教教义和仪式获致比较完整、系统的知识。

大体而言，拜上帝教从基督教选择的主要教义是：

1、“开辟真神惟上帝”，“上帝当拜”，“勿拜邪神”。⁵⁾摒弃中国人多神崇拜与宗教包容共存的理念和习俗，推行一神教，只承认上帝是独一真神，人人应当崇拜，其它神祇都是偶像、邪神，必须废弃，甚至连孔子、祖先的神主牌亦须撤除，强制在中国推行拜上帝教，其他宗教概行禁绝。

2、拜上帝，行善积德者，“死后魂升天堂，永远在天上享福”；拜邪神，行恶事者，“死后被鬼捉，永远在地狱受苦。”⁶⁾

平天国档案史料》(一)，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1992，第206页。

4) 洪仁玕口述、韩山文记：《太平天国起义记》，见《太平天国》(六)，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872~873页。

5) 洪秀全：《原道救世歌》，见《太平天国》(一)，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87页。

6) 《原道觉世训》，见《太平天国》(一)，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97页。

3、"皇上帝天下凡间大共之父也", 世人都是上帝子女, 相互关系是兄弟姐妹, 天下一家。在上帝而前, 人人平等, 互助互济, 安贫守分, "天生天养和为贵, 各自相安享太平。"⁷⁾

4、根据《圣经》"摩西十诫", 制定"十款天条", 作为教众的纪律规范和人生准则, 起义后成为军事纪律; 拜上帝教各项礼仪制度, 颇多源于基督教; 参照《圣经》故事, 建立圣库制度和军事共产主义分配方式。

(2) 将儒学附会和融入基督教, 实现基督教本土化

洪秀全在引进基督教时, 面临四个亟需解决的难题: 其一, 拜上帝教不以儒学为道统, 而是重建新的宗教理论和教义, 在统治者和士大夫看来, 显然是"异端邪教", "妖言惑众"。其二, 拜上帝教主张崇拜上帝, 废弃偶像, 禁止祭祀祖先, 背离了中国人的传统信仰和崇拜观念。上帝是西方基督教的崇拜对象, 因此拜上帝被中国社会舆论指斥为"从番"。而且, 当时正值鸦片战争之后, 中国蒙受列强侵略与欺凌, 民众爱国情绪高涨, 宣扬基督教更会引起中国人的误会和义愤。其三, 洪秀全等对西学和基督教缺乏认知, 基督教不合中国国情与民情, 难以说服民众, 尤其是知识分子。洪秀全悉知儒学, 而且深刻感知和理解中国传统文化习俗的巨大影响力。因而, 他采取了合理选择, 把基督教与儒学结合起来, 使基督教带有浓烈的儒学特色, 皇上帝也中国化, 便于中国人接受和认同。其四, 洪秀全出于政治动机而选择基督教, 作为反清运动的思想武器, 但基督教主张忍受、顺从的非暴力理念, 不符合反清武装斗争的需要, 亦须加以修改或舍弃。针对上述难题, 洪秀全根据中国国情和反清革命的政治需要, 也囿于自己对基督教的粗浅认知, 在创立和发展拜上帝教的过程中, 对基督教义作了较多的取舍, 致使拜上帝教带有鲜明的中国文化和政治特色, 值得我们研究与剖析。

1、批评基督教宣扬"忍耐或谦卑", "无以管镇邪恶之世", ⁸⁾主张"斩邪留正", 采取武装斗争手段, 推翻清朝统治, 建立人间天国。

2、拜上帝教修正基督教教义中耶稣是上帝独子的说法, 宣称上帝有一个家庭: 上帝是天父, 耶稣是长子, 洪秀全是次子, 冯云山、杨秀清、韦昌辉、石达开分别是第三、四、五、六子, 萧朝贵则是上帝女婿, 其妻洪宣娇是上帝女儿。此外, 还有天母(上帝妻子)、天嫂(耶稣妻子)等。独一真神的上帝遂扩大为上帝家庭, 形成以上帝为核心, 耶稣治理天堂, 洪秀全治理凡间, 首义领袖们则成了血缘兄弟, 整个领导集团加固了内部凝聚的纽带

7) 《原道醒世训》, 见《太平天国》(一),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0, 第92页。

8) 洪仁开口述、韩山文记: 《太平天国起义记》, 见《太平天国》(六),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0, 第864页。

，也增添了神的权威。反清革命因此带有浓烈的圣战色彩。

3、拜上帝教发展基督教"原罪"与"救赎"的教义，在耶稣救赎，"代世人受苦"的神话以外，又杜撰了新的神话：1. 1837年，"皇上帝遣天使接天王升天，命诛妖，复差天王作主救人。"宣扬洪秀全的皇权是上帝亲授。2. 1850年秋冬，皇上帝"差东王下凡"，"贼众人之病"，编造东王杨秀清为民众赎病的功勋，杨的权力也来自上帝亲授。⁹⁾

4、关于圣父(上帝)、圣子(耶稣)、圣灵(the Holy Ghost)"三位一体"教义，拜上帝教与基督教的解读迥异。基督教坚持"三位一体"，拜上帝教则认为，三神分立：上帝是天父，耶稣是天兄，圣灵是东王，从而把三者分开。并且，基督教认为上帝无形，拜上帝教则肯定上帝有形，洪秀全自称，亲眼看到过天父、天母、天兄、天嫂等。

5、基督教的天堂说，仅指人死后灵魂寄托的"天国"，拜上帝教则把它搬到人间，既指人们死后灵魂升入的天上天国，更指凡间的太平天国。洪秀全说："天上有天国，地下有天国。天上地下同是神父天国，勿误认单指天上天国……(地下天国即)今日天父天兄下凡创开天国是也。"¹⁰⁾因此，拜上帝教徒不仅要追求灵魂升入天堂，更要追求现实的人间天国(小天堂)，开创温饱平均的太平世界。

6、《圣经》是基督教的绝对真理，也是检验一切基督教理论的根本标准。不同教派只是在解释和运用《圣经》上出现歧见，都不敢对《圣经》有任何怀疑。拜上帝教与基督教不同，虽然尊崇《圣经》的经典地位，但并不视为绝对真理，而是根据斗争形势和领袖个人需要，实用主义地取舍《圣经》，甚至怀疑、随意诠释与改动。这集中表现在洪秀全对《圣经》的"批解"上。诸如上帝家族说、三位分立说、小天堂说、上帝五次大怒说……都表明洪秀全对《圣经》的修正和扩充，其目的完全出于政治需要。

更有甚者，洪秀全还把他的部分诏旨，以及杨秀清、萧朝贵代天父、天兄发言的若干语录，汇编成《真天命诏旨书》，作为《圣经》的补充。定都天京后，洪秀全下诏，宣布拜上帝教的《圣经》由三部分构成：《旧遗诏圣书》(《旧约》)、《新遗诏圣书》(《新约》)、《真天命诏旨书》。洪仁玕在《钦定士阶条例》里，改称《旧约》、《前约》、《真约》。而且，拜上帝教实际上把《真天命诏旨书》置于基督教的《圣经》之上。

此外，宗教仪式、宗教节日、宗教纪律等规定，拜上帝教与基督教也有一些差异。

比较分析表明，洪秀全出于倾覆清廷、开创新朝的政治需要，对基督教进行一番重大的加工和改造，汲取其有利于反清革命的合理内核，扬弃其不利于反抗现实社会的消极成分，并把中国农民平等平均要求及儒学中的大同社会构想、传统伦理纲常，甚至中国民间流传的祭祀形式，包括民间巫术，大量注入拜上帝教义，以适应现实政治需求。经过中西话语的长期磨合，拜上帝教义得以不断充实和逐步完善，遂成为中国本土化的宗教。因

9) 《天情道理书》，见《太平天国》(一)，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366页。

10) 《钦定前遗诏圣书》，见《太平天国续编》(一)，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4，第117页。

此,拜上帝教既不是基督教的分支,也不是基督教的异端,而是太平天国运动的宗教形式和思想武器。

2. 洪秀全思想结构之层面分析

1994年,笔者撰写和出版了专著《洪秀全评传》,在"导言"中指出:

洪秀全思想既是一个动态的流变产物,又有其相对稳定的内在结构。其动态流变表现为结构形态的不断运动和变异。因而,研究洪秀全思想必须对其内在结构的层面组合展开静态和动态的辨析。¹¹⁾

就内在结构而言,洪秀全思想基本涵括5个主要层面,每个层面都是洪秀全思想的重要组成部分,在各个时段不同程度上影响、制约和主导了洪秀全及太平天国的社会实践。兹简明分述如次:

1) 主导层面:反清革命思想

1837年洪秀全萌生反清革命思想后,经过一度徘徊和继续科举应试,直到1843年失败,才决心推翻清廷,创建新朝。从此,反清革命思想贯串着洪的一生,主导他领导太平天国运动。洪秀全的著作、诏旨和诗文,都充满了强烈的反清革命精神。为此,他运用宗教话语,将清朝皇帝称为"阎罗妖",清朝官员则是"阎罗妖之妖徒鬼卒",是造成人间苦难的根源。凡是上帝子女,必须拥戴和追随洪秀全,"共同击灭"这些妖魔,才能建设太平世界。¹²⁾在实践中,他从来没有妥协和动摇,即使在最困难的岁月,洪秀全仍然号召军民,坚持与中外敌人血战到底,表现了中华民族不畏强暴、不怕牺牲、英勇反抗的伟大民族精神。

11) 崔之清、胡臣友:《洪秀全评传》,南京:南京大学出版社,1994,第27页。

12) 《原道觉世训》,见《太平天国》(一),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97页。

2) 淡化层面：平等平均思想

洪秀全出身下层社会，自幼生活在贫苦农民和贫寒儒生群体之中，切身体会和同情下层民众的苦难，因此他立志创建新朝，“斩邪留正”，解救“民悬”，使民众摆脱贫贱地位，获得温饱和幸福，实现“四海一家”、“太平一统”的理想社会。洪秀全通过拜上帝教义宣示，人人都是上帝子女，因而都具有平等的地位，应该“有无相恤，患难相救”，不能“尔吞我并”。¹³⁾定都天京后，太平天国出台了《天朝田亩制度》，试图将平均主义社会制度化。为此，规定“有田同耕，有饭同食，有衣同穿，有钱同使。”“废除地主土地所有制，将所有土地收归国有，按人口平均分配；在生活资料分配上，所有民众一律平均，“通天下皆一式”，实现“无处不均匀，无人不饱暖。”¹⁴⁾可见，这是一幅平均主义的理想社会蓝图，也是儒学“大同社会”的新版本，体现了下层民众的愿望和诉求。但是，洪秀全的平等平均思想具有严重的局限性：其一，太平天国仍然是等级森严的社会，权贵、官员享有特权，“世食天禄”，普通民众“耕田奉上”，¹⁵⁾供养特权阶层。其二，关于平均分田，饱暖均匀的制度并未实施，只是一纸具文。因此，平等平均思想不断淡化，及至后期，完全被洪秀全的皇权主义所遮蔽。

3) 强化层面：皇权主义

与平等平均思想淡化相对，洪秀全皇权主义却不断强化，并恶性扩散，成为领导集团的集体意识，构成太平天国失败的主因。洪秀全生活在王朝时代，接受儒学教育，必然选择改朝换代的革命模式。在萌生反清思想时，洪秀全就梦想创建新朝，自命天王，皇权主义成了反清革命的重要思想动机。还在秘密准备起义阶段，他就制作和试穿黄袍，遭到萧朝贵批评和警告。¹⁶⁾金田起义未久，处在清军围剿之中，洪秀全就在江边集镇江口圩招纳后妃，享受帝王生活，接着，又在农村集镇东乡登基。至永安孤城，却大搞封王建制，领导集团的集体皇权意识由此催生。定都天京后，诸王大兴土木，后妃成群，生活腐化，集体皇权意识极度膨胀，导致自相残杀的天京事变，太平天国从此由盛而衰。后期，洪秀全一度废除军师职位，宣布“主是朕做，军师亦是朕做。”¹⁷⁾实行极权统治，排斥异姓，连族弟

13) 《原道觉世训》，见《太平天国》（一），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91~92页。

14) 《天朝田亩制度》，见《太平天国》（一），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321~322页。

15) 《天朝田亩制度》，见《太平天国》（一），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321页。

16) 《天兄圣旨》，见《太平天国续编》（二），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4，第276页。

17) 《福音敬录》，见《太平天国》（二），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第514页。

洪仁玕也不愿放权，皇权主义发展到极致。结果人心涣散，各地将领也深受皇权意识侵蚀，割据称王，与中央离心离德，是造成太平天国覆亡的重要原因。

4) 宗教神学层面：拜上帝教

洪秀全创立拜上帝教，藉以动员和组织教众，并以“十款天条”约束教众，完成宗教组织军事化进程。起义后，洪秀全称天王，又是教主，太平天国成了政教合一的王朝政权。但是，神权和世俗权力出现二元化格局，杨秀清因天父(上帝)发言人的身份，凌驾在洪秀全之上。洪秀全的皇权和神权都遇到严重挑战，遂致引发天京事变。洪秀全先后诛杀杨秀清、韦昌辉，逼走石达开，终于收回神权。太平天国后期，拜上帝教成了洪秀全强化皇权的宗教工具，其动员和组织军民的功能迅速流失。洪秀全沉溺于宗教，迷信上帝，李秀成批评他“不问国中军民之事，深居宫内，”“言天说地，并不以国为由〔事〕”¹⁸⁾不愿亲理朝政，任由二位贪渎无能的兄长操控中央权力，造成朝政紊乱，贪腐泛滥，人心丧失。拜上帝教功能走向反面，成为太平天国失败的重要内因。

中国历朝尊奉儒学，崇拜孔子，尊崇和祭祀祖先，民众信仰佛、道等宗教，迷信鬼神，祭拜各类偶像。太平天国却运用国家机器，强制推行拜上帝教，废弃偶像崇拜，反孔非儒，取缔其他宗教，甚至焚毁书籍，破坏寺庙和神祇，否定传统文化。这些反传统的过激行为引起知识分子和民众普遍反弹，他们对拜上帝教缺乏宗教认同，继续保持传统信仰，对太平天国深感失望。知识分子多数支持清朝，拥戴曾国藩“克邪卫道”。过激的宗教政策孤立了太平天国，将民众和知识分子推向清朝阵营，显然是严重的政策失误。

5) 新生层面——民族主义和反侵略思想

洪秀全的民族主义具有两种不同情境和意涵：一是国内民族关系，洪氏具有强烈的汉族民族主义，坚持华夷之辨，鼓吹排满兴汉，恢复汉族王朝。“驱除鞑虏、恢复中华”成为反清革命思想的重要内核，也是太平天国运动的主要目标；二是中外关系，主要是中国和西方列强的关系。洪秀全同样恪守华夷之辨，自命天朝上国，“天下万国太平真主”，称列强为“夷”、“西洋番国”，并谕令列强输诚纳贡。¹⁹⁾但由于列强信奉基督教，洪秀全出于共同

18) 《李秀成自述》，见太平天国历史博物馆编：《太平天国文书汇编》附录，北京：中华书局，1979，第531页。

19) 《东王杨秀清答复英人三十一条并质问英人五十条诰谕》，见太平天国历史博物馆编：《太平天国

宗教信仰,将英国使节称为"西洋番弟",并且,因为"同敬天父同一家",洪秀全希望列强帮助太平天国"杀妖魔",参与反清战争。²⁰⁾前期,列强伪装"中立",太平天国尽量与列强和平相处,但是,及至1862年,列强与清朝勾结,公然侵犯太平天国疆土,洪秀全下诏,坚决捍卫领土主权,天国军民在上海、苏南、宁波等地,英勇抗击外国侵略军,开启了近代中华民族反侵略斗争的先河。

3. 洪秀全思想演变简论

洪秀全思想结构的层面分析表明,各个层面都有各自的演变进程,总体而言,反清革命层面始终主导洪秀全一生的政治行为和太平天国各项社会实践,体现了太平天国运动的主体目标。同时,皇权主义和宗教层面,相互结合,建构了洪秀全神人同体、天人合一的超凡独尊形象,实现了宗教神权和世俗皇权的统一,使洪的绝对皇权笼罩着上帝、耶稣的神权光环,于是,洪秀全的君主地位和皇权来自上帝,太平天国也成了上帝护佑的神圣国家,被称为"天父天兄天王太平天国"。因此,拜上帝教成了洪秀全包装绝对皇权和太平天国政权的神学工具。在洪秀全思想结构中,皇权主义和拜上帝教都处在不断强化的地位,也是主导洪秀全话语和行为的重要思想依据。至于平等平均思想,则是洪秀全为了动员下层民众参加反清革命的理想宣示,并在反清革命高潮时演变为具体制度和政策,体现于《天朝田亩制度》,但是,随着洪秀全及领导集团集体皇权意识和封建特权的膨胀,他们迅速脱离普通民众,蜕变为新的封建帝王,于是,平等平均只停留在理想层面,而非社会实践,以致民众感觉太平天国与清朝并没有实际区别。就反侵略思想而言,洪秀全本来没有反对列强侵略的近代民族主义,只有传统的民族主义。直到太平天国后期,遭到列强军队侵犯,才被迫展开反侵略武装斗争,所以这是洪秀全思想结构中的新生层面,也是洪秀全晚年思想新的亮点,对中国近代反对帝国主义运动具有深远影响。

必须指出,洪秀全族弟洪仁玕曾经参与拜上帝教的创立和早期传教,但未及参加起义,就逃亡香港、上海,寓居9年,与西方传教士结交,并皈依基督教。1859年,洪仁玕辗转至天京,受到洪秀全任用,一度掌理朝政。他撰写了《资政新篇》,经洪秀全批准颁行。

文书汇编》,北京:中华书局,1979,第299、307页。

20)《赐英国全权特使额尔金诏》,见太平天国历史博物馆编:《太平天国文书汇编》,北京:中华书局,1979,第42、44页。

《资政新篇》提出学习西方科学技术,在中国实现工业化和城市化,进而引进西方"邦法",包括法制、新闻媒体、政治、经济制度等。《资政新篇》是中国第一个近代化纲领。洪秀全批准颁行《资政新篇》,而且"引进欧洲的先进东西(如铁路、蒸汽机之类)的主张,尤其博得了天王的极大赞同。"²¹⁾说明他开始萌生某些近代化意识。但是,这只是感性认识阶段,并未在洪秀全思想结构中形成新的层面,所以不宜拔高和夸大。客观地说,洪秀全基本缺乏近代化意识,更没有具体的近代化实践。比较李秀成等将领,购买和试制西方枪炮、轮船,洪秀全显得思想滞后。但是,较之清朝皇帝及曾国藩、李鸿章等"中兴名臣",洪秀全在引进基督教、主张自由贸易、与列强平等谈判、不承认不平等条约、严禁鸦片、批准《资政新篇》等方面的思想、政策和实践,都表明他的对外开放和近代化意识显得较为先进。

4. 洪秀全主导的太平天国运动之社会实践

一般而言,人们的行为和社会实践往往来自于思想动机,但基于客观环境的制约和主观认识的变化,社会实践与思想经常存在着不同程度的差异,甚至出现悖论。洪秀全是一位农民运动思想家,为太平天国运动绘制了理想的蓝图,但是,他也是太平天国政治领袖,面对清朝和外国列强的联合武装镇压,太平天国内外环境复杂多变,洪的思想必须适应严峻的形势和环境变化,不断进行调整和改变,体现在政策和实践层面则比较务实,因而必然出现思想和实践的差异或悖论。思想家和政治家毕竟是两种角色,前者重于理论思考和思想建构,后者重于现实的社会实践,洪秀全身兼两种角色,出现差异或悖论更属必然。笔者拟就洪秀全及太平天国的主要社会实践概述如次:

(一) 洪秀全领导太平天国起义,坚持反清武装斗争14年,掀起全国性反清革命高潮,沉重打击了清朝权贵势力,改变了清朝的政治结构。主要体现为:汉族地方势力迅速扩张,逐渐控制地方权力,并参与中央权力分配,形成"督抚专政"、外重内轻的政治格局。清朝中央集权逐渐消解,满族主导政权遂转变为"满汉共治"和地方割据,以致在辛亥革命后,最终促成汉族各派政治势力联合推翻满族政权的结局。

(二) 洪秀全号召太平天国军民,"人人当奋勇与敌人及其番鬼盟军作战……以至得到天

21)《西方关于太平天国的报道》,见《太平天国续编》(九),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4,第235页。

下太平, (抗击中外敌人)大业成功。²²⁾太平军武器落后, 不畏强暴, 作战勇敢, 英勇抗击外国侵略军的武装干涉, 取得了多次胜利。李秀成亲历戎行, 回忆1862年上海战役说: "那时鬼兵并不敢与我见仗, 战其即败。"²³⁾常胜军头目、英国军官戈登承认, 太平军"为效忠于自己的高贵事业而死", "打起仗来勇猛无比, 简直就是拼命"。²⁴⁾太平天国军民的爱国和反侵略精神, 为中国人民世代传承和弘扬, 成为中国近代民族主义的重要源流, 鼓舞和激励着世代中国人奋勇投身反对帝国主义侵略、争取民族解放和国家独立的伟大斗争。

(三) 洪秀全的反清革命思想和实践、平均分配土地的政策, 对后续的革命运动产生了深远和积极影响。孙中山自称"洪秀全第二", 表示要继承太平天国事业, 立志采取武装斗争手段完成反清革命事业, 并汲取太平天国失败的教训, 摒弃皇权主义, 废除君主专制, 创建民主共和国。同时借鉴了太平天国均田政策, 提出了"平均地权", 后来发展为"耕者有其田"。中国共产党则学习太平天国动员、组织和武装农民的经验, 领导武装革命, 抗击日本侵略军, 推翻国民党政权, 取得了民族民主革命的伟大胜利。

(四) 洪秀全和太平天国的实践存在颇多缺失和教训。1、军事指挥屡犯战略错误, 虽然取得多次胜利, 但未能改变战略力量差距, 最终被强势的中外敌人所镇压。2、洪秀全等领袖争夺皇权, 酿成血腥的天京事变, 之后, 权力斗争持续不绝, 长期剧烈的内斗耗散和削弱了太平天国的执政力与战斗力, 遂致清朝乘机转入进攻, 得以镇压了这次反清革命运动。3、实行多项过激政策, 严重损害了知识分子、富裕阶层、工商阶层、城市居民、普通民众等群体的利益, 而且, 沉重的战争负担, 使广大农民难以承受, 致使太平天国失去民意支持, 缺乏广泛的社会基础, 蜕变为孤立的宗教和军事政权, 难以战胜强势的中外敌人。

22) (英)《北华捷报》, 上海, 第676号, 1863年7月16日; 译文转引自简又文:《太平天国全史》(下册), 香港: 猛进书屋, 1962, 第2135页。

23) 《李秀成自述》, 见太平天国历史博物馆编:《太平天国文书汇编》附录, 北京: 中华书局, 1979, 第524页。

24) (英)哈喇著、王维周译:《太平天国革命亲历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第636页; (英)伯纳特·M·艾伦著、孙梁编译:《戈登在中国》,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第59页。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사상과 활동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
1. 서언 : 평화통일을 위해
 2. 전봉준의 지도력 : 유교적 '사(士)'의식
 3. 사상적 원천 : 동학사상
 4. 자유민주주의적 활동 : 민중주의적 분석
 5. 결론 : 역사적 경험과 교훈
-

1. 서언 : 평화통일을 위해

이 시대의 민족사적 당면과제는 민족의 평화통일이다. 평소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은 중국식 민족주의(사회주의)로 현대적 통일국가를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하나의 정치사상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민족의 전통사상에서 평화통일이념을 모색하던 차에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동학사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내천(人乃天)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남북의 양 체제는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통일의 정치사상은 모색하였으나 현실에 성공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거(典據)로 하

는 것이 더욱더 통일운동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한 때는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의 인도민족주의도 연구하여 보았다.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띄면서 대륙 인도를 민중(민주)주의로 좌우 이념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는 한국의 동학혁명과 중국의 태평천국혁명을 세계사적 시야에서 비교하는 학술회의이므로 태평천국의 정치사상과 비교하면서 동학혁명의 현대적 조명을 해보고자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해몽(海夢) 전봉준(全琫準) 정치사상을 민족의 평화통일을 추구해간다는 의미에서 현대적 조명으로 자유민족주의의 정치이념을 가지고 민족주의적 분석방법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성어이다. 자유주의는 생명·자유·재산 등을 보장하는 이념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시장주의와 법치주의, 의회주의가 제도화된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반봉건 반제국, 반독재 반외세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념으로 민족과 국토를 하나로 통일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념이다.

그리고 민중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제3의 이념으로 자산계급(부르조아지)과 노동계급(프로레타리아트)을 아우를 때 이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하여 민중(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내용(contents)으로 하면서 다양한 민족주의 가운데 그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족주의를 외피(cacoon)로 하면서 그 개념들을 분석틀로 원용하고자 하였다.¹⁾

평화통일의 자유민족주의 정치사상을 두고 삼민주의(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의 정치이념의 형식을 취한 것은 중국의 통일에 이바지한 중산(中山) 손문(孫文)의 삼민주의와 상해 임정 당시의 한독당의 독립이념이었던 소양(素昂) 조용은(趙鏞殷)의 삼균주의 정치이념을 귀감으로 삼은 것이다.

2. 전봉준의 정치지도력 : 유교적 ‘사(士)’의식

1) Andrew Heywood,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7, p.109.

동학혁명은 19C 후반기 농민들의 반침략 반봉건 투쟁에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격렬성에 있어 아시아 반제민족해방 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역사적 사변이었다. 이 동학혁명의 조직 지도자가 바로 전봉준이다. 그러므로 전봉준의 농민군 지도자로서의 등장과정과 전쟁에서 그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동학혁명 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890년대 초 농민들의 반침략 반봉건 투쟁은 삼례와 보은 집회투쟁을 계기로 더욱 급격히 성장하였다. 1893년 3월 10일부터 시작된 보은집회에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동학도인들을 비롯하여 상인, 하급관리 등 수만명이 참가하였다.

전봉준이 농민군 지도자로 등장한 것은 다음으로 그의 남다른 기질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1854년 전라도 고창현 덕정면 당촌에서 서당 훈장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에 나가 글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며 13살 때에는 「백구시」라는 한시를 지어 마을사람들을 크게 경탄시켰다.

그는 나이가 든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을 서당훈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쳤으며 <시서백가>의 설을 안 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의가 밝고 인망이 또한 높았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평시에 마을 사람들과 별로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동리에 경사나 상사가 나면 의례히 찾아가 축하와 조의를 표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은 그를 보통인물이 아님을 알고 존경하였다고 한다.

1888년에 동학접주 손화중을 만나 동학에 입도하게 된다. 그의 동학입도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사상을 동경하고 부패한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보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자주 만나고 친교를 두터이 한 인물들은 대체로 호남의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김개남, 호서의 서장옥, 황하일과 같은 동학의 유력한 접주들이었다.

그는 또한 의술과 복술, 풍수도 보며 마을사람들을 규합하고 짬짬이 역대의 군사관계 서적들을 탐독하였다.

이 무렵 고부에서는 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만행을 저지시키기 위한 농민들의 항소투쟁이 두 차례나 벌어졌다. 조병갑은 마을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항소투쟁에 나선 농민대표들을 난민으로 몰아대고 그 투쟁에 앞장섰던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잡아가두고 학살하였다. 이것은 전봉준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다. 1893년 11월 이미 친교가 깊은 동학의 접주 손화중, 최경선을 비롯하여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발통문을 만들어 돌리며 농민들을 봉기예로 이끌었다.

전봉준은 1894년 2월 15일 백산에서 농민군 지휘부로 ‘호남창의대장소’를 조직하였고 여기서 ‘창의대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이날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학혁명의 개시를 선포하였다. 아울러 격문을 발표하고 행동강령도 발표하였다. 그의 지도력을 처음으로 과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최양척왜로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을 것에 대한 투쟁목표와 단계별 과업, 활동규범 등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격문과 행동강령에는 유교식 ‘사(士)’의식에서 충군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로부터 봉건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높은 투쟁목표를 제기하지는 못하였다. 대신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염원, 애국애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다.

전봉준의 지도력은 농민군을 조직하고 그 대오를 확대 강화하는데 동학조직을 이용하였다. 지난 시기 ‘동학란’으로 ‘동학군’으로 불리워 온 것도 이와 관련된다. 농민군의 조직적 공간을 동학의 동접주들과 중하층 선각자들로 꾸렸다. 동학혁명의 개시와 함께 조직된 호남창의대장소의 지휘성원들은 원래 동학의 접주 또는 중하층 선각자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동학도였던 손화중, 김개남 총판령, 김덕명 총참모는 오래 전부터 전봉준 총대장과 교제가 깊은 인물들이었다.

전봉준은 동학혁명 당시 농민군 대오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데 동학포 조직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것은 동학의 포접들이 동학도인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교화하는 동학의 교단조직이었으며, 동학에서는 이것을 통하여 일반군중 속에서 동학사상을 전파하고 동학도인들을 통일적으로 조직 동원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종일관 동학하층조직인 포를 이용하였다. 전봉준은 이렇게 전쟁의 매 단계에서 일정한 전략전술을 세우고 농민군의 전투를 지휘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은 동학혁명에 농민군 지휘자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나 봉건군주에 대한 유교적인 ‘사(士)’의식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근본화군이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제도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전주화의 이후에도 전라도 전 지역의 농민군의 자치기관으로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하면서도 악질적인 관리들을 처단하는데 그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봉건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봉준의 지도력의 제한성으로 각지의 농민군의 투쟁을 통일적으로 결속하지 못한 것이다. 동학혁명은 그 성격으로 보아 전국적 규모에서 벌어진 거족적인 반침략 반봉건 투쟁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 8개 도의 85개 지역을 휩쓸었으며 투쟁에 참가한 농민군 수는 적어도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농민군들을 통일적으로 묶어세우고 군세를 강화하지 못했다. 전봉준은 전라도 농민군 지휘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 못했으며, 농민군은 전국적 범위에서 큰 규모로 일어났지만 조직적인 연계없이 고립적으로 투쟁하게 되었다.

또 전봉준의 제한성은 전략전술상으로 미숙한 것이었다. 그것은 전주에서 정부군 측과 회의를 맺고 서울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지한 것이었다. 전주를 점령한 기세로 서울로 바로 진격했어야 했다. 김개남장군은 전주화의 이후에 일제의 왕궁습격과 청일전쟁의 도발로 말미암아 서울을 공격하는데 매우 유리한 기회가 조성되었음으로 서울로 곧 바로 진격할 것을 주장하였다.²⁾ 그러나 전주화의 이후 집강소 설치와 '폐정개혁'에 치중하면서 서울 진격을 여러 달이나 미루어왔다.

9월 중순 다시금 투쟁의 기치를 들었을 때는 이미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제가 조선의 집권층과 결탁하여 반혁명적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된 시기였다. 이것은 전봉준이 전쟁과정에 범한 가장 큰 전략상의 잘못이었다. 전술상의 공격선과 방어진을 능숙히 배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비록 승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였지만 전쟁 기간 전봉준이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 밑에 농민군을 불러일으키고 농민군과 함께 피어린 투쟁을 벌인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1894년 7월 중순 반일구국항전에 다시 쫓기하면서 고창, 태인, 남원, 금구 등 27개 지역에서 10여만 명의 농민군이 일시에 투쟁에 나섰다. 당시 애국열의에 불탄 유생들도 일제의 간계에 속지 말고 전 민족이 단결하여 죽기로써 왜적을 격멸하자고 정부에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동학사』의 기록에 의하면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공주에서 수천명의 군대를 편성하고 '참의장'으로 자처해 나섰던 유학의 두령이며 선비였던 이유상이 전봉준을 찾아와 농민군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여산부사 겸 후영영장이었으며 농민군 토벌대장이었던 김윤식 등의 판관 지휘관들도 역시 농민군에 의거해왔다.³⁾ 심지어 청나라의 패잔병 500명도 이홍장의 휘하에 있던 섭사성의 인솔 하에 논산에 있던 전봉준의 대본영을 찾아와 참군을 희망하였다.

전봉준의 지도력 밑에 조직 전개된 동학혁명은 조선왕조의 집권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한민족의 애국정신과 용감성, 민족적 단결력을 크게 시위하였다. 농민들이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려면 모든 애국역량이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 것이다.

근대 반제반봉건 투쟁사를 빛나게 장식한 동학혁명의 역사와 함께 갑오 풍운의 총아 전봉준의 공적은 우리 민족사의 한 점의 불꽃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2) 김기전, 『다시 쓰는 동학혁명사』, 도서출판 광명, 2006 참고.

3) 오지영, 『동학사』, 평범사, 1970, pp.212~216.

3. 사상적 원천 : 동학사상⁴⁾

1) 수운에 의한 동학의 창시

조선 근대 역사발전 도상에서 전환적 계기를 열어놓은 동학혁명은 동학교도들의 주도하에서 전개된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이었다. 혁명을 지휘한 전봉준은 혁명발발 10년 전인 30살 때에 동학교에 입교한 독실한 교도였으며 손화중, 김개남 등 농민군 지휘자들도 동학의 접주들이었다. 농민전쟁은 동학의 사회정치적 이념인 ‘광제창생’,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 밑에서 전개되었다. 농민전쟁이 ‘동학농민전쟁’이라고 불리웠으며 농민군이 ‘동학군’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도 농민군과 동학군, 갑오농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혁명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명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확히 하자면 동학과 그의 창시자인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의 활동과 그의 이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학사상은 조선 봉건사회의 붕괴기 농민대중을 기본으로 한 피압박 피착취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민족적인 종교철학사상으로 발생하였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진보적인 청년시절의 수운이 산 시기는 몹시 어지럽고 복잡다단한 봉건사회 말기였다. 나라의 안팎에 조성되는 정세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였던 청년기의 수운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낡은 도덕이 무너지고 기존의 윤리가 끊어졌다고 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세상을 진지리라 결심한 것은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⁵⁾

1855년 을묘년에 한울님(하느님)이 내려보내 주었다는 이른바 『을묘천서』 이야기는 물론 꾸며진 이야기지만 수운이 앞으로 성립하게 될 동학의 영부와 의식절차를 고안해내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동학교리는 1860년 4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상제(한울님)와 수운 사이의 문답형식으로 집약되었으며 그것이 구전의 방법으로 전해지다

4) 동학혁명의 사상적 원천은 폐정개혁안과 격문, 통문, 창의문, 공초들에 뚜렷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전쟁과정에 실시한 농민군의 정책과 조치들에 역력히 자국을 남기고 있다.

5) 『천도교창건사』, 천도교 중앙종리원, 1983, p.3.

가 제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에 의하여 출판물로 간행되었다.

수운은 동학교리를 정리하는 동시에 거기에 종교적인 신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영부’를 만들어냈다. 영부의 모양에 대하여 자료들은 “백지 위에 약동하는 형상이 과연 태극과 같고 궁을(弓乙)모양과 같은 지라”⁶⁾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하늘땅의 마음이요 사람의 넋이며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불사약”이라는 것이다.

수운이 고안한 것은 다음으로 ‘주문’이었다. ‘위천주 고아정 영세불망 만사의(爲天主 顧我情 永世不忘 萬事宜)’라는 13자로 된 동학의 주문에는 수운의 종교철학사상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교도들이 주문의 내용을 파악했건 못했건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암송해서 부단히 반복하여 외우면 스스로 그 뜻과 교리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운은 동학의 수도절차와 형식도 만들어 놓았다.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등 교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관 공덕이라는 것이다. 동학천도교의 5관 공덕은 다른 종교에 비하여 수도절차와 형식이 매우 단순하고 평민적이었으며 여타 종교에 비해 의식절차가 간편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적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종교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순박한 농민대중들 속에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다. 수도방법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운은 동학의 교세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1862년 말 동학교도들을 교단조직에 묶기 위하여 접주제라는 것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수운이 제창한 동학은 그 내용에서 범신론적이기는 하지만 가혹한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며, 외래 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민족적 위기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농민들의 자주적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한 민중주의적인 민족종교의 교리였다고 할 수 있겠다.

2) 동학의 교리: 지기일원론(至氣一元論)

동학은 세계의 시원과 모든 사물의 운동변화 발전의 근원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이 동학의 ‘지기(至氣)론’이다. 지기를 천지의 뿌리이고 만물의 어머니이며 생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만물이 거기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였다. 또 혼돈상태에 있던 우주의 시초는 하나이며 결코 둘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변화발전의 근원이 물질에 있다는 것을 인정

6) 『천도교사』, 천도교중앙총부, p.47.

한 것이다. 범신론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기’를 세계의 시원이며 사물의 운동변화의 기원으로 보면서 ‘기’밖에 따로 인격적 신을 설정하지 않고 ‘기’ 자체에 신적 속성을 부여하여 세계의 형성과 운동, 변화를 설명한 것이었다.

‘지기론’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가 되고 있는 ‘혼원일기(混元一氣, 혼원한 한기운)’사상은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와의 관계에서 의식, 사유를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물질, 존재를 이차적인 것으로 보는 조선에서나 구라파 나라들에서 제창되고 있던 관념론적인 철학사상과는 달리 ‘신령’, ‘지기’, ‘물질’을 제각기 분리시켜 절대적인 한계를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인 사물현상으로 본 것이었다.

‘지기’를 세계의 시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동학의 ‘지기설’은 모든 물체에 영혼이 있다고 보는 영혼설의 일종으로서 범신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기’의 이러한 속성은 유교나 천주교에서처럼 물질적 실체밖에 있으면서 물질 운동을 주관하는 외부적 요인으로서의 작용이 아니라 물질적 실체 안에서 ‘지기’의 기묘한 작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시 근대자연과학의 발전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동학창시자들의 지적 능력과 함께 주요하게는 동학을 신비화함으로써 숭배심을 높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한마디로 동학은 유물론보다 유신론에 기초한 사상이었다.

동학은 철학적, 정치사회적 견해에서 일련의 본질적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동학이 물질적인 ‘기’에 관한 이전의 유물론적 사상을 신비화하고 그에 신적 속성을 부여하였으며 사회의 부조리와 폐쇄의 원인을 도덕적 타락에서 찾는 관념론적 사회역사관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학에서는 사회를 구원하는 길은 동학을 믿어 인간을 도덕적으로 완성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영부’같은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동학은 이러한 본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봉건 반침략적 성격으로 하여 당시 농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궤기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치적, 정신적 무기로 될 수 있었다.

1871년 이필재의 지휘 밑에 전개된 영해농민봉기와 특히 1894년의 동학의 중견인 물이었던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의 지휘 밑에 전개된 동학혁명은 그러한 사실을 확증해준다.

여기서 동학지기론의 한계와 더불어 일련의 특징을 소개해보도록 하자.

그것은 먼저 그 한계로는 봉건통치자들에게 ‘이단’이라는 동학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으려는 주관적 욕망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봉건적 신분제도를 반영하면서도 그의 정점을 이루는 봉건군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으며, 봉건군주제도를 그대로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신분적 차별제도를 없앨 것을 주장한 것이다. 동학의 이러한 제한성은 당시의 사회정치적 견해의 미숙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기론의 일련의 특징으로는

첫째로 ‘내유신령(內有神靈)’론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사람을 한울님의 지위에 올려놓는 반면에 한울님(하느님)을 땅위에 끌어내려 사람의 지위에 놓은 것이다. 동학은 사람은 다같이 ‘지기’의 산물이기 때문에 평등자유와 사람 위에 더 고귀한 사람은 없고 사람 아래에 더 낮은 사람이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벌제도와 지벌 제도로 인간을 계층적인 신분제도로 결박해놓고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여지없이 짓밟는 봉건적 질서에 도전하여 농민들의 본성적인 지향과 요구를 진보적으로 반영한 것이 바로 동학 ‘지기론’이다.

둘째로 수운은 또 지기론에서 “내 동에서 나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천도이나 학문인 즉 동학이니라”고 했다. 이는 농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고수할 것을 지향한 애국 애족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민족종교로서의 애국애족적 입장을 뚜렷이 밝히는 견해이다.

셋째로 민족적 전통과 미풍양속을 옹호 고수하려는 민족의 전통정신이다. ‘지기일원론’에서 연원하는 동학의 계율들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사악과 허위를 증오하며 권력이나 재물보다도 도덕과 양심을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특성을 살려나가라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동학교리는 이러한 민족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반봉건 반침략사상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본구도를 정리하게 되었다.

3) 인내천(人乃天)사상

동학에서는 당시 사람에 대한 견해에서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자기의 독특한 체계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철학적 세계관 형성발전에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학의 인내천사상은 ‘하느님’, ‘하늘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연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인격신’으로서의 ‘하느님’이나 ‘하늘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신령’이란 곧 ‘하느님’이며 따라서 이것은 누구나 ‘하느님’을 자체에 모시고 있으므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학은 ‘상제’나 ‘하느님’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몸에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천상에 있다고 하는 ‘상제’를 부정하고 그러한 설을 허무한 것으로 낙인한 것이다. 동학의 한울님은 사람이나 세계 밖에 존재하면서 세계의 창조자, 지배자로 되는 목적과 의

지를 가진 신적 존재가 아니며, 인간에 의하여 소외된 종교적 외피를 입힌 신적 존재가 아닌 것이다.

동학은 비단 사람만이 ‘하느님’을 지닌 것으로 본 것이 아니다. 우주자연의 천지만물이 다 하느님을 모셨다고 하였다. 귀신도 다 사람 자신이 만들고 스스로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교의 ‘옥황상제’나 유교의 ‘상제’, 천주교의 ‘하느님’도 역시 다 사람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을 떠나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신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해월은 귀신을 천지, 음양, 동성이며 그 근본을 따지면 하나의 기(지기)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제’나 ‘하느님’, ‘귀신’들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몸에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사사천(事事天, 모든 사물이 다 하늘이라는 뜻)’, ‘물물천(物物天, 모든 물건이 다 하늘이라는 뜻)’, ‘이천식천(以天食天,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뜻)’에 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종래의 철학에서 인간 밖의 천상에 존재하면서 우주만물의 창조자로, 지배자로 군림하였던 ‘상제’나 ‘하느님’을 땅위로, 사람의 마음으로 끌어내리고, 하느님이 창조하고 그 지배를 받는다면 인간을 우주만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영특한 존재로 끌어올린 것은 필연적으로 하느님과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서 고찰하는 인내천사상을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인내천사상은 바로 사람과 하느님과의 상호관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 동학의 인내천사상은 지기일원론(至氣一元論)에 기초하고 있다. 동학은 세계에 대한 지기일원론적 고찰방법으로부터 ‘인내천’이라는 특유한 철학사상을 내놓게 되었다. 사람은 다같이 ‘지기’의 산물이라는 지기일원론에 의하면 사람 상호간의 관계문제에서 다 같은 ‘지기’의 산물로 평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원리에 이르게 된다. 사람을 하늘같이 받들고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동학은 바로 이러한 원리로부터 당시의 부패한 봉건사회는 막을 내리고 반드시 새로운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개벽’에 관한 사상을 제기함으로써 농민으로 하여금 봉건통치를 반대하고 투쟁하도록 고무 추동하게 된다. 동학사상이 동학혁명의 사상적 원천의 하나로 된 주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동학은 사람과 하느님과의 상호관계문제를 철학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인내천’에 관한 사상을 제기함으로써 유교나 천주교를 비롯한 선행 종교철학들에서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려 우상화하고 숭배하던 하느님을 땅위로 끌어내리고 사람의 지위를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끌어올리는 등 철학계에서의 새로운 신화를 이룩하였다.

4. 자유민족주의적 활동 : 민중주의적 분석

1) 국가사회제도 및 개혁안

동학사상은 국가사회제도로써 보국안민을 위해 민족주의를, 광제창생의 민생주의, 지상천국건설을 위해 민권주의를 실현할 방안을 제기하였다.

동학혁명에는 처음에 봉건사회의 폐정을 개혁하기 위한 민권과 민생의 반봉건투쟁으로 시작하여 점차 ‘척왜척양’의 구호 밑에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반일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먼저 탐학한 관리들의 청산과 ‘보국안민’의 구호 실현을 선차적 요구로 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군의 투쟁목표는 단순히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방식의 개조를 일정에 올리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동학군의 반봉건적 성격은 봉건적 신분제도의 타파를 전면에 내건데서 알 수 있다. 봉건적 신분제도의 쌍벽을 이룬 것은 양반제도와 노비제도이다.

『조선독립운동역사』의 저자 박은식도 “동학당이 봉기, 항전한 동기는 양반의 압제, 관리의 탐학에 대한 저항이며 그 의미는 우리나라에서의 평민에 의한 혁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참으로 동학혁명은 봉건제도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농민을 비롯한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사회혁명의 불꽃이었던 것이다.

동학혁명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하고 주동한 진보적인 민중주의적 대중운동이었다. 근대적 문물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간의 존중과 평등을 주장한 것은 당시의 부르조아적 요구와 일치한다. 물론 중세농민들의 최대의 염원이었던 소농민적 토지소유를 유지하려는 평균주의적 ‘대동사회’건설의 기본강령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⁷⁾

동방에서는 중국의 ‘태평천국’의 농민군이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에서 토지

7) 『속음청사』 갑오 6월 24일. 정부는 1894년 6월 13일 10년이래의 잡세를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6일에는 국가재산을 행령한 관리는 가차없이 처벌하고 공사채무를 가족, 친척에게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채무 등으로서 30년이 지난 것은 무효로 할 것, 고을 아전은 신중하게 선발하고 규정에 따라 임명하여 뇌물을 받거나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적의 죄로서 다스릴 것, 세금을 국가법에 따라 징수하여 민고는 폐지할 것 등을 추가로 결정하였다.

정책의 일환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이 골고루 분배하려한 것이 바로 그러한 부르조아적 요구를 담은 토지강령이었다.⁸⁾

전주화의⁹⁾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동학농민군이 제기한 폐정의 개혁강령은 양호순변사 이원회를 통하여 봉건정부에 보고되었으며 그 후 이 개혁강령은 교정청에서 토의하고 12개 조항의 폐정개혁안으로 낙착되었다.

이렇게 농민군은 봉건정부에 자기의 요구조건들을 접수시키고서야 화의를 맺었던 것이다. 또한 전주화의를 맺음으로써 조선에 기어든 외래침략자들에게는 더는 무력간섭의 구실을 주지 않게 되었으며 위협에 처했던 민족적 위기도 일정하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폐정개혁안은 집강소의 점주제도를 통해 실시되었다. 이는 김홍집내각의 갑오개혁을 통한 근대국가로 가는 국가사회제도의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오늘날의 근

8) 簫公權 著, 崔明-孫文鎬 譯, 『中國政治思想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제20장 태평천국(太平天國)”, pp. 1063~1096. p.1067. 『천조전무제도』에 의하면, 천하의 전토를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 9등분하고, 남녀를 물론하고 인구에 따라 분배했다. 16세 이상은 15세 이하보다 반을 더 받았다. 일가 가운데 “인구가 많으면 몫이 많았고, 인구가 적으면 몫이 적었다. 9등을 쪼어서 주었다. 예를 들어 일가에 6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3인분은 호전(好田)을 주고 3인분은 추전(醜田)을 주어 호추가 각각 반이 되게 했다. 그것은 전지의 배분에서 평등을 추구한 것이었다. 해에 따라 흉흉이 같지 않으니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또 규정을 세우기를 “천하의 전토는 모든 사람이 경작해야 한다. 이곳이 부족하면 저곳으로 옮기고, 저곳이 부족하면 이곳으로 옮긴다. 천하의 전토는 풍흉이 상통해야 한다. 천하로 하여금 천부, 장주, 황상제의 큰 복을 같이 누리게 한다”고 했다. 풍흉을 상통, 진흥하게 하려면 불가불 경전의 수확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국고가 민생을 위해 쓰이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 그리고 자식이 없고 폐질이 있는 자를 위한 것이니, 경작과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모두 국고를 풀어 먹여 살린다. 둘째는 혼례를 위한 것이니 규정에 있는 것이면 모두 국고를 풀어 행하게 한다. 그것은 향용(享用)에서 평등을 추구한 것이다. 분배와 향용이 모두 평등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전토를 같이 경작하고, 옷을 같이 두르고, 돈을 같이 쓸 것이다. 그러면 평등하지 않음이 없고 배부르고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9) 화약의 전제조건은 집강소제도를 만들어 동학의 점주제에 입각한 폐정개혁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동학군이 강경한 군사활동을 일시 완화한 다른 하나의 요인은 봉건정부가 폐정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학혁명 발발 직후에 벌써 조선 집권층 내부에서는 낡고 병든 정치를 개혁할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선정부가 논의한 폐정개혁은 봉건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동학군을 회유 무마하고 농민전쟁을 저지시킴으로써 극한점에 이른 봉건제도의 위기를 수습해보자는데 그 본질이 있었다. 조선정부측은 1894년 5월 5일 농민군 측에 화의를 제기하면서 농민군에 대한 죄를 묻지 않으며 폐정개혁가운데서 개혁하여야 할 것은 개혁할 터이니 그 조목을 적어 제기하면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1894년 5월 8일에 성립된 전주화회의 폐정개혁내용은 초토사 홍계훈 앞으로 시행할 개혁의 요구 조건 27개 항목을 내놓았다. 알려진 13개 조항 외에 나머지 14개조의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동학혁명에 참가한 오지영의 글에서 제기된 12개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대국민국가건설의 민중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민족주의의 정치이념으로 계승된다.

당시의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의 혁신파세력이 보수세력을 위축시키고 개혁으로 힘있게 떠민 추동력이 되었다. 1894년 6월 군국기무처에서 문벌반상의 신분적 등급제를 폐지하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며, 범죄에 대하여 본인 이외에는 연좌하는 법률을 폐지하며, 남녀조혼을 엄금하며, 과부의 개가는 귀천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맡기며, 공사노비제도는 일체 혁파하고, 사람의 매매를 금지하며, 평민이라도 국가와 백성에게 이로운 의견은 군국기무처에 제기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성 승리의 열매가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학당은 집강소를 세워 지방행정기관을 감시, 통제, 대행하면서 자기의 투쟁강령을 정권적 기능의 권력기관으로 실현해나갔다. 폐정개혁강령을 정치적 권력으로 집행해나간 것이다. 집강소는 전라도의 53개 주, 현 모두에 설치되었으며 남도의 거의 전 지역을 통제하였다. 집강소는 농민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개혁안을 집행해나갔다.

노비문서들을 소각하고 진황지(陳荒地, 버려두어서 거칠어진 땅)의 진황세(원래 받지 않아도 된 묵밭에서 개간하고 난 뒤 받아내는 세) 폐지를 비롯하여, 집강소의 권력이 미친 지역의 노비들과 천민들은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다. 토지분작을 비롯한 개혁안이 집행하지 못한 것은 공주전투의 패배로 하여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학의 후천개벽에 관한 사상은 사회제도의 개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덕적인 개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의 면모를 일신시키려는 점진적인 방법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민족주의

1894년 3월 고부봉기의 반봉건투쟁에서 예봉을 ‘왜이박멸’의 반일, 반침략으로 돌린 것은 1894년 9월 영남과 호남의 전지역에서 전주교외의 삼례에서 도회를 가져 전국 농민들에게 반일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한 때부터였다. 반침략 투쟁에서 반일투쟁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주로 능숙한 정세판단과 그에 적용한 투쟁전략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전봉준의 지략과 애국애족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1894년 3월 ‘보국안민’의 구호를 들고 조선 집권층의 악정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섰던 동학농민군은 6월의 전주화의를 계기로 일시 투쟁을 멈추었다가 9월 중순 거족적

인 반일구국항쟁을 호소하면서 민족주의의 투쟁에 다시 나서게 된다.¹⁰⁾

삼례에 투쟁본부를 설치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애국적 호소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모여들어 1894년 9월 중순 동학군이 다시 투쟁에 결기한 때로부터 그해 말까지는 반제반외세의 동학혁명의 제2단계에 해당한다.

일본침략자들은 정치적 필요의 '내정개혁'이란 기만적 구호마저 집어던지고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왕궁을 습격하는 국권유린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주권유린행위는 실로 엄중하였고 이는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여기에 전봉준은 삼례로 올라와 또 다시 무장을 잡고 왜적을 반대하는 척왜척화(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것)의 구국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진격할 목표 밑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전투준비를 끝낸 농민군 주력부대는 전봉준의 지휘 밑에 드디어 이 해 10월 중순 논산을 출발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일제는 1885년 '친진조약'을 체결하고 청나라의 조선침투를 제약해 놓은 후 장차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물리치고 조선을 독점식민지로 강점할 목적 밑에 '군비확장 10년계획'을 짜놓고 최신식 무기로 무력증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역량으로 집결되지 못한 조건에서 적들과 단독으로 대결하게 됨으로써 결정적으로 불리한 형세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공주에서 벌어질 대결전에 불길한 예감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그 한계가 충청도로부터 경기로 들어가는 접경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농민군의 복상을 보장하는데서나 일제와 관군의 증원을 저지시키는 데서 전술상 매우 중요한 지점인 옥천 세성산 전투에서 실패로 돌아간데서 드러나게 된다. 특히 주공방향인 우금치 방면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당시 농민군의 수는 10여만명에 이르고 희생자만 해도 30만~40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지역적으로 함경도와 평안도 제외한 거의 전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치열함에 있어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끝내 동학혁명의 총지휘자였던 전봉준은 전라도 순창 피로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다가 12월 2일 변절자의 밀고로 지방군의 기습을 받아 불행하게 체포되었다. 1895년 3월 29일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 등 농민군 지휘자들

10)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 p.143. 한편 일제는 조선정부에 1882년 '제물포조약'과 1884년 '한성조약'의 체결을 강요하며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는데 급급하던 차에 1894년 6월 9일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일본 공사관, 영사관,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삼았으나 전주화의로 저들의 출병구실이 성립될 수 없게 되자 엉뚱하게 내정개혁을 강요하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주권의 상징으로 신성시해오던 왕궁을 점령하였다. 이어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8월 중순 평양전투 승리 이후에는 방대한 무력을 동학군탄압에 돌렸다.

과 함께 반동정부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 서울 감옥에서 최후를 맞았다.

그러나 동학은 반침략적인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구호로 내걸며 민족주의라는 국가사회제도의 주요한 근대적 정치적 이념을 제기하였다.

3) 민권(민주)주의

동학혁명론은 종래의 철학들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낡은 관념을 대범하게 타파하고 ‘하느님’이나 ‘하늘신’은 사람이나 자연 밖에 없으며 사람에게 명령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곧 하늘이며 신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이나 신의 지위를 하늘로부터 땅위로 끌어내리고 사람의 지위를 하늘신이나 신의 지위에 끌어올려 사람에 대한 신의 지배와 예속을 부정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민권시대로 나아가는 철학적 세계관 형성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된다.

수운은 사회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사회를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로 구분하였다. 선천시대도 유사 이래 오늘날까지의 시대이며 후천시대는 말세가 극도에 달하여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 민주적 태평성세로 되는 시대다. 선천시대는 다시 상고시대와 중고시대, 근세로 나누어진다. 상고시대는 백성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던 시대이고, 중고시대에는 성인이 나타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된 시대이며, 이 말세는 반드시 하느님이 가르치는 새로운 시대로 후천의 주민재민의 민권시대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불평등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였으며 양반과 상민의 차별과 적서차별은 나라의 큰 폐풍으로서,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있는 것은 나라가 망할 근본이고, 적서차별이 있는 것은 집안이 망할 근본이라고 하였다. 동학의 ‘지상천국’은 선약과 불사약에 의한 불로장생과 천도가 구현되어 자유평등한 질서정연한 사회이며, 온 세계가 모두 개혁되어 외부적인 침략이나 구속이 없는 농민이 주인 되는 사회였다.

동학의 ‘지상천국’에 관한 사상은 공상적으로나마 이상사회를 그려보았다는데 긍정적 의의가 있으며 당시 봉건통치제도의 압제 밑에서 자주성을 극도로 유린당한 농민들에게 민권시대의 새 사회를 동경하면서 투쟁에 일어설 수 있게 한 데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여기서 동학의 민권주의와 관련한 국가사회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보은집회는 약간의 병기도 휴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오늘날의 민회(국회)의 성격

을 지낸다. 일찍이 여러 나라들에서 역시 민회가 있어 조정의 법이 민국에 유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모여서 의논하고 토의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이와 같은 일인데 어찌 비적의 무리라고 낙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그들은 보은집회가 조선의 집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을 기도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릇된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민회’임을 주장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부르조아적 민원을 지향한 근대적 요구를 들고 나온 것으로서 집회군중의 반봉건적 민권주의의 투쟁의식이 얼마나 높은 단계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폐정개혁의 실시를 위한 집강소들의 경우 우선 봉건사회에서 세기를 두고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신분적으로 예속시키던 노비문서들을 불태워버렸으며 묵은 채무관계를 일체 없애버리는 일을 하였다.

집강소가 설치되고 활동함으로써 ‘화의’기간 동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봉건적인 신분관계에 얽매어 구속받고 천대받던 노비, 작인, 백정 등 최하층 농민들이 지배자들의 압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이 일시적이거나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집강소의 조직과 폐정개혁의 활용으로 어떤 압제자도 꿈쩍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이후 시기 농민들의 여러 가지 투쟁 단체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각양한 민족운동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동학 농민군들은 집강소와 같은 새롭게 조직한 지방자치기구를 통해 그들 자신이 주권재민의 정신으로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 것이다.

4) 민생주의 : 폐정개혁안의 분석

전주화의 이후 전라도의 모든 곳에 농민군이 관할하는 지방자치기관인 집강소들이 설치되었다. 농민군의 총지휘자인 전봉준은 금구, 원평을 중심으로 전라우도의 집강소들을, 김개남은 남원에 있으면서 전라좌도의 집강소들을 지도하였다.

농민군은 전주에서 철수한 후 비록 군사행동을 중지하였으나 봉건정부와 협의한 폐정개혁안의 실시를 통제하고 감독할 사명을 지닌 농민군의 자치기관으로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갔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서 농민군은 봉건통치기구인 지방들의 관청과는 별도로 집강

소를 설치하고 전주화의 때 제기한 폐정개혁안을 실시하는데 착수하였다. 봉건통치자들은 전라도 일대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에서 집강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농민군의 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집강소들은 지방의 민생을 위한 자치기관으로서 전라도 일대의 모든 행정기관들을 통제하였으며, 동학군은 악질적인 관료들과 지주, 부호들의 반향으로부터 집강소를 보위하고 그 문란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았다.

이리하여 전라도의 각 고을에는 농민들의 자치기관인 집강소가 짧은 기간내에 설치되게 되었다. 전라도의 총 53개 고을 가운데서 먼저 50개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농민군이 당시 내세운 민생주의의 집강소의 활동 강령은 12개조 폐정개혁안에 집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래 동학도들과 정부 사이에 맺혀 있던 반감을 씻어버리고 정치를 협력할 것.
2. 탐관오리의 죄상을 낱알이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
3. 횡포한 부호들을 엄하게 징벌할 것.
4. 불량한 유생들과 양반들을 징벌할 것.
5. 노비문서를 태워버릴 것.
6. 온갖 천민들의 대우를 개선하며 백성들의 머리에 씌우는 평향갓을 벗겨줄 것.
7. 청춘과부의 재혼을 허락할 것.
8. 규정외의 여러 가지 잡세들을 다 폐지할 것.
9. 관리의 채용은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본위로 할 것.
10. 일본인과 내통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
11. 국가에 대한 빛이나 개인에 대한 빛이나 이전에 진 빛은 다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부칠 것.

이 폐정개혁안에는 사회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반영되었다.

1조와 10조에는 외적의 침략으로 민족적 위기가 조성된 조건에서 농민들과 정부가 단합하여야 하며 이 단합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외적을 물리치며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농민들의 절절한 애국심이 반영되었다.

5와 6조에는 당시 노비, 백정 등 최하층 농민들의 불행과 원한의 화근이며 봉건적 사회관계의 질곡으로 되어 있던 노비제도과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 대한 그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져 있다.

2조, 3조, 4조에는 농민들에 대한 악랄한 수탈자, 억압자들인 탐관오리, 악질부호, 유생, 양반들을 처벌하는데 대한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었다.

8조와 11조에는 각종 잡세와 체무를 없앴으로써 2중3중의 가혹한 수탈에서 벗어나려는 농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졌다.

7조와 9조에는 이조 전 기간 존재하던 봉건적 악습과 관리등용에서의 지방과 문벌의 차별을 없애는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12조에는 양반관료들과 지주에 대한 토지의 집중과 농민의 파산이 격심해진 조건에서 대토지소유를 제한하고 땅을 고르게 경작하려는 농민들의 숙망이 반영되었다.

이상의 내용이 모두 민생의 삶에 관련되어 있으나, 특히 8조, 11조, 12조는 경제문제를 다루어 민생주의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겠다.

돌이켜 볼 때 농민군이 내세운 집강소의 활동 강령으로서의 폐정개혁안은 반침략 반봉건적 내용으로 일관되었으나 아직 이는 진보적 사회정치제도를 세우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강령은 그 후 혁신관료들이 전개한 1894년 개화파의 사상적 영향으로 갑오 부르조아개혁을 촉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회발전과 시대적 요구의 반영인 진보적 개화사상의 영향력을 나날이 높여 나갔다.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의 적극적인 활동은 전라도 일대 농민들의 민생주의적 자주적 요구를 일시적이거나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세기적인 질곡으로 되어온 봉건적 소유관계를 철폐하고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데 대한 문제까지는 제기하지 못하였지만 민생주의의 봉건제도 개혁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는 토지문제 해결에서 균등경작을 제기하였다.

다만 농민 자체의 계급적인 불철저성과 시대적 제한성 그리고 다시 전개된 농민전쟁의 실패로 하여 집강소는 자기의 목적을 끝까지 관철할 수 없었으나 집강소의 활동과 농민군이 촉구한 민생주의적 개혁 강령은 우리나라에서 반침략 반봉건투쟁에서 종래보다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봉준 장군이 지도한 민중민주주의의 사상과 활약상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자유민족주의의 운동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었다.

개화파마저 농민들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농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반침략주의에 동원하려고 하지 않은 신흥부르조아 계급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해몽은 농민을 비롯한 평민출신의 진보적 사회층을 대변하면서 후천개벽의 국가사회제도의 개혁을 혁명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역사는 나라가 요구하는 인물,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나약한 귀족출신 인테리들이 아니라 고상한 사회적 이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싸우는 평민출신

의 진보적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¹⁾

5. 결론 : 역사적 경험과 교훈

동학혁명의 규모와 기세는 전례없이 크고 격렬하였으나 부패한 봉건제도를 근대적인 국가사회제도로 교체·개혁하기 위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중세 농민전쟁과 같은 결함을 다시금 반복하였다. 동학혁명은 그토록 큰 규모로 1년간이나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나 주객관적 요인에 의해 많은 피를 흘리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첫째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휘와 긴밀한 협동동작의 부족, 각 소 농민군 상호 간 공동보조의 결여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전술상의 실책을 들 수 있다.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 곧 농성투쟁에 머물지 말고 고조된 투쟁 기세를 이용하여 서울진공을 단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공주 결전에서 화력이 우세한 적의 방어정면에 대한 무모한 돌격전을 거듭한 것 등은 농민군을 피동에 빠뜨리고 많은 희생을 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전술상의 실책이었다.

셋째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고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개별적 계급과 계층이 자기의 협소한 이해관계와 편견에 사로잡혀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에 올려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국가구성원 모두 민족의 자주성으로 생명을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학혁명의 경험은 다시 한 번 민족의 모든 애국역량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만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학농민혁명을 지도할 최고지도자 해몽 전봉준 장군이 있어서 그 열렬한 애국정신과 강毅한 투쟁기개, 민족대단결과 희생성을 크게 시위하였다. 그의 충의지사(忠義志士)의 온후한 성격과 동학사상에 의한 동학혁명의 민중주의적 활동으로 하여 우리에게 민족운동의 발전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1) 푸르게네브, 『전야』, 북경: 민족출판사, 1994, p.5.

여기서 우리는 세계사를 조망한 20C의 지성,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1917~2012.10.1)¹²⁾의 유언을 통해 전봉준의 동학혁명을 비교평가해보기로 하자.

홉스봄은 후손들에게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영국시인 위스톤 휴 오든의 시를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추천하였다고 한다.¹³⁾

그래서 여기서는 『죄와 벌』의 사상예술을 해몽의 지도력과 비교·조명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표드르 미하일 도스토옙스키(1821~1881)의 소설 『죄와 벌』은 기독교의 무저항주의 반항사상에 신비주의적 요소를 기초로 하여 일정하게 폭동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혁명적 민주주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짜르봉건황제의 ‘무력의 힘’ 앞에서는 옳은 방도와 사상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관념론과 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도덕적 자기완성을 제창한다.¹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죄와 벌』은 사상예술적 제한성은 있지만, 당시 착취사회의 제반 모순 특히 도시빈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숨막히는 긴박감으로 보여주며 뛰어난 예술적 기교로 하여 세계문학사에 빛을 뿌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전봉준 장군이 바로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여 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동학혁명의 사상과 활동을 통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스토옙스키가 세계문학사에 족적을 남긴 것처럼, 해몽 전봉준의 위대한 지도력은 세계 자유민족주의 정치사상의 민족운동사의 보물고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은 이러한 동학의 민족의 자주정신을 계승한 천도교가 주도한 제2의 동학혁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를 귀감으로 하여 중국이 태평천국혁명을 통해 위민이천(爲民以天)으로 오늘의 신중국을 건설하였듯이, 제3의 동학혁명으로 이 시대의 민족사적 과제이며 자유민족주의의 현대적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천(人乃天)의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해 나가야 하겠다.

12) 박지향 “내가 만난 에릭 홉스봄”, 동아일보, 2012. 10. 3. [A35]. “에릭 홉스봄은 평범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밀로 부터의 역사’를 개척한 선구자다. 1950년대까지 역사연구의 주제는 엘리트였는데, 선생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역사학자의 방향을 바꿨다. 영국 노동계급, 이탈리아 농민반란, 라틴아메리카 의적이 선생덕분에 살아났다. 선생은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지구적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을 가까이 접한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선생의 지식과 호기심에 감탄하곤 한다. …… 우리는 항상 실천할 자신은 없지만 그 가르침을 기억하겠노라 다짐해본다.”

13) 동아일보, 2012. 10. 3. [투데이].

14)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북경: 민족출판사, 1988, p.5.

东学农民革命最高指导者全琫準的思想和活动

卢泰久

京畿大学 名誉教授

翻译：朱玫(成均馆大学 东亚细亚学术院)

-
1. 绪言：为了和平统一
 2. 全琫準的政治指导力：儒教的 '士' 意识
 3. 思想源泉：东学思想
 4. 自由民族主义的活动：民众主义的分析
 5. 结论：历史的经验和教训
-

1. 绪言：为了和平统一

民族史在当今时代所要直面的课题就是民族的和平统一。我对这一问题一直有所关注，经常思考如下的问题，就是为什么中国能通过中国式的民族主义(社会主义)建立起了现代的统一国家，而韩半岛却仍然处于理念上的分裂，无法实现政治思想的统一呢？

带着这一疑问，我企图在民族传统思想里寻找实现和平统一的理念，于是发现了主导东学革命的东学思想。我认为人乃天的自由民族主义理念可以成为统合南北两种体制的一个契机。

统一的政治思想固然有了,但对统一运动来说,现实中成功的事例更有说服力。所以,我还一度研究了印度尼赫鲁的印度民族主义。这一思想可以说既带有社会民主主义的性质,也作为大陆印度的民众(民主)主义,同时统合了左右两种理念。

今天在这里召开的学术会议企图世界史的视野下,对韩国东学革命和中国太平天国革命进行比较。希望通过和太平天国的政治思想进行比较,再次审视现代意义下的东学革命。

本文从现代的意义出发,秉著自由民族主义的政治理念,用民众主义的分析方法重新考察东学农民革命最高指导者(海梦)全琫準所追求的民族和平统一的政治思想。

自由民族主义(liberal nationalism)是自由主义和民族主义的合成语。自由主义既可以定义为保障生命·自由·财产,也可以说是市场主义、法治主义、议会主义的制度化。民族主义是要以反封建、反帝国、反独裁、反外势统合民族,是针对统一民族和国土时普遍使用的概念。

而另一表现,民众主义和民众民主主义则作为区别于资本主义民主主义和共产主义民主主义的第三种理念,是代表资产阶级和劳动阶级的概念。

考虑到南北统一问题,本文一方面使用民众(民主)主义或者社会民主主义的概念,另一方面在诸多民族主义里选择了理念型的自由民族主义,企图将上述概念作为分析的框架。¹⁾

我借鉴了对中国统一做出重大贡献的(中山)孙文先生的三民主义以及上海临政(素昂)赵镛殷提出的作为韩独党独立理念的三均主义的政治理念,提出在和平统一的自由民族主义的政治思想基础上,采用三民主义(民族主义,民权主义,民生主义)政治理念的形式。

2. 全琫準的政治指导力: 儒教的 '士' 意识

东学农民革命作为 19 世纪后半期韩半岛农民的反侵略反封建斗争,无论在规模还是激烈程度上,都是敲响亚洲反帝民族解放斗争钟声的一大历史事件。全琫準就是东学农民革命的组织指导者。因此,对于他如何成为农民军指导者以及他在战争中作用的考察,对全面理解东学农民革命具有重要的意义。

1) Andrew Heywood,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7), p.109.

1890年代初，农民的反侵略反封建斗争以参礼和报恩集会斗争为契机，获得迅速成长。从1893年3月10日开始的报恩集会聚集了包括全罗道和忠清道为首的全国各地的东学道人以及商人、下级官吏等，总人数达到数万之多。

全琫準能成为农民军指导者离不开他非凡的气质。1854年，全琫準出生于全罗道高敞县德井面堂村，父亲全彰赫是书堂的训长。全琫準从小就在父亲经营的书堂里学习，13岁时就会作汉诗，他作的「白驱诗」赢得了同村人的称道。

成年后全琫準继承父业，当了村里的书堂训长，教孩子们千字文和『童蒙先习』。全琫準学习刻苦，不仅知识渊博，几乎读遍了诗书百家，还且知书达理，很有威望。他从小孝敬至极，虽然平时和村里人不是太亲近，但每逢村里的庆事和丧事，都一一拜访祝贺和表示悼意。因此，大家知道他非普通人，对他特别尊敬。

1888年，全琫準遇到当时的东学接主孙华仲，由此入道东学。他入学东学旨在憧憬新思想，改革腐败的封建制度。之后，与他经常见面并保持亲交的人物有湖南的孙华仲、金德明、崔景善、金开南，湖西的徐章玉、黄河一等东学接主。

除此以外，他还通过医术和卜术、风水等聚集同村百姓，抽空阅读历代和军事有关的书籍。

这一时期全罗道高阜已经发生了几起农民的抗诉斗争，抗议郡守赵秉甲苛刻的肆意收夺行为。但是，赵秉甲不但没有接受农民的要求，反而将参加抗诉斗争的农民代表斥为乱民，并将斗争中打头的全琫準的父亲全彰赫抓走后虐杀。这一事件对全琫準冲击特别大。1893年11月，他和颇有亲交的东学接主孙华仲、崔景善等为首的20多名同仁一同起草了沙鉢通文，在农民中传发，从而引发了农民起义。

1894年2月15日在白山设立了农民军指挥部‘湖南倡义大将所’，并被选为‘倡义大将’。当天，他高举‘辅国安民’的口号，宣布东学农民革命的开始。同时，发布了檄文和行动纲领。这是他第一次展示自己的政治指导力。

他在文中表明了通过斥洋斥倭重建国家政治的立场，明确了斗争目标、各阶段任务和活动规范等。但是檄文和行动纲领，既没有脱离儒教的‘士’意识里的忠君思想，也没有提出从根本上否定封建制度的斗争目标。这反映了以农民为首的各界各层农民的切实要求和愿望以及爱国爱族的精神。

全琫準充分发挥指导力，利用东学组织组织农民军，扩大强化了队伍。历史上把这一事件称作‘东学乱’和‘东学军’。农民军组织主要由东学接主和中下层先觉者组成。和东学农民革命同时成立的湖南倡义大将所的指挥成员们原先都是东学接主和中下层先觉者。其中东学教徒孙华仲、金开南总管领、金德明总参谋都是和全琫準总大将从一开始就颇有深交的人物。

为了不断扩大强化农民军队伍，全琫準十分重视东学的包组织。这是由东学的包接们统一指挥和教化东学道人的东学教团组织，东学正是通过此种组织向一般群众宣传东学思想和统一组织动员东学道人。东学农民革命始终一贯地利用了东学的下层组织‘包’。全琫準在战争的每一个阶段都树立了相应的战略战术，指挥农民军的战斗。

虽然全琫準在东学革命里作为农民军指导者，发挥了不小的作用，但仍然没能摆脱儒教‘士’对封建君主的忠君意识。他没有认识到国王为首的封建制度本身才是根本祸根。在全州和议以后，虽然农民军在全罗道整个地区设置了农民军的自治机关执纲所，一边实施‘弊政改革’，一边处置贪官恶吏，但没有从根本上颠覆处于封建制度最顶端的国王的存在。

全琫準指导的局限性在于没能统一团结各地的农民军斗争。东学农民革命是全国规模的全民族上下的反侵略反封建斗争。依据一些研究者的资料，农民革命遍及了以全罗道为中心的全国8个道的85个地区，参加斗争的农民军数量经推测达到300多万人。但是，这么多的农民军最终没能团结起来强化军队力量。全琫準指挥的范围依然停留在全罗道农民军。农民革命虽然在全国范围内大规模爆发，但由于缺乏统一组织和部署，农民军只好各自孤军奋战。

全琫準的局限性还体现在于战略战术上的不成熟。在全州农民军和政府军结成了和议，一时中止了对首尔的攻击。结果，没有趁著占领全州的气势马上进攻首尔。在全州和议以后，由于日帝的王宫袭击和清日战争的挑拨给进攻首尔造成了很有利的机会，金开南主张应立即进攻首尔。²⁾但是全州和议以后，农民军只顾执纲所的设置和‘弊政改革’，首尔的进攻一连拖延了好几个月，错失了良机。

当9月中旬重新高举斗争旗帜的时候，日帝已经在清日战争中取胜，已有能力和朝鲜的统治者联手镇压反革命势力。这是全琫準在战争过程中犯下的最大的战略性错误，即战术上的攻击线和防御战没能娴熟地得以配合。

东学农民革命虽然没有取得胜利，但战争期间全琫準在‘辅国安民’、‘斥洋斥倭’的旗帜下，招募农民军并和农民军一起浴血奋战的事实绝不是毫无意义的。1894年7月中旬，伴随著反日救国抗战的兴起，高敞、泰仁、南原、金沟等27各地区的10多万农民军参与了斗争。当时爱国之情热血沸腾的儒生们劝说政府不要被日帝奸计所惑，提议为了全民族的利益誓死团结，一同消灭外敌。

根据『东学史』的记载，以‘倡义将’自居的儒学头领李裕尚找到全琫準，将曾为讨伐农民军而在公州编成的数千名军队编入了农民军。之后，砺山府使兼后营营将的农民军讨伐队长金允植等官军指挥官们也来投靠农民军。³⁾甚至还有清的败残兵500名在曾担任李鸿章下属的聂士成的带领下，找到在论山全琫準的大本营，希望参军。

2) 金起田，『重新编写的东学农民革命史』(图书出版 光明，2006)。

3) 吴知泳，『东学史』(平凡社，1970)，212-216页。

在全琫準指导下组织起来的东学农民革命对朝鲜王朝的统治者们来说是莫大的打击，大大地展示了韩民族的爱国和勇敢精神以及民族的团结力。农民们反对榨取和压抑，希望保卫国家的自主权，体现了团结一切爱国力量斗争的坚强意志。

东学农民革命的历史不仅使近代反帝反封建的斗争史更加熠熠生辉，甲午风云的宠儿全琫準的功绩也在韩国民族史上留下了不朽的光芒。

3. 思想的源泉：东学思想⁴⁾

1) 水云的东学创始

东学农民革命是在东学农民的主导下展开的大规模的农民战争，也是朝鲜近代历史上的大转折点。指导革命的全琫準在革命开始的10年以前，即30岁时只不过是一名入教东学教的虔诚的教徒，而孙华中，金开南等农民军指挥家们也只是东学的接主。农民战争是在东学的社会政治理念‘广济苍生’、‘辅国安民’、‘斥洋斥倭’等口号下展开的。农民战争被称为‘东学农民战争’，而农民军被称作‘东学军’绝非偶然。本文对农民军和东学军，甲午农民战争和东学(农民)革命的使用不做严格区分。

为了探究东学革命的发生发展的合法性，并正确地对其进行历史评价，有必要准确地把握东学及其创始者(水云)崔济愚的活动和他的思想。

东学思想是体现朝鲜封建社会崩坏期时以农民大众为首的被压迫被榨取大众之要求和理想的民族宗教哲学思想。青年时期的水云热爱正义和真理，思想进步，但他生活的年代处于封建社会末期，十分昏暗且复杂多难。此时的水云正处于对外界事物异常敏感的青年期，国家内外政局直接激起了他的危机意识。他认为当时旧的道德秩序已经崩溃，既有的伦理观念丧失，因此下决心拯救和打造新的世界。⁵⁾

按照上帝的旨意被派往人间的故事，即<乙卯天瑞>固然是虚构的，不过也反映了他已经在思考即将要创立的东学的灵符和仪式节次等问题。东学教理是由1860年4月5日到9月20日间，通过上帝和水云间的问答形式集约而成的，这一教理先由口传的方式流传，之后由第二代教主(海月)崔时亨出版发行。

4) 东学革命的思想源泉反映在废政改革案和檄文、通文、倡议文、供招等文书中，特别是可以在战争过程中实施的农民军政策和措施中得到一一确认。

5) 『天道教创建史』(天道教 中央宗理院，1983)，3页。

水云在整理东学教理的同时, 为了赋予其宗教的神秘性, 创造了'灵符'。资料对灵符模样的描写如下:"白纸上跃动的形状果然和太极、和弓乙的模样一样", 6)并声称这是"天地之心, 人之灵魂, 治愈人疾病的不死之药"。

水云还构想出来了'呪文'。'为天主顾我情永世不忘万事宜'13字组成的东学呪文集中反映了水云的宗教哲学思想。不管教徒们是否掌握了呪文, 不断的机械地、反复地背诵, 就能自己掌握其教义和教理真理。

水云还制定了东学的修道顺序和形式。呪文、清水、侍日、诚米、祈祷是教徒必须遵守的五官功德。东学天道教的五官功德和其他宗教相比, 修德的顺序和形式极其简单普通, 仪式程序简单, 所需费用负担小, 因此能在贫穷和淳朴的农民大众中迅速普及开来。修道方法则采取舀一杯水, 背诵呪文的形式。

伴随著东学教势的迅速扩大, 水云在 1862 年末为了以教团的形式将广大东学教徒组织起来, 设立了接主制。

水云提议的东学, 其内容虽然是泛神论的, 但在一定程度上反映了人民希望从残酷的封建榨取和压迫中获得解放, 企图从外来侵略者造成的民族危机中解救祖国和民族命运的自主性要求, 可以说体现了民众主义的民族宗教的教理。

2) 东学的教理 : 至气一元论

东学的'至气论'提出了世界的起源和所有事物运动变化发展的根源问题。至气是天地之根, 是万物之母和生命起源, 万物从这里开始, 最后又回到这里。混沌状态的宇宙起初只有一个。

'至气论'承认宇宙由物质组成, 运动变化发展的根源基于物质, 这明显带有泛神论的性质。'气'是世界的始源和事物运动变化的起源, 除了'气'以外没有设立人格神, 而是将神的属性赋予'气'本身, 以此来说明世界的形成、运动和变化。

在物质与意识, 存在与思维间的关系上, '至气论'的本质内容之中'混元一气'思想没有将'神灵'、'至气'、'物质'单独分离, 划分出绝对的界限, 而是将其看做是统一的事物现象。这与将意识思维看作是第一元, 物质存在看作是第二元的朝鲜或者欧洲国家一致提倡的观念论哲学思想是截然不同的。

主张'至气'是世界始源和万物根源的东学'至气'说, 主张所有物体里都有灵魂, 因此可以说是灵魂说的一种, 也应看作是泛神论的一种。'至气'的这一属性不像儒家或天主教, 强调在物质实体之外还有主管物质运动的外部作用, 而是强调在物质实体之内代表'至气'的

6) 『天道教史』(天道教 中央總部), 47页。

奇妙作用。这主要和当时东学创始者的知识水平还未达到近代自然科学的发展水平，而将东学神秘化，强调崇拜之心有关。总的来说东学思想更基于有神论而不是唯物论。

从哲学和政治社会的观点看，东学内含着一系列本质性的局限性。因为东学主张观念论的社会历史观，将之前与物质的‘气’相关的唯物论思想神秘化，并赋予其神的属性，将社会的无序和封闭归因于道德的堕落。东学主张拯救社会之路在于信仰东学，用道德修身养性，甚至还发明了‘灵符’。

东学虽然具有本质上的缺陷，但因具有反封建反侵略的性质，得到了当时农民的广大响应，使他们获得了发起社会变革斗争的社会政治和精神武器。

1871年在李弼济的指挥下展开的宁海农民起义和1894年东学的骨干人物全琫準、孙华仲、金开南等指挥下展开的东学革命就是很好的事例。

这里简单地概括一下东学至气论的几点局限性和相关的特征。

东学的局限性在于从一方面反映了主观上不想成为‘异端’，为封建统治者提供镇压的借口，一方面虽然认识了身份制度的弊端，却没有言及处于顶端的封建君主，即想要在保存封建君主制的条件下打破身份差别。东学的这一局限性反映了当时社会政治观点的不成熟。

至气论的相关特征是：第一，‘内有神灵’里已经讲道，将人提到上帝的位置，相反却把上帝降到人的高度。东学认为人都是‘至气’的产物，没有比平等自由的人更高贵的人，没有比人更低等的人。东学的‘至气论’挑战了当时因门阀和地阀制度而将人和带有阶层性的身份制度束缚在一起，肆意践踏人的自主性和创造性的封建性秩序，反映了农民本性的志向和要求。

第二，水云在至气论里说道“吾亦生于东受于东，道虽天道学则东学”。这反映了农民以保卫民族自主权为志向的爱国爱族立场，鲜明地展现了作为民族宗教的爱国爱族立场。

第三，体现了想要保存民族传统和民风良俗的民族精神。源于‘至气一元论’的东学戒律，体现了汉民族保存热爱正义和真理，憎恶邪恶和虚伪，相比权利和物质更重视道德和良心的传统特性。

东学教理从上述民族立场出发，秉著反封建反侵略思想，在此基础上整理出了‘辅国安民’，‘斥洋斥倭’的基本构造。

3) 人乃天思想

东学在对当时人的见解里，继承发展了进步和合理的侧面，并将其融入到自己独特的体系中，进而导出了人乃天的结论，为哲学世界观的形成发展提供了转变的契机。

东学的人乃天思想对'上帝'和'天神'完全持有新的见解,除了自然以外,不承认作为超自然'人格神'的'上帝'或'天神'。'神灵'是指'上帝',因此谁的体内都有'上帝',即'人乃天'。它没有将东学看作是'上帝'等超自然的存在,而把其看成是人体内的存在,否认了在天上的'上帝',认为其说是虚无的。东学的上帝不是存在于人或世界之外、具有创造世界和统治者等目的和意义的神性存在,也不是被人疏远的披着宗教外衣的神性存在。

东学当然不认为只有人才有'上帝',它认为宇宙自然的天地万物都有上帝。鬼神都是人自己创造的并自己崇拜的。道教的'玉皇上帝'还有儒教的'上帝',天主教的'上帝'都是由人心创造的。离开了人,君临在人之上的神是不存在的。

海月把鬼神看作是天地、阴阳和同性,它的根本不过是气的作用。它没有把'上帝'、'鬼神'看作是超自然的存在,而是人自己体内固有的存在,并在此基础上提出了'事事天', '物物天', '以天食天'的见解。⁷⁾

从来的哲学认为'上帝'存在于人以外的天上,是宇宙万物的创造者和统治者,并把其导入人心,把由上帝创造的并接受统治的人看作是宇宙万物中最优秀的存在,这必然导出把上帝和人放在同等位置考察的人乃天思想。人乃天思想是建立在对人和上帝的相互关系提出新的见解的基础之上的。

东学的人乃天思想还建立在至气一元论的基础上。东学对世界从至气一元论的考察方法入手,导出了特有的哲学思想。根据人都是'至气'的产物这一至气一元论,人作为'至气'的产物,人和人之间都是平等的,从而导出了'人乃天'的结论,导出了把人奉为天而平等对待的结论。

东学正是从这一原理出发,提出了当时腐败的封建社会即将结束,新的'理想社会'即将到来的'开辟'思想,鼓励农民的反封建战斗。东学思想能够成为东学革命思想源泉的一个重要原因就在此。

东学将人和上帝间的相互关系问题提到了哲学的根本问题之上,提出了'人乃天'的思想,把以儒教和天主教为首的先行宗教哲学里提升到天上世界并偶像化的上帝重新拉回到人间,把人的地位提升到和上帝同等的地位,实现了哲学界新的神话。

4. 自由民族主义的活动：民众主义的分析

7) 崔時亨,『待人接物』。

1) 国家社会制度及改革案

东学思想作为国家社会制度，提出了辅国安民实现民族主义，广济苍生实现民生主义，建设地上天国实现民权主义的方案。

东学农民革命刚开始是为了改革封建社会的弊政，实现民权和民生的半封建斗争，渐渐在‘斥倭斥洋’的口号下发展为保卫民族自主权的民族主义的反日斗争。

东学农民革命首先提出清算贪官污吏，实现‘辅国安民’口号的要求。农民军的斗争目标不仅要实现经济上的要求，还要将政治方式的改组提到日程上。

东学农民军的反封建性可以从全面提出打破封建身份制度(两班制度和奴婢制度)得知。

『朝鲜独立运动历史』的作者朴殷植也曾评价道：“东学党的起义和抗战的动机是对两班压制、官吏贪虐的抵抗，其意味著这是在我国由平民发起的革命。”东学农民革命是在封建制度的压制下以农民为首的被压迫、被搾取大众为了争取自主性而展开的社会革命。

东学农民革命旨在实现封建制度的改革和国家的近代化，是代表主动和进步的民众主义的大众运动。通过导入近代的文物制度，主张人间尊重和平等，这和当时资产阶级的要求是相一致的。当然，这已经超越了中世农民想要维持小农民的土地所有，建设平均主义的‘大同社会’的基本纲领。⁸⁾

在东亚，中国的‘太平天国’农民军在〈天朝田亩制度〉里提出了没收地主土地，将其平均分配给农民的土地政策，这正是体现了资产阶级要求的土地纲领。⁹⁾在全州和议¹⁰⁾以后，

8) 1894年6月13日政府决定废止以后10年间的所有杂税，16日决定追加惩处一切横夺国家财产的官吏；阻止将公私债务转嫁到家族和亲戚头上，宣佈30年以上的债务全部无效；地方各衙前需慎重选拔，按规定任命，如发现贿赂或违法行爲一律定为盗贼罪；税金需按照国家法律征收，废除民库等措施。

9) 萧公权著，崔明·孙文镐译『中国政治思想史』(首尔大学出版部，2004)，"第20章 太平天国"，1063-1096，1067页。根据“天朝田亩制度”，天下的田土分爲‘上上’到‘下下’九等，“凡分田，照人口，不论男妇，算其家人口多寡”。16岁以上比15岁以下的可以多分到一半。“人多则分多，人寡则分寡，杂以九等。如一家六人，分三人好田，分三人丑田，好丑各一半。”这是想要平均分配田地，每年丰凶不一，无法调节。因此又立规定“凡天下田，天下人同耕，此处不足，则迁被处，彼处不足，则迁此处。凡天下田，丰荒相通，此处荒则移彼丰处，以賑此荒处，彼处荒则移此丰处，以賑彼荒处。务使天下共享天父上主皇上帝大福。”为了实现丰凶相通和賑荒，不得不由国家来管理耕田的收穫。为了民生，国库有两种用途。一是鰥夫、寡妇和孤儿，还有没有子女或废疾之人；一是无法耕作和劳动之人，都有国库负责生计。这是对享用的平等追求。如果分配和享用平等，所有人“有田同耕，有饭同食，有衣同穿，有钱同使，无处不均匀，无人不饱暖也。”

10) 和约的前提条件是建立执纲所制度，实施基于东学接主制的废政改革。东学军的强硬军事活动能得到一时缓解的另一因素是封建政府同意要实施废政改革。东学革命爆发以后，在朝鲜统治层内部就已经展开了对改革老朽政治的讨论。但是朝鲜政府讨论的废政改革不是要彻底动摇封建制度的改革。其本质不过是为了怀柔安抚东学军，阻止农民战争，缓解达到顶峰的封建制度危机。朝鲜政府侧于1894年5月5日向农民军侧提出会同建议，答应不问责农民军，再三强调将会改革废政改革中的一部分，若写下要改革的条目，就一定会实施。1894年5月8日，全州会议的废政改革内容主要是向招讨使洪启薰提出今后将要实施的27条改革条目。除了我们知道的13条以外，其他的14条内容不

韩国的东学农民军提出的弊政改革纲领通过两湖巡边使李元会上报给了封建政府，经校正厅讨论，最后达成了 12 条项的弊政改革案。

农民军在封建政府接受了自己的要求条件后才签署了和议。全州和议签署后，进入朝鲜的外来侵略者更没有借口对朝鲜进行武力干涉，民族危机在一定程度上得到了缓和。

弊政改革案通过执纲所的接主制度得以实施。这对试图通过金弘集内阁的甲午改革对迈向近代国家的国家社会制度改革产生了影响。现在标榜近代国民国家建设民众主义的自由民族主义政治理念正是继承了这一思想。

当时的‘军国机务处’有助于甲午改革的革新派势力进一步打击保守势力，使革新派成为改革有力的推动力。1894 年 6 月，军国机务处废止了门阀班常的身分等级制，不再分‘贵贱’选拔人材，废止了犯罪连坐的法律，严禁男女早婚，决定寡妇改嫁将无关贵贱，一切由本人意志决定，一律革罢公私奴婢制度，禁止人口买卖，允许平民也可以向军国机务处提出对国家和百姓有益的意见，通过审议回复并裁决的议案等，所有这些新的政策都可以说是全州城胜利之果在政府政策上的反映。

东学党则设立执纲所，一边监视、统制和代行地方行政机关，一边将自己的斗争纲领渐渐发展为具有政权机能的权力机关，用政治权利执行弊政改革纲领。执纲所设立在全罗道的 53 个州和县，几乎统治了南道的整个地区。执纲所以农民军的武力为基础，执行改革案。

通过烧毁奴婢文书，废除陈荒地的陈荒税等措施，执纲所涉及的地区奴婢和贱民逐渐成为自由的平民。而土地分作等的改革案的执行失败是由于公州战斗的失败导致的时间上的不宽裕等因素造成的。

但是，东学关于后天开辟的思想不是以社会制度的改革为主，而是以精神道德的开辟为根本，采取渐进的方式改变社会的面貌。

2) 民族主义

1894 年 3 月，古阜起义的半封建斗争把矛头指向了‘倭夷扑灭’的反日反侵略势力。这一转变是从 1894 年 9 月在全州郊外的参礼里占领都会之后号召全国农发起反日斗争时开始的。反侵略斗争中之所以能全面提出反日斗争，主要得益于全琫準对形势的熟练判断，以及提出相应斗争战略的智慧和他的爱国爱族精神。

详，不过可以通过参加东学革命的吴知泳文章推测出其中 12 条的内容。

1894年3月,打着'辅国安民'的口号,因反对朝鲜统治者的恶政而参加到斗争中的东学农民军,因为6月全州和议的缘故,斗争曾遭到一时中断。9月中旬以后农民军发起了全民族的反日救国抗争,由此开始了民族主义的斗争。¹¹⁾

全琫準在参礼设立了斗争本部,积极响应东学农民军的爱国呼诉,从各地赶来的东学农民军在1894年9月中旬重新发起斗争,斗争一直持续到年末,这一时期是反帝反外势的东学农民革命的第二阶段。

日本侵略者因政治需要而实行的'内政改革'打著欺骗的口号,动员侵略武力袭击王宫,是无视国权的蹂躏行为。谁都知道日帝的这一主权蹂躏行为是为了完全吞并朝鲜而作的准备。全琫準来到参礼,再一次拿起武装反对倭敌,呼吁开展反对斥倭斥和(反对和日本讲和)的救国斗争,并以最终进攻首尔为目标作了诸多准备。在战斗准备结束后,在全琫準的指挥下农民军的主力部队于当年10月中旬向论山出发,开始进击首尔。

日帝于1885年缔结了'天津条约',企图制约清朝对朝鲜浸透,逐渐清除在朝的清势力,以便强占朝鲜为自己的殖民地。为此,日帝制定了'军备扩张10年计划',用最新式武器增强武力。而农民军因为无法集结全国力量,只好与敌单独对决,因此处于十分不利的形势。这也预示著在后来公州展开的大决战中会有不祥的后果。

这一转折主要体现在沃川细城山战斗中的失败。沃川是从忠清道进入京畿的接境地带,在保障农民军北上和阻止日帝和官军增员方面,都处于战术上十分重要的位置。特别是主攻方向的牛禁峙方面更是如此。

当时农民军的数量达到10万余名,光是牺牲者就达30-40万人。地域则除了咸镜道和平安道,几乎涵盖了全国,激烈史无前例。

运动后期,东学农民革命总指挥者全琫準在全罗道淳昌避老里和同僚一起准备新的斗争,12月2日因变节者的密告,遭到地方军的奇袭而不幸逮捕。1895年3月29日,全琫準和孙华仲、崔景善、成斗焕、金德明等农民军指挥者一道,因反动政府罪被判死刑,他在首尔的监狱度过了最后的时间。

但是,东学提出了反侵略的辅国安民和斥洋斥倭的口号,还提出了将民族主义作为国家社会制度的近代政治的理念。

11) 吴知泳,『东学史』(平凡社,1970),143页。日帝在强求和李朝封建政府签署1882年'济物浦条约'和1884年'汉城条约'的同时,一直在寻找战争的藉口。1894年6月9日农学革命一爆发,日帝就以保护日本公使馆、领事馆和居留民为由想要出兵,但因全州和议这一借口无法成立,于是只好寻求内政改革,动员军队占领象征主权的神圣之地王公。之后,诱导清日战争爆发,8月中旬在平壤战斗胜利后将大量武力投入到东学军的镇压中。

3) 民权(民主)主义

东学农民革命打破了从来哲学里的传统观念,认为'上帝'和'天神'不在人和自然之外,命令人支配自然,而宣称人自己就是天和神。这将上帝和神的地位从天上拉回到人间,而把人的地位提升到天神和神的高度,否定了神对人的支配和隶属,对民众主义民权时代哲学世界观的形成发展提供了新的转换点。

水云认为社会不是固定不变的,而是不断发展的,并将其分为先天时代和后天时代。先天时代是有史以来的历史,后天时代是末世来临后新开辟产生的民主的太平圣世的时代。先天时代又可以分为上古时代、中古时代和近世。上古时代是百姓未知上帝恩惠的时代,中古时代出现了圣人,是百姓接受上帝旨意的时代,末世则是需要上帝教导的,需要转换到后天民权在民的时代。

他认为所有的不平等都是人为造成的,两班常民的差别和嫡庶差别是国家的弊风,班常的区分是国家灭亡的根本,嫡庶差别是家族灭亡的根本。东学的'地上天国'是用仙药和不死药实现的长生不老和天道自由·平等且秩序整然的社会,是全世界经开辟,没有外部侵略和拘束,农民成为主人的社会。

东学关于'地上天国'思想虽然是空想,但在描述理想社会时具有积极的意义。对在当时处于封建统治制度压制下自主性遭到极度蹂躏的农民来说,憧憬民权时代的新社会,展开斗争具有历史的意义。

与东学的民权主义相关的国家社会制度是怎样的呢?

据记载:"报恩集会不携带任何兵器,相当于今天的民会(国会)。很多国家很早就有民会,如果朝廷的法对民对国不利,大家就会聚到一起议论后审议决定。我们的集会也有此含义,怎么能说是匪贼之群呢?"

他们主张报恩集会不像朝鲜的统治者说的那样是谋乱的集会,而是重新整治国家政治,拯救民族命运的'民会',要求政府保障集会的自由。集会参加者的主张展现了资产阶级近代化的要求,集会群众的半封建民权主义的斗争意识已经达到了很高的水平。

具体来看,实施弊政改革的执纲所首先烧毁了封建社会束缚人身份的奴婢文书,并一举取消了相应的债务关系。

得益于执纲所的设置和活动,束缚于代代相传的封建身份关系而受到贱待的奴婢、作人、白丁等最下层农民在'和议'期间得以脱离统治者的压制。这说明农民的愿望暂时得到了实现。执纲所的组织 and 弊政改革活动大大限制了压制者,增强了改革的信心,积极推动了以后农民的各种斗争团体的组织和活动以及各类民族运动发展。

东学农民军通过执纲所等新组织的地方自治机构,以主权在民的精神,为了实现自己对国家社会制度的要求而积极斗争。

4) 民生主义：弊政改革案的分析

全州和议以后全罗道的所有地方都设置了农民军管辖的地方自治机关执纲所。农民军的总指挥全琫準以金沟、院坪为中心指导全罗右道的执纲所，金开男在南原指导全罗左道的执纲所。

农民军虽然在全州撤退以后才中止了军事行动，但设置了自治机关执纲所用于控制、监督和封建政府协议达成的弊政改革案的实施，为弊政改革的实施积极展开活动。

在这一有力条件下，农民军设置了不同于封建统治机构的地方官厅执纲所，开始着手实施全州和议时提出的弊政改革案。封建统治层由于失去了在全罗道一带的控制力，只好接受农民军关于设立执纲所的提议。因此，执纲所作为地方民生的自治机关控制了全罗道一带的所有行政机关，农民军通过反抗恶官僚和地主、富豪，保卫执纲所，纠正紊乱的社会秩序。

全罗道各个村庄在短时间内陆续设置了执纲所。全罗道总 53 个村庄当中有 50 个首先设置了执纲所。

农民军当时提出的民生主义的执纲所活动纲领主要集中于 12 条弊政改革案，内容如下。

1. 消除从来东学教徒和政府间的反感，协助政治。
2. 一一调查贪官污吏的罪状，严惩严罚。
3. 严厉惩罚横暴的富豪。
4. 惩罚不良的儒生和兩班。
5. 烧毁奴婢文书。
6. 改善所有贱民的待遇，去除对百姓的不平等待遇。
7. 允许年轻寡妇的再婚。
8. 废止规定以外的各种杂税。
9. 打破官吏采用的门阀限制，实行人材本位。
10. 严惩和日本人内通者。
11. 之前对国家或个人的债务，一律无效。
12. 土地平均分配耕种。

弊政改革案反映了社会政治问题、经济问题等各领域里迫切需要解决的重要问题。

第一条和第十条反映了由外敌侵略造成的民族危机中,农民和政府团结起来,处置妨害团结的反逆者,驱逐外敌,坚守国家的自主权等农民们迫切的爱国心。

第五条和第六条包含了对消除成为奴婢、白丁等最下层农民们不幸和怨恨之祸根的封建社会关系桎梏的奴婢制度和身份差别的迫切要求。

第二条、第三条、第四条反映了农民们对处罚奸恶的收夺者和镇压者之贪官污吏、恶质富豪、儒生、兩班等的要求。

第八条和第十条里包含了要求取消各种杂税和债务,摆脱双重甚至三重苛酷收夺的农民们的恳切愿望。

第七条和第九条体现了取消李朝时期封建恶习和官吏任用时存在的地方和门阀差别的要求。

第十二条针对兩班官僚和地主的土地集中和农民破散等日益严峻的问题,反映了农民限制大土地所有,平均分配耕种的愿望。

以上内容虽然都和民生有关,特别是第八、十一、十二条涉及经济问题,是民生主义的主要问题。

总体来看,农民军提出的作为执纲所活动纲领的弊政改革案虽然始终包含了反侵略和反封建的内容,但是没有提出关于建立进步的社会政治制度。这一改革纲领受到之后革新官僚展开的 1894 年开化派的思想影响,成了促成甲午资产阶级改革的原动力,不断提高了反映社会发展和时代要求的进步开化思想的影响力。

执纲所的设置和废政改革的积极活动使全罗道一带农民民生主义的自主要求暂时得以实现。虽然没有提出废除世纪桎梏的所有封建关系,但在封建制度改革中作为基本问题的土地问题的解决方面,提出把土地分给农民的均等耕作。

不过因为农民自身阶级性的不彻底性和时代的限制,以及农民战争的再次失败,执纲所最后未能贯彻提出的目标。但执纲所的活动和农民军追求的民生主义改革纲领仍然体现了我国反侵略反封建斗争里比过去更加深化的一面。

全瑋準将军指挥的民众民主主义的思想为实现我国近代化的自由民族主义的运动发展提供了有利的条件。

海梦看到了开化派把农民大众看作统治对象,没有将农民大众无穷无尽的力量动员到反侵略主义的新兴资产阶级的局限性,他企图代表以农民为首的平民出身的进步社会层,革命性地提出了后天开辟国家社会制度的改革。

历史向我们展示的国家 and 时代要求的人物不是懦弱的贵族出身的知识份子,而是怀有高尚社会理想,并为此顽强奋斗的平民出身的进步人物。¹²⁾

12) 屠格涅夫,『前夜』(北京:民族出版社,1994),5页。

5. 结论：历史的经验和教训

东学农民革命的规模和气势及其激烈程度史无前例，但问题是没有从根本上提出用近代国家社会制度代替和改革封建制度，具有反复重演类似中世农民战争的缺陷。东学农民革命以较大规模和激烈程度持续了一年之久，最终却因以下主客观原因而终结。

第一，缺乏全国统一的指挥和紧密的协同，各小农民军相互间缺乏统一步调。

第二，战术上的失策。在占领全州城以后停留于笼城斗争，没有马上趁势进攻首尔，特别是在公州决战中面对火力强势的敌方防御，采取了多次正面而无谋的突击战。农民军因此陷入被动，导致了重大牺牲，是无法挽回的战术上的严重失策。

第三，没能图谋民族大团结。为了在民族大团结的斗争中取得胜利，不应局限于个别的阶级和阶层内的狭小利害关系和偏见，不应把阶级利益提升到民族利益的高度。每个人应把各自的命运和民族的命运连接在一起，所有的国家成员都应该抱着以民族自主性来守卫生命的统一信念，团结在一起。

东学农民革命的经验再次证实了只有团结民族的所有爱国力量，才能阻止外部侵略，保卫民族的独立和自主性。

东学农民革命的最高指挥者海梦全琫準将军向我们展现了强烈的爱国精神和刚毅的斗争气概，民族大团结和牺牲精神。他作为忠义志士性格温厚，通过基于东学思想的东学革命的民众主义活动，在韩国民族运动的发展史上留下了无法泯灭的足跡。

在这里，我们用 20 世纪世界史上的至圣，英国历史学家艾瑞克·霍布斯邦(1917~2012.10.1)¹³⁾的遗言来比较和评价全琫準的东学农民革命。

霍布斯邦希望后人“保持好奇心，好奇心是谁都可以拥有的最大的资产”，向我们推荐杜斯朵耶夫斯基的『罪与罚』和英国诗人奥登的诗歌。¹⁴⁾

13) 朴枝香 “我认识的艾瑞克·霍布斯邦”，东亚日报，2012. 10. 3. [A35] “艾瑞克·霍布斯邦是研究平凡人，开拓微观历史的先驱者。1950年代前的历史研究主要针对精英层的研究，霍布斯邦则企图通过发掘过去不为人知的平凡人的生活，展开了艰难的研究工作，转变了历史学家的研究观念。英国的劳动阶级，意大利的农民叛乱，拉丁美洲义贼的历史都被生动地复原。霍布斯邦具有超越一国史洞察全世界历史的观察力。和霍布斯邦接触过的人都感叹他对所有存在的一切具有的知识和好奇心。我们虽然没有实践的自信，但有能力记住他的教导。”

14) 东亚日报，2012. 10. 3. [今天]。

因此,我在这里将"罪与罚"的思想艺术和海梦的政治指导力作比较和探究。杜斯朵耶夫斯基(1821~1881)的小说『罪与罚』以基督教的无抵抗主义反抗思想里的神秘主义要素为基础,一定程度上保留了暴动气氛,展现了革命民主主义思想。

但是,面对俄国沙皇封建皇帝的"无力的力量",他没有指出正确的方法和思想,只提出了基于观念论和宗教价值观的道德自我完成。¹⁵⁾

尽管『罪与罚』带有一定的思想艺术的局限性,但书中展现了当时榨取社会的各种矛盾,特别是以令人窒息的紧迫感展现了都市贫民的悲惨处境,以出众的艺术技巧在世界文学史上熠熠生辉。

同样,全琫準将军也反映了农民们的悲惨处境,通过东学革命思想和活动代表了农民们所提出的问题。

因此,正如杜斯朵耶夫斯基在世界文学史上留下的足跡,海梦全琫準的伟大指导力也在世界自由民族主义政治思想的民族运动宝库里发出了灿烂的光辉。

1919年3.1独立运动继承了东学的民族自主精神,是由天道教主导的第二东学农民革命。中国则通过太平天国运动提出为民以天,并以此建设了今天的新中国。我们希望以此为鉴,通过第三东学农民革命,向著'人乃天的民族的和平统一'这一时代民族史上的课题和自由民族主义的现代再照明而一路迈进。

15) 杜斯朵耶夫斯基,『罪与罚』(北京:民族出版社,1988),5页。

토론문 : 전봉준과 홍수전

김성찬
인제대 교수

오늘 중국의 태평천국사학계의 원로인 웨이츠칭(崔之清) 중국태평천국사연구회(中國太平天國史研究會) 회장(會長)과, 일찍이 태평천국 자료[간우문(簡又文)]의 『태평천국 기의기(太平天國起義記)』를 번역하고 또한 동학운동에 대하여 실천적 차원에서도 많은 논문을 발표해온 노태구(盧泰久) 교수 두 분의 존안을 뵙고, 두 분의 발표논문에 대해 토론자로 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토론자로 초청해주신 주최 측에 다시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중(韓中) 양국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東學農民革命記念財團)과 남경태평천국역사박물관(南京太平天國歷史博物館)이 상호 협력 증진을 약속하는 잔칫날로서, 두 분 발표자는 주최 측이 의뢰한 주제(홍수전, 전봉준)에 대하여 각자 독특한 색깔의 발표문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웨이츠칭 교수께서는 “홍수전의 사상과 실천을 논술함”(洪秀全: 思想和實踐述論)이란 논문에서, 홍수전 사상의 연원, 그 사상의 기본구조(요소), 그 사상의 변화, 그 활동이 중국사에 미친 영향 및 문제점(한계)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해줌으로써, 문외한이라도 그 역사적 특징과 한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한된 분량이고 개설적인 내용이므로, 아마도 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개진하지는 못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까지 중국의 연구자들은 보통 홍수전의 사상을 태평천국의 이념으로[홍인간(洪仁玕)의 사상은 별도로 하고서], 태평천국의 이념을 홍수전의 사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개인 홍수전과 태평천국의 사상을 일체화해온 감이 있습니다. 이 글도 배상제교리(拜上帝教理)를 평가하면서, 배상제교가 기독교(基督教)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일종(분파 혹은 이단)이 아니라 중국식 종교로서의 성격을 가지도록 만든 것은 바로 홍수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전의 이몽(異夢)

에서는 천부(天父), 천형(天兄), 천모(天母), 천수(天嫂), 천처(天妻), 상제(上帝)의 장자(長子), 차자(次子) 등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홍수전의 천상(天上)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는 1848년 가을과 겨울에 소조귀(蕭朝貴)가 홍수전에게 교시(敎示)해 준 것입니다[천형하범(天兄下凡)]. 이어서 이런 모든 정보를 종합한 ‘태평천일(太平天日)’의 사상이 1848년 겨울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교정전을 불태워야 한다는 정책도 소조귀가 이때 홍수전에게 교시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볼 때, 배상제교리가 중국적 종교의 성격을 지니도록 만든 주동자는 소조귀가 아닐까요? “홍수전” 개인의 사상을 논할 적에는 “태평천국”의 이념을 논할 때와는 달리, 개인의 개성, 역할을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배상제교리는 홍수전, 양수청(楊秀清), 소조귀 3인의 합작품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홍수전의 권력에 대하여 발표자는 “홍(洪)의 절대황권(絕對皇權)”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평천국 역사에서 홍수전의 위치는 다른 역사상의 카리스마적인 풍운아들과 달랐습니다. 배상제교의 포교 단계에서는 풍운산(馮雲山)이 실질적인 지도자였고, “천부하범(天父下凡)”과 “천형하범(天兄下凡)” 때는 양수청과 소조귀가 실제적인 지도자였으며, 태평천국 후기에는 홍수전이 무수한 왕들을 분봉(分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홍의 권력을 “절대황권”이라 명명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지 않을까요?

셋째, 홍수전은 태평천국의 최고지도자였지만, 정치적 영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종교연구, 성경연구(聖經研究)에 침잠(沈潛)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격적 결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양수청과 소조귀의 천부하범과 천형하범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행사의 기회를 봉쇄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나 동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홍수전은 뜻은 크지만 재능이 모자라고 이상은 있으나 실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의 지견(知見)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발표자는 홍수전의 배상제교리에 대하여 “평등(平等)”사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도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태평천국사회는 계급삼엄(等級森嚴)한 사회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태평천국이 정치평등, 남녀평등을 주창해본 적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인도사상제자녀(人人都是上帝子女)’ 등등의 배상제교리에 대하여 단순히 “평등”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근대적(近代的) 평등(平等)”사상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 대신에 “신(神) 앞의 평등”, “중세적(中世的) 평등” 등의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섯째, 발표자는 홍수전 사상의 연변(演變) 추이(推移)에 대하여 논하면서, 평등평균사상은 약화(弱化, 淡화)되고, 황권주의는 강화(強化)되며, 반침략 민족주의는

1862년에 신생(新生)한다고 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급사상(等級思想)도 시종여일(始終如一)했고, 평균이념(平均理念)도 이념으로서는 시종여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를 복간(復刊)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인(西洋人)을 “양형제(洋兄弟)”로 불렀지만, 1862년 이전에도 그들에게 태평천국의 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황권주의도 배상제회(拜上帝會) 때 이미 그 맹아가 존재했고 이후에 제도화되고 또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등급사상, 평균이념, 황권주의가 이념적으로 공존하였음을 받아들인다면, 태평천국의 평균이념은 군주제와 등급제의 토대 위에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주의는 피치자(被治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발표자는 태평천국이 과격정책을 실행하여 지식분자(知識分子), 부유계층(富裕階層), 공상계층(工商階層), 성시거민(成市居民), 보통민중(普通民衆)의 이익을 엄중히 해쳤고, 농민 등의 민의지지(民意支持)를 상실했으며, 민중은 사실상 태평천국과 청조(淸朝)의 실제적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가혹하지만 엄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반(反)마르크시스트 간우문(簡又文)의 태평천국사 연구를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 또 계급론적(階級論的) 분석방식(分析方式)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간우문의 태평천국 연구성과와 그의 연구관점이 중국의 태평천국학술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일곱째, 중국의 CNKI(학술잡지 및 학위논문 원문 제공 인터넷 서비스)는 매우 유용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중국 내의 연구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연구논문을 거의 빠짐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넷 학술자료 프로그램은 중국 태평천국사 연구자들에게, 그리고 석사, 박사 연구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노태구 교수는 천도교인(天道敎人)이어서 그런지, 동학운동과 자신을 일체화시킨 매우 실천적이고 독특한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동학사상과 운동이 남북통일(南北統一)의 사상, 남북통일의 운동론으로서 유용하다는 시각에서 목차 제목도 정한 듯합니다. 토론자로서는 어떤 현실적 목적을 위하여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찬양 혹은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역사적 사실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에 주목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는 “전봉준의 정치지도력: 유교적 사의식(士意識)”이라는 장(章)을 설정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유교적 사의식은 오히려 그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충군사상(忠君思想)].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동학교도인 전봉준에게 정치

적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유교적 사의식에서 기원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다른 기질”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지만, 주로 유년시절의 모범생 모습 등등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라도 있다면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발표자는 전쟁에 참가한 농민군 수가 300만 명 이상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과연 그런지 궁금합니다. 토론자도 동학교도가 300만명이었다는(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언설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1900년의 인구가 1400만명 혹은 1900만명이라는 통계와 대비해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여성과 아동을 빼면 거의 3명 중에 1명이 농민군으로 된다.)

셋째, 전봉준 군(軍)이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으며 서울[漢陽] 공격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발표자는 전략전술상의 미숙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개남의 서울 공격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봉준이 서울 공격을 중단해야 했던 사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전략전술상의 미숙성 여부를 평가하려면 먼저 이런 사정과 함께 서울 공격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 공격론은, 중일(中日) 양국군이 조선정부군의 지원군으로서 진주한 상태에서 ‘민란’세력인 농민군이 저열한 무장과 보급시스템으로 정규전을 시도한다는 주장인데, 이런 류의 군사폭동[예를 들어 추수폭동(秋收暴動)] 행태에 대하여 중공(中共)에서는 “극좌(極左) 맹동주의(盲動主義)”나 “좌익모험주의(左翼冒險主義)”나 하며 비판하곤 하였습니다. 필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전(前) 여산부사(礪山府使) “김윤식”은 김원식(金元植)의 오기(誤記)같습니다. 김원식의 동학군 가담활동이 현직일 때인지 퇴임 후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여산부사(礪山府使) 유계관(柳濟寬)이 동학군을 동정하여 쌀과 짚신을 조달했다는 문서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의 파견군 섭사성(聶士成) 부대가 “논산(論山)의 전봉준 군에 찾아와 참군(參軍)을 희망했다”고 발표자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이화(李離和) 선생은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의 이 기록은 “과장(誇張)”된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선정부 지원군 명목으로 파견된 청군이 “민란”군에 가담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 리 있는지 궁금하며, 보다 상세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섭사성(聶士成), 『동정일기(東征日記)』[광서(光緒) 24년 6월 28일]에는 일군(日軍)에게 패배, 퇴각하는데, 부여(夫餘)가 아니라 공주(公州) 근처로 퇴각했으며, 섭지초(葉志超)의 명령[“공주(公州)는 수비할 수 없으니, 돌아서 평양(平壤)으로 가서 대군(大軍)과 합류하는 것이 낫다”]에 따라 평양으로 복진했고, 이를 전후하여 동학군과 조우(遭遇)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섭사성 부대 운운(云云)의 오지영 기록을 믿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째, 발표자는 동학혁명이 “근대화(近代化)를 지향(指向)하고”, “근대적(近代的) 문물도입(門物導入)을 통해”, “인간 존엄(尊重)과 평등(平等)을 주장”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대적 문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전봉준의 서구근대 문물(西歐近代文物)에 대한 지견(知見)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섯째, 발표자는 동학의 사회정치사상(社會政治思想)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匡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지상천국”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지상천국”이란 용어는 세속적(世俗的) 종교국가(宗教國家)의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에 특히 토론자는 궁금합니다.

일곱째, 발표자는 최제우의 동학과 전봉준의 활동시기를 언급하며[3장 민권(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권시대(民權時代)”, “인민(人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추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제우의 후천(後天)세계론이나 동학운동에서의 신분차별 철폐 정책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권재민”을 입증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합니다. 중국의 유구한 대동사상사(大同思想史)에도 유사한 이상향론(理想鄉論)이 반복되는데, 이에 대하여 주권재민론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표자가 소개하기를, 보은집회 때, 정부축 선무사(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의 해산 명령에 대해, 회중(會衆)이 “이 모임은 곧 민회(民會)이다. 일찍이 여러 나라들에 역시 민회가 있어 조정(朝廷)의 법이 민국(民國)에 유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모여서 의논하고 토의 결정한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이와 같은 일인데, 어찌(우리를) 비적(匪賊)의 무리라고 낙인(烙印)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는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자료인데, 당시 조정과 재야에서 의론(議論)되던 외국(및 일본)의 민회[民會, 의원(議院)]에 대한 정보가 이미 삼남(三南)의 동학교도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여덟째, 발표자께서는 90년대 중반에 출판된 몇 개의 논문을 전범으로 삼아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학과 중국의 태평천국사 모두에 관심이 깊으신 원로로서, 동학운동 등 민중운동사 연구가 침체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讨论稿：全瑋準和洪秀全

金诚赞
仁济大学 教授

翻译：金智娥(梨花女子大学 通译翻译大学院)

今天能够通过本次论坛，与中国太平天国史研究会崔之清会长以及卢泰久教授见面，并且就两位的精彩演讲进行讨论，我感到无比之荣幸。众所周知，崔之清会长是中国太平天国史学界的元老。还有卢泰久教授，早在之前曾翻译简又文《太平天国起义记》，并围绕东学运动发表了数篇具有实践意义的论文。我想再次感谢筹办本次论坛的主办方，让我有这个荣幸来做本次论坛的讨论者。今天，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与南京太平天国历史博物馆的韩中双方欢聚一堂，是庆祝彼此之间将互谋合作与深化友谊的日子。两位演讲嘉宾也围绕主办方安排的主题(洪秀全、全瑋準)，发表了独有见解的精彩演讲。

崔之清教授在〈洪秀全：思想与实践论述〉一文中，简明清晰地说明了洪秀全的思想渊源、基本结构因素、演变，以及其活动在中国史上带来的影响或问题(局限性)，让任何局外人都可以非常容易明白其历史上的特征与瓶颈所在。我想如果不囿于篇幅，除了概论性内容之外，想必崔教授还有很多想跟大家阐述的论点。那么就让我提出以下几点问题来供大家讨论。

首先，一直以来中国学者往往将洪秀全的思想与太平天国的理念画上等号(洪仁玕的思想另当别论)，也就是说将洪秀全个人思想与太平天国的思想等同视之。如同演讲稿本文在评价拜上帝教时，认为那是洪秀全本人让拜上帝教在具备基督教因素的同时，不让其停留在基督教的一种分派或者异端的层次，而是发扬光大为中国特色的宗教。但是在洪秀全的翼梦中，却没有出现天父、天兄、天母、天嫂、天妻以及上帝的长子、次子等概念。关于洪秀全天上家族关系的信息，是在1848年的秋冬，由苏朝贵启迪洪秀全的内容。(天兄下凡)之后，综合这些信息的《太平天日》思想，到了1848年冬天则基本成形。还

有, 有关烧毁儒教经典的政策, 也是在此时由苏朝贵建议洪秀全的内容。当然, 除此之外还有很多实际案例, 但鉴于此, 是否就可以说苏朝贵本人就是主导拜上帝教具有中国特色宗教性质的人物呢? 我认为, 讨论"洪秀全"的个人思想, 与讨论"太平天国"理念时所不同的是, 需要明确其人的个性以及角色。也就是说, 拜上帝教的教义, 是否也应该被看待为洪秀全、杨秀清、苏朝贵三人的携手之作? 我想听听演讲者对此的看法。

第二, 对于洪秀全掌有的权力, 演讲者则称之为"洪的绝对皇权"。但是在太平天国史上, 洪秀全的地位与其他历史中独具魅力的风云人物相比, 确实存在一定的距离。例如在拜上帝教的传教时期, 冯云山是当时的实际领导。而到了"天父下凡"以及"天兄下凡"阶段, 则是由杨秀清与苏朝贵扮演了领导角色。甚至到太平天国后期, 洪秀全也为情势所逼而只得分封众王。在此情况下, 将洪的权力视为"绝对皇权", 是否会带来一些误解呢?

第三, 洪秀全虽为太平天国的最高领导人, 却未能发挥其政治领导力, 反而耽溺在宗教研究以及圣经研究上。这是因为何种原因呢? 是否因为性格上的缺陷, 还是杨秀清与苏朝贵的天父下凡与天兄下凡, 封锁了洪秀全发挥实际权力的机会呢? 或者, 是否存在其他原因或动机? 另外, 也有一些人评价洪秀全时, 认为他虽然有很大的理想与抱负, 但是其才气与实践能力却是短板。我想听听演讲者对此的看法如何。

第四, 演讲者认为洪秀全的拜上帝教, 是一种"平等"思想。但是如同演讲稿中指出, 太平天国是等级划分明确的社会。近来有许多学者也主张, 太平天国并没有提倡过政治平等与男女平等。如果仅只围绕"人人都是上帝子女"这一等的拜上帝教教义, 而简单称之为一种"平等"思想, 那么有可能将此误解为"近代平等思想"。这时候, 是不是应该用较具有局限性、与具体性的词语, 将之称为"在神面前的平等"或者"中世纪的平等"呢?

第五, 谈到洪秀全思想的演变与推移时, 演讲者认为在平等平均思想被淡化的同时, 皇权主义却得到加强, 而到了1862年催生了反侵略民族主义。但事实上, 应该可以说其在等级思想与平均理念上, 都是始终如一的。例如到了晚年, 他再发表了<天朝田亩制度>。还有对于西洋人, 虽然称他们为"洋兄弟", 但是在1862年之前, 就曾强力要求他们遵守太平天国的法规。可见其皇权主义自从拜上帝会初期就开始萌芽, 到后来通过制度化不断得到强化作用。如果能接受等级思想、平均理念与皇权主义在理念上得以并存的事实, 那么就可以评价太平天国的平均理念是建立在君主制与等级制的基础之上。也就是说有一种说法, 认为平均主义只是以被统治者对象。不知演讲者对此的看法如何呢。

第六, 演讲者认为太平天国通过过激的政策, 严重破坏了知识分子、富裕阶层、工商阶层、城市居民以及普通民众的利益, 从而丧失了包括农民在内的民意支持, 同时也冷静严正地指出, 民众并没能感受到太平天国与清朝之间有何根本性的差异。近来, 似乎在中国出现一种看重反马克思主义者简又文有关太平天国史研究的倾向, 以及全面否定阶级论的

分析方式。我想请问演讲者，您认为简又文有关太平天国的研究成果以及其研究观点，对中国太平天国学术界能发挥何种影响力？

第七，像是中国的 CNKI(提供学术杂志及学位论文原文的网上服务)非常之好用，不管是针对某一主题，不仅能迅速掌握到中国国内研究趋势，也几乎能网罗一切有关的研究论文。那么像是这种互联网学术服务，是否对中国的太平天国史学者，以及相关的硕博士研究生带来何种影响呢？

至于卢泰久教授，也可能因为本人是天道教徒，发表了一篇与东学运动成为浑然一体的，具有实践意义的独特文章。卢教授尤其认为东学思想与运动极有利于发展成为朝韩统一的思想以及其运动论，并由此观点出发，似乎已定好相关的目录标题。身为讨论者，我的关注点不在于为了某一现实目的而对历史人物或事件予以褒贬的事上。那么我将对有关历史事实的问题，提出一些问题。

首先，演讲者设定一个章节为“全琫準的政治领导力：儒教的士人意识”，而在其内容中，儒教的士人意识反而被指出为他的局限性(忠君思想)。虽然在该文中没有详述，但我知道您是不是想说，若东学教徒全琫準具备了卓越的政治领袖力与风范，那是因为起源于儒教的士人意识呢？另外，虽然该文中谈到他成为领导人乃得力于其“非凡气质”，但是在其年幼时候的特色描述上，却仅停留在模范生的形象。您是否可以补充一些有关他的其他经验呢？

第二，演讲者指出参战的农民军高达 300 万名，但不知是否确实如此。本人也曾听过有关东学教徒达到 300 万名的说法(并无明确根据)，但相对于 1900 年人口为 1400 万或 1900 万的统计，这一主张不是很有说服力。(按照此一推算，如果除去女性与儿童，那等于几乎每三人就有一人是农民军。)

第三，对于全琫準的军队签订全州和约，从而中断对汉阳(首尔)的进攻，演讲者认为这披露了其战略战术上的不足，并对金开南的首尔攻击论给予了支持的态度。但是全琫準之所以需要停止进攻汉阳的当时背景，是众所周知的内容。所以在评价其战略战术是否不足之前，首先应该充分说明当时的背景，并且对于进攻首尔的可能性进行客观角度的比较分析。而且首尔攻击论主张，在朝鲜政府军的中日两国支援军已驻军的当时情况下，由农民军“民乱”势力仅用低端武装与装备体系来尝试展开正规战。而对于这一类的军事暴动(例如秋收暴动)行为，中国共产党一直以来保持批评的态度，称之为“极左盲动主义”或“左翼冒险主义”。那么我想请问演讲者对此的看法如何呢。

第四，文中写到前砺山府使金允植，似乎是金元植的错字。我想知道金元植加入东学军，是在其现任还是在卸任之后的事情。还有，也公开了砺山府使柳济宽出于对东学军的同情，曾向他们供应大米和草鞋的文书内容。另外，演讲者谈到由清朝派遣的聶士成军队的

"曾到论山的全琫準军营表示想要参军的意愿",但是对此问题,李离和先生曾指出有关吴知泳(《东学史》)的此一记录是一种"夸大其词"。难道正如所言,被派遣为朝鲜政府支援军的清军加入了"民乱"军,这让人感到有些怀疑,而且也需要更详细的资料来做印证。聶士成《东征日记》(光绪24年6月28日)中表示,败给日军之后撤退,而当时非撤退到夫余而是到公州附近,接着依照叶志超的命令("公州已难防,不如回平壤与大军汇合")向平壤北进。但是在此期间,没有任何有关与东学军会面的记录。因此恐怕吴知泳对于聶士成部队的这些种种记录,并不适合为有可信度的史料。

第五,演讲者谈到东学革命曾主张"追求近代化"以及"通过引进近代文物思想,以求人类尊严与平等"。请问这里说的"近代文物思想",具体来说是指什么呢?那么全琫準对西欧近代文物的认识,达到了何种程度?

第六,演讲者指出东学的社会政治思想主要是"辅国安民"、"匡济蒼生"、"地上天国",请问在当时确实有用到"地上天国"这一词吗?通常来说,"地上天国"这一词往往指的是属世俗的宗教国家,所以我对此感到有些疑问。

第七,演讲者在提到崔济愚东学以及全琫準的活动时期时(第三章民权(民主)主义),认为其追求了一种"民主"、"主权在民的民权时代"、"以人民为主体"的社会。虽然崔济愚的后天世界论,或东学运动中废除身份差别政策尤为显著,但我认为这也不足以证明当时"主权在民"。在中国悠久的大同思想史中,也曾反复出现了类似的理想论,但也没有将之评价为主权在民论。尤其演讲者介绍了当时会众在报恩集会时,面对政府(宣抚使鱼允中)的解散命令而表示反驳的记录:"此会乃民会。据说自古以来,各朝代各有民会。凡是朝廷之法中有不利于民国,乃集会议论后定。吾会也属此类,奈何(将吾等)烙印为匪贼之群?"这份资料非常有意思,因为当时朝野正在议论的有关外国(及日本)民会(议院)的信息,是否真传到三南东学教徒,是值得思考确认的事。

第八,演讲者主要以上世纪90年代中期出版的几篇论文为中心,展开了基本逻辑主张。身为深度关注东学与中国太平天国史的元老,您是否能就东学运动等民众运动史研究停滞不前的原因,以及需要何种新视角的问题,提出一点个人看法。

중국의 태평천국 기념사업

장티에바오(張鐵寶)

중국태평천국사연구회 / 태평천국역사박물관 교수

번역 : 김지아(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1. 태평천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
2. 국가 차원에서 설립한 태평천국역사박물관
3. 학계 연구 및 각지의 기념 활동

태평천국은 중국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농민 봉기 사건이자 중국이 근대 사회에 들어선 후 농민계층에서 구국구민(救國救民)의 길을 모색하는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십여 개 성에서 장장 18년에 걸쳐 펼쳐졌던 (14년 혹은 16년 설도 있다) 농민군의 봉기는 남경에서 정권 수립 후 강령을 반포했다. 또한 수많은 민중을 동원해 무력투쟁을 벌인 결과 청조의 부패 정치 세력을 타파하고 외국 열강의 침략과 내정간섭에 용감히 맞섬으로 중국 근대화 발전 역사상 화려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태평천국이 실패하고 백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중국은 그야말로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은 태평천국 세력을 진압했던 청나라가 멸망하고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후퇴했으며 1949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간 중국의 국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당 정부는 태평천국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았는데 이러한 견해들의 차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 그 원인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태평천국의 혁명성과 발전요소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당시 시대를 역사적으로 깊이 조명하고 관련 기념 행사 개최를 통해 애국주의 및 혁명 전통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1. 태평천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

1) 청나라, 전면적 부정과 청산

1851년1월, 태평천국은 광서(廣西) 계평(桂平) 금전촌(金田村)에서 봉기하여 약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청나라의 강남지역 통치 중심인 남경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음으로써 북경 정권에 맞서는 농민 정권을 정식으로 수립하였다. 그 후 1864년 7월, 청군은 그야말로 모든 힘을 동원하여 남경을 함락시켰다.¹⁾ 1866년 2월, 남방 태평군은 광둥 가응 황사장(嘉應黃沙嶂) 전투에서 참패하였고, 1868년 8월 태평군과 서녕군(西寧軍)이 연합하여 산둥 치평(茌平) 도해하(徒駭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끝내 전멸함으로써 태평천국은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당시 청나라는 태평천국과의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평천국 진압과정 중 축적해 온 황제의 조서 및 장군, 대신들의 상소문 등과 같은 문헌기록을 낱짜 순서대로 배열하여 『흠정초평월비방략(欽定剿平粵匪方略)』을 편찬해냈다. 그 후 궁중 화가에게 명하여 태평천국과 관련된 전쟁화를 제작하게 하였고 전투에서 공을 세운 장군 및 공신들의 초상화를 궁중 중남해 자광각(紫光閣)에 걸어 그 “뛰어난 책략과 군사상의 공적(廟謨武功)”을 널리 알리고 치하 하게끔 했다. 이와 같이 『방략(方略)』, 전쟁화 및 당시 모든 공적, 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주로 “역적”, “도적”, “악당”, “패거리(逆賊匪寇)”와 같은 모독적인 표현을 많이 담았는데 여기서 청조가 태평천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청산코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 국민당 정부, 긍정에서 부정으로

1) 중국번(曾國藩) 편찬, 『금릉 점령 비문(攻占金陵缺口碑記)』, 태평천국 역사박물관 편, 『천국춘추——태평천국 역사도록』을 참조, 북경: 문물출판사, 2002, p.111.

혁명의 선구자 손중산(孫中山)은 스스로를 “제2의 홍수전”이라 부를 정도로 어려서 부터 태평천국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외족을 내쫓았던 홍수전이 비록 끝내 사망했지만 그 최후의 성패로 영웅을 논할 수는 없다. 이는 또한 홍수전이라는 인물을 존경해 마지않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태평천국은 “진정한 민족혁명의 대표적 사례”이다.²⁾ 손중산이 이끌었던 국민당은 “태평제결(諸杰)”을 “민족혁명의 영웅이자 혁명의 선구자”로 보았으며 신해년(辛亥年, 1911년)에 봉건왕조 청나라를 타파하고 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후에 국민당 총재가 된 장개석(蔣介石) 역시 1928년 “태평천국의 역사는 19세기 동양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으며 그 정치조직 및 경제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한바 있다. 또한 “홍(洪)과 양(楊) 같은 선현이 만청(滿清)에 대항하기 위해 동남지역에서 궐기하여 비록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쇠망하였으나 그 위대한 민족사상은 실로 역사에서 굵은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이다.³⁾ 심지어 국민당 중앙 선전부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국민정부의 모든 공문과 교과서에서 태평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를 당부하며 “도적”, “강도”(賊, 匪)와 같은 단어 사용을 금지했다.⁴⁾

그러나 1931년 이후 국민당의 태평천국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전면적인 긍정에서 전면적인 부정으로 180도 달라졌다.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는 당시 공산당 지도하의 무력투쟁 세력이 일어나고 일본의 대중국 전쟁이 시작되는 등 대내외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다.

손중산은 중국 공산당의 제의 하에 소련, 중공과 연합하고 농민공을 돕는 3대 정책을 내놓았고 국공 양당의 첫 번째 협력을 통해 북벌전쟁을 승리로 이끄는가 하면 장강 및 황하유역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자의 무장봉기 지원 하에 북벌군이 상해를 차지한 후 국민당은 손중산의 3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공산당, 노동자 및 농민을 진압하는 4·12 반혁명정변을 일으켰다. “적군 앞에서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연합하여 적군에 대적하였으나 후에 노동자와 농민이 자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다시 적군과 연합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대적했다.” “어제의 동맹군, 즉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은 오늘날 그들의 적이 되었고 어제의 적군, 즉 제국주의자와 봉건주의자는 다시 그들의 동맹군이 되었다.”⁵⁾ 공산당의 지도

2) 방지광(方之光), 원용(袁蓉), 「국민당의 태평천국에 대한 평가 변화가 주는 역사적 시사점(國民黨對太平天國評價轉變的歷史啟示)」, 『남경대학학보』(철학, 인문사회화학판), 2010년 vol. 1에서 인용. 관련된 주요관점 또한 이 부분을 참조.

3) 간우문(簡又文), 『태평천국 전제통고(典制通考)』 서론, 홍콩: 맹진서옥(猛進書屋), 1958, p.39.

4) 인쇄본은 현재 남경도서관 특별소장부(特藏部)에 소장됨.

5) 모택동, 「신민주주의 혁명론」, 『연합정부』.

하에 노동자 및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국민당은 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당의 태평천국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 내적 원인이다. 후에 일본이 9·18 사변을 통해 대중국침략에 박차를 가하자 이 또한 태평천국에 대한 평가를 뒤집어 놓는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내외외환 속에서 국민당은 1930년대 초부터 정치적으로는 중국번(曾國藩)의 “양외필선안내(攘外必先安內), 즉 외적을 물리치려면 먼저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문화사상 측면에서는 유학을 대표로 하는 전통 문화 보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국민당이 민족문화주의를 각종 외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일종의 보호막으로 삼은 이상 태평천국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동치중흥(同治中興)”을 대표하는 중국번(曾國藩)과 같은 인물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수호했다는 점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1932년 5월, 장개석은 어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즉 일본이 강한 이유는 구미지역의 과학기술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중국의 철학에서 그 근본적인 힘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건국 후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중국 유가사상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상이야말로 중국부흥을 위한 “최대의 무기”이자 “건국 정신”인 것이다.⁶⁾ 그러나 태평천국이 전파해 온 배상재교는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사상에 입각하여 중국 전통 사상, 문화, 풍습 그리고 국민 정서와 위배되는 “이단사설(異端邪說)”로 여겨졌다.⁷⁾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신봉하는 공산주의 역시 일종의 외래 문화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당은 “외래 문화 사악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중국번이 “유가사상을 악에서 수호(衛道辟邪)”해낸 역사적 공로를 크게 샀으며 이와 동시에 홍수전과 태평천국에 대해 전면적인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국민당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정권 유지와 통치 기반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공산당이 이끄는 민족민주혁명을 반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때문에 국민당은 반청 혁명이라는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하여 홍수전과 그의 태평천국 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 활용하였으나 후에 정권유지와 반공 반혁명적 정치수요에 의해 오히려 태평천국을 진압했던 중국번과 같은 인물을 높이 평가하였고 결과적으로 태평천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3) 공산당 정부의 전면적인 긍정 및 홍보 기념 활동

6) 진효의(秦孝儀), 『고 장개석 총통 전집(先總統蔣公全集)』(1), 타이베이 : 중국문화대학출판사, 1984, p.627.

7) 진훈자(陳訓慈), 「태평천국의 종교 정치」, 『사학잡지』 제2권, vol.1, 1930.

중국 근대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건당 초기부터 태평천국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주었다. 혁명의 선구자 이대조(李大釗)는 “태평천국 운동은 만청이 중원으로 들어온 이래 중국민족이 만주에 대항하는 민족혁명운동이자 제국주의의 무력적, 경제적 압박에 맞서는 민족혁명운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⁸⁾ 또한 모택동 전 주석의 경우 다음과 같이 더욱 높은 평가를 해주었다. “1840년 아편전쟁의 실패를 겪은 후 중국인은 깊은 고심 끝에 서방 국가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했다. 홍수전, 강유위(康有爲), 엄복(嚴復)과 손중산은 중국 공산당 탄생 전부터 서방 사회에 진리를 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⁹⁾ 1949년 10월 신중국 수립 후 공산당은 국가 차원에서 태평천국의 역사적 지위를 복구시켰다.

1951년 1월 11일은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기념일로 중앙 『인민일보』 1면 기사에 「태평천국혁명 백주년 기념」 사설을 실어 태평천국의 역사적 공로와 그 한계성에 대해 평가했고, 국가우체국(国家邮政局)은 관련 기념우표 4종을 발행하였다. 북경을 위시해서 당시 태평천국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전국 각 성과 도시들은 각종 기념행사를 가졌고 이를 통해 백 년간 각 통치계층이 태평천국에 붙여준 모욕적인 꼬리표를 일거에 철회하고 다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몇 년 후 생긴 북경 천안문 광장 중앙에는 인민 영웅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비석 정면에 모택동 주석 친필로 쓴 “인민영웅 영원하라(人民英雄永垂不朽)”라는 여덟 자가 새겨져 있다. 또한 기념비 후면에는 주은래 총리 친필의 인민영웅 비문을 세겨 1840년 이래 내외적군에 대항하고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해 수많은 전투 가운데 희생된 인민의 영웅을 기렸다. 기념비 비좌(碑座)의 사방으로는 여덟 개의 흰 대리석 부조를 상감하였는데 각각의 주제는 “호문소연(虎门销烟)”, “금전봉기(金田起义)”, “무창봉기(武昌起义)”, “5·4운동”, “5·30운동”, “남창봉기(南昌起义)”, “항일유격전” 그리고 “장강을 건너는 백만대군(百万雄师过大江)”이다. 이 주제들은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49년 신중국 수립까지 백여년간의 중국 혁명 여정을 이미지를 통해 소개하였다. 나아가 “금전봉기”가 상징하는 태평천국 농민영웅을 포함한 인민영웅들의 역사적 공로를 노래하였다. 매해 10월 1일 신중국 국경기념일에는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이 우뚝 솟은 기념비에 화환을 헌정하며 인민영웅의 불멸의 공적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는다.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은 태평천국 당시 수도였던 남경에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일찍이 1950년 12월 1일부터 남경 각계 인사들로 이뤄진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기념준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개 결의를 통과시켰다. 1) 남경, 상해 등 지역에서

8) 중국이대조연구회 편찬, 『이대조전집(李大釗全集)』(5), 북경:인민출판사, 2006, p.100.

9) 모택동,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태평천국 역사문화 전람회 개최 2) 당시 천왕 홍수전이 주거하고 정무를 봤던 천조궁전(天朝宮殿) 유적지 앞에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기념비” 세우기 3) 태평천국 역사박물관 설립 4) 태평천국 문헌 및 자료 편찬.¹⁰⁾

1951년 5월 18일, 반년 가까이 준비작업을 거쳐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기념 전람회”가 각각 남경 천조궁전 유적지와 상해 포마청(跑馬廳)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는 그림, 사진, 문물, 모형, 도표, 탁본, 친필 서한 및 서적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총 945점(종)을 전시했으며 2개월 동안 방문인원 100만을 돌파하였다.

1952년 1월 11일, 남경의 각계 인사들이 태평천국 천조궁전 유적지 앞에 모인 가운데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기념비” 준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기념비 정면에는 곽말약(郭沫若) 친필의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기념비”라는 11자가 새겨졌고 후면에는 남경시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기념 전람회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기념 비문이 새겨졌다.¹¹⁾ 기념비 상측 정중앙에는 오각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주변을 상운(祥雲)으로 감싸 신성함과 숭고함을 나타냈다. 비문과 비명 사방으로는 태평천국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회문돌림 문양으로 장식되어 태평천국의 정의로운 정신이 후세까지 널리 전해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2. 국가 차원에서 설립한 태평천국역사박물관

1) 박물관 설립

태평천국 역사박물관의 설립 과정은 1950년 12월 남경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행사 준비시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태평천국 역사문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태평천국 봉기 백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태평천국과 관련된 문물 및 문헌이 많이 수집되었고 이는 박물관 설립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주었다. 1952년 1월, 남경 성서(城西) 당자로(堂子街)의 한 민가에서 관련 그림 18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검증을 거쳐 바로 태평천국 유물인 진귀한 벽화임이 증명되었다. 이 민가는 태평천국 당시 동왕 양수청 소속 관아 및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열왕의 왕부(列王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후 정부에서 출현하여 이 민가를 인수한 후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고, 1955년

10) 뤼얼강(罗尔纲), 『곤학총서(困学丛书)』(하), 남녕(南宁): 광서인민출판사, 1989, p.761.

11) 뤼얼강(罗尔纲), 『곤학총서(困学丛书)』(하), 남녕(南宁): 광서인민출판사, 1989, p.617-618.

1월 22일 국가문화부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허가가 나왔다. “태평천국의 남경 해방 백주년을 맞이하여(1953년 3월 19일) 당자로(堂子街)의 모 왕부(王府)를 개방하며 튀얼강(羅爾綱)에게 태평천국 기념관 사무를 일임한다.”¹²⁾ 이로써 태평천국 역사박물관 설립 안건이 정식으로 의정보고에 제출되었다. 또한 1955년 3월 28일에는 국가문화부의 “태평천국 역사 진열관” 설립 허가가 나왔다.¹³⁾ 1956년 10월 1일 “태평천국 기념관”이 남경 당자로(堂子街) 태평천국 모 왕부(王府) 유적지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이 후 날로 증가하는 관람객과 다소 협소한 유적지 장소 관계로 기념관의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1958년 초 태평천국 기념관을 남경 성남의 원래 태평천국 우서왕부(幼西王府) 소재지인 침원(瞻園)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1961년 1월 11일 태평천국 봉기 11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태평천국 기념관의 공식명칭을 “태평천국역사박물관”으로 개명했다.

2) 박물관 설립 및 발전

중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차원에서 설립한 태평천국사 테마 박물관은 설립일 이래 태평천국의 역사 진열, 문물 소장, 사료 수집, 학술 연구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해온 결과 56년의 세월 동안 괄목한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진열전시

박물관의 진열전시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대중사회에 다가가는 중요한 장이자 박물관의 학술적 수준과 종합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공간이다. 본 박물관이 상설 전시하는 “태평천국 역사진열”은 중국에서 가장 전문적, 체계적이고 풍부한 태평천국 통사 및 테마 진열관이다. 보통 8-10년을 주기로 개편을 거쳐 진열내용을 꾸준히 보완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진열 형식에서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전시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관람객들이 전시관람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는 동시에 역사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에는 태평천국 봉기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시 개편을 하였고, 가장 풍부한 문물 자료와 수준 높은 연구 성과, 그리고 최신 전시법을 동원하여 태평천국의 역사 및 경험과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시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이러

12) 국가문화부비문초건장태평천국역사박물관(国家文化部批文抄件藏太平天国历史博物馆).

13) 국가문화부비문초건장태평천국역사박물관(国家文化部批文抄件藏太平天国历史博物馆).

한 노력은 2000년도 중국 박물관 “10대 전시상”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나타났다.¹⁴⁾ 또한 근래 들어 박물관 연평균 방문자수는 80만을 넘어섰다.

본 박물관은 1980년대부터 상설 진열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태평천국 역사진열》 전시회를 선보이며 일부 직원을 태평천국 역사 순회 홍보교육팀으로 구성하여 중국 각지에서 순회 전시를 열었다. 특히 북경, 천진, 심양, 정주(鄭州), 서안, 무한, 남녕(南寧), 광주 등 열 개 도시를 방문해 태평천국 및 중국 근대사 지식 전파에 힘쓰는 등 각지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애국주의 교육의 이동교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본 박물관은 최근 십 년간 남경을 중심으로 애국주의 교육본부를 통해 일부 대학, 중학, 초등학교 및 주남경부대, 주민을 대상으로 협력관계를 맺었다. 또한 각 협력 대상에 따라 “제2교시”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각 관할구의 학교, 군부대, 주거지역에 “방문교육(送課上門)”을 실시하였고 농촌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문 전시회(送展下鄉)”를 열었다. 남경에서만 총 3개 관할구와 2개 현, 그리고 40여 개의 향진 지역을 돌며 태평천국과 중국근대사 알리기에 힘썼고 수준 높은 교육으로 수십만 청년, 학생, 주민과 농촌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2) 문물 소장

태평천국 실패 후 그야말로 호한한 관련 문헌 및 문물이 청조에 의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이미 백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남겨진 문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 문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발 빠르게 수집하는 작업이 본 박물관의 핵심 작업이 되었다.

현존하는 태평천국 문물은 대체적으로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해외 소장품인데, 주로 당시 외국에서 파견해 온 외교관, 군인, 상인, 선교사 등 인물이 여러 가지 사유로 태평천국을 접할 때 얻은 것으로 이후 본국으로 반출되 각 국의 박물관,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에 소장된 것으로 보통은 사진이 그 주를 이룬다. 두 번째로는 국내 각 기록보관소, 도서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당시 태평군과 청군 전투 시 청조에 증거 자료로 바쳐지는 문건으로 수집 및 보존되어 온 것이다. 혹은 민국 시기에 민간에서 발견되어 박물관과 도서관에 소장된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주로 사진이 대부분이다. 세 번째는 우연한 계기로 민간에 흩어진 유물이며 바로 본 박물관의 가장 핵심적인 수집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현존하는 태평

14) 이문유(李文儒) 편찬, 『중국박물관 진열품 도록(精品图解)』(2), p.74 ~ 83, 북경 : 문물출판사, 2002.

천국 유적지와 여타 유적을 말한다. 본 박물관은 56년 동안 각종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의 민간 영역에서 태평천국 문물 감정 및 수집 작업을 펼쳤는데 그 중 국보급이라 할 수 있는 태평천국의 용을 수놓은 황금비단 마고자(繡龍黃緞馬褂) 뿐만 아니라 태평천국 『흙정사계조례(欽定土階段條例)』, 『흙정군차실록(欽定軍次實錄)』, 『흙정영걸귀진(欽定英杰歸真)』 등의 판각본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태평천국 각급 관원이 공표한 고시내용, 태평천국 관인, 전빙(田憑, 토지증명서), 상빙(商憑, 사업자등록증), 식량물자배급표, 화폐, 문패, 자수품, 동철포, 석각, 세화 등 문물 수천 점을 얻었다. 또한 조사를 통해 태평천국 천관(天官) 정승상(正丞相) 증수원(曾水源)의 묘지와 남경당자로(堂子街) 및 여의리(如意里), 라랑항(羅廊巷), 황니강(黃泥崗), 축교(竺橋) 등과 같은 태평천국 벽화 유적지를 발견하였다. 그 중 천보성(天保城), 지보성(地保城), 의봉문(儀鳳門), 신책문(神策門), 태평문(太平門), 칠교옹(七橋瓮) 등과 같은 중요한 유물에 대한 조사 및 촬영을 마쳤는데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문물, 유적지 및 유물들이 자연 혹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파손을 입게 되어 당시 촬영을 통해 남겨진 사진들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진열전시, 학술 연구 등 분야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박물관은 현존하는 태평천국 문물의 한계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수집 범위를 청나라 문물 및 문헌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청나라 당시 소송태도(蘇松太道)이자 서리 강소 포정사였던 오후(吳煦)의 몇 십 상자, 1000여 만 자에 달하는 원본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중국번, 이홍장, 좌종당 등 청조 중요 관원이 남긴 자료, 공문서, 서신 및 대청지폐, 호부관표(戶部官票), 공패, 상패 등 문헌 및 문물을 수집하여 전시와 연구 영역을 확대하였다.

(3) 사료 수집

태평천국 사료수집은 태평천국 문헌과 청나라 기록자료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태평천국 문헌은 원본 및 복제본 두 가지가 있으며 원본은 문물에 속하고 여기서 말하는 태평천국 문헌은 주로 복제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복제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본 또는 모사본을 말하며 원본이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 복제본의 가치 또한 매우 높아진다. 청나라 기록자료의 경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예를 들어 조서, 품의(奏議), 관서, 공사 자료, 서한, 저작물, 전기, 야사 필기, 연보, 시문, 지방지, 도설, 간행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본 박물관은 사료수집 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수집 작업이다. 둘째, 태평천국 당시 가장 긴 통치기간을 거친 강소, 안휘,

절강 3성을 중심으로 한 수집 및 조사 작업이다. 셋째, 남경도서관 이화로(頤和路), 용반리(龍蟠里) 서고 및 소남(蘇南) 지역 문물보호기관 서고를 방문해 복제본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여기저기 숨어 있는 자료를 발굴해낸 결과 현재 총 1500여만 자에 달하는 태평천국 사료를 보유하고 있다.

(4) 학술연구 및 출판

본 박물관은 대거 수집되고 복제된 태평천국 문물 및 사료에 대해 분류 및 편찬 작업을 거쳤으며 크게 태평천국 문헌과 청나라 자료로 나누었다. 전자는 당시에 볼 수 있었던 태평천국 인서(印書), 문서, 문물 및 예술품 원본으로 엄격한 감정과정을 거쳐 『태평천국문헌4집(太平天國文獻四集)』으로 편성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수집된 1500여 만자에 달하는 청나라 자료 중 사료 가치가 비교적 높은 800여 만자로 구성된 『태평천국자료회편(太平天國資料匯編)』으로, 나머지 400여 만자 사료는 『태평천국 참고자료(太平天國參考資料)』로 엮어 박물관 방문 학자들의 연구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태평천국 문헌4집』 중 제1집 『태평천국인서(太平天國印書)』의 경우 관서(官書) 42권을 수록하여 판각 인쇄 연도별로 배열하여 1961년에 영인 출판하였고 그 후 연구 편리성을 위해 간체자 가로 조판으로 재판 인쇄 하였다. 제2집 『태평천국문서(太平天國文書)』의 경우 문서 114건을 수록하고 조서, 포고문, 공문하달, 상부보고, 외교문서, 기타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1991년 영인 출판하였다. 여기에 설명을 덧붙이자면 제2집에서 수록한 문서란 광의적인 문서, 즉 태평천국 문헌 중 인서, 문물, 예술 이외의 모든 서면 문건의 원본을 말한다. 이 중 상당한 양의 태평천국 문서 복제본은 수록되지 않았다. 또한 본 박물관은 1979년 수집 가능한 태평천국 문서 중 원본과 복제본 총 418점을 조서, 포고문, 공문, 외무 및 대외문서, 논서(論序), 병책관아(兵冊館衙) 명부 및 호구, 문패명부, 부기(簿記), 식량배급표, 기타 자료 등을 열권 및 부록으로 나눠 『태평천국문서회편(太平天國文書匯編)』을 편찬해내어 학술 연구에 기여했다. 제3집 『태평천국문물(太平天國文物)』은 문물 168점을 수록하였고 경제, 정치, 군사 및 기타 네 부분으로 나누어 1992년 연인 출판하였다. 제4집 『태평천국예술(太平天國藝術)』은 예술품 198점을 수록하고 벽화, 채화, 판화, 조각 및 자수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눠 1959년에 영인 출판했다. 또한 본 박물관은 1994년에 『태평천국예술』 개정본을 편찬하였는데 총 370점의 예술품을 수록하였고 벽화, 판화(인서 표지도안 및 문서, 문물 태두리장식 도안 추가), 채화, 조각, 자수 및 서예·인장 등과 같은 여섯 분야로 나눠 영인 재판 발행하였다. 이처럼 『태평천국 문헌4집』은 국내외를 통틀어 태평천국 문헌 및 문물을 가장 폭넓고 가치 있게 집대성한 것으로 태평천국사 연구

학자들이 반드시 구비해두는 필독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태평천국 문헌 및 문물 감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해주었다.

『태평천국자료취편』 편찬 이후 많게는 800여 만 자의 방대한 자료가 출판을 거치려면 소요 시간과 주기가 상당히 길었다. 본 박물관은 출판사와 협의한 끝에 그 중 미처 발간되지 않은 진귀한 자료 180만 자를 먼저 편찬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곧 『태평천국사료총편간집(太平天国史料丛编简辑)』 6권으로 1961년에 출판되었다. 이 6권은 중국 사학회가 편찬한 『중국근대사 자료총간——태평천국(中国近代史资料丛刊——太平天国)』 8권과 함께 태평천국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손꼽히고 있다.

1959년에는 국가문화부에서 본 박물관에 오후(吳煦)의 문서자료를 제공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건륭 중기부터 민국까지를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사건으로는 상해 소도회봉기, 태평천국 전쟁, 제2차 아편전쟁 및 강소, 절강지역 경제자료 등이 있고 대부분은 1차 원본 자료이다. 본 박물관은 총 1000여 만 자의 자료 중 200여 만 자의 내용을 선별해 냈고 이를 태평천국 자료, 조직 활동 및 농민 저항 및 투쟁 자료, 중국과 외국의 교섭 및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 자료, 청나라 재정 경제 자료 등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 『오후자료선집(吳煦档案选编)』 7권을 편찬하여 1983년에 출판하였다. 이 사료의 높은 가치는 학계에도 인정을 받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본 박물관 소속 연구자가 편찬 출판한 서적으로는 『태평천국천경도설집(太平天国天京图说集)』, 『청함동시기명인함찰(清咸同年間名人函札)』, 『천국춘추——태평천국역사도록(天国春秋——太平天国历史图录)』, 『태평천국문화(太平天国文化)』, 『태평천국왕부(太平天国王府)』, 『태평천국박물관지(太平天国博物志)』, 『태평천국사신론(太平天国史新论)』, 『태평천국벽화전집(太平天国壁画全集)』 등 자료서적 및 학술저서 40여권이 있으며 이 밖에도 학술논문 400여 편이 있다.

(5) 협력 및 교류

본 박물관은 국내 태평천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 및 학자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맺어 여러 명의 저명한 교수를 특별연구원으로 초빙하고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열어 학술적 교류를 나누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본 박물관은 풍부한 문물 및 사료 자원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 학자들의 학술연구에 필요한 문물, 기록, 사료 조회 및 검색의 원활화를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과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한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러시아 등 국가와 홍콩, 대만 등 지역에서 온

학자들이 본 박물관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열었고 문물 및 문헌 기증을 통해 상호간의 연구성과가 날로 높아졌다. 1979년 영국의 커윈(柯文南, C·A·Curwen) 박사는 당시 태평군에 참가하여 상주(常州)에서 전사한 영국인 스미스의 일기 원본을 기증하였다. 1981년 호주 캔버라 국립도서관의 아시아부 주임은 소장 도서 태평천국 『신유조성서(新遺詔聖書)』의 복사본을 제공하였다. 1989년 일본 코지마 신지(小島晋治) 교수는 그가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서 복사한 태평천국 우천왕(幼天王) 홍천귀복(洪天貴福)과 간왕(干王) 홍인간(洪仁玕)의 친필 진술 등 진귀한 자료를 전달했다. 본 박물관은 2004년 한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및 전주박물관과 상호 방문하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였다. 중국 태평천국 농민봉기와 한국 동학농민혁명 모두 동아시아 민중운동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며 아울러 아시아 민족 독립운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내용이다. 때문에 이러한 역사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한중 사학자들의 공통된 책임이며 양국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학술 연구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6) 경제적 수익

본 박물관이 위치한 침원(瞻園)은 남경에 현존하는 유일한 명청시기 고전정원으로 “금릉제일원(金陵第一園)”이라는 명성을 자랑한다. 침원은 원래 명나라 초기 중산왕(中山王) 서달(徐達) 판저의 일부로 가정(嘉靖) 초기에 짓기 시작했고 청나라에 들어서는 포정사 관청이 되었다. 건륭(乾隆) 황제는 남순 시 필사원(辟斯園)에 머무른 적이 있는데 태평천국시기 전후로 동왕부(东王府)와 우서왕부(幼西王府)였다가 현재는 국가 핵심 문물 보호지역 및 5A급 관광 지구로 자리잡았다.

본 박물관은 건물과 정원이 결합하여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태평천국 역사 전시관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풍경의 고전 정원 속에 있어 매년 수십만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본 박물관은 약 십여 년 동안 관광부처와 협력하여 태평천국 및 침원 왕부(瞻園王府) 문화전시 공연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문화 브랜드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회적으로 큰 호응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입장권 수익은 연평균 약 500만 위안이며, 새로 개발한 주변 상가의 임대료 100여 만 위안을 합하면 국가 재정 지원 외에도 매년 총 600여 만 위안의 자체 자산을 확보해 박물관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태평천국 역사박물관은 56년이라는 역사를 걸어왔고 이 기간 동안 수집하고 소장된 태평천국 문물 및 자료의 수량과 종류는 가히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소장한 태평천국 문물 기록은 약 4000점(종)이며, 또한 태평천국의 여러 문물, 유적지, 유물 필름 자료 10,000여 장이 있다. 이밖에 청조 및 중국변 등과 같은

중요인물의 원본 기록, 서신 2,000여 권, 1,500여 만 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기록보관소 소장으로 약 80여 종, 2000여 만자에 달하는 청나라 태평천국 진압 전체기록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청나라 함동(咸同)[함풍제(咸豐帝), 동치제(同治帝)] 시기 이래 각 시기의 태평천국사와 관련된 판각본 및 도서 6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1,400여만 자에 달하는 각 종류의 태평천국사를 기록한 원고, 판각본 등 사료의 복제본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문물, 문헌 자료가 풍부하고 가장 특색을 갖춘 소장 체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차례 조정과 개편을 거쳐 선보인 《태평천국 역사전시》는 체계적으로 태평천국 18년 동안 의거에서 최후 실패까지의 역사과정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전시하였고 국민들에게 중국 근대사와 애국주의 전통의 생생한 교육 현장을 제공해주었다. 이 밖에도 본 박물관의 학자가 편찬하여 출판한 태평천국 및 중국 근대사 자료 서적과 학술서적은 총 40여권, 약 1,000여만 자로, 특히 학술논문 400여편, 약 200만자를 발표함으로써 본 박물관의 태평천국 및 중국근대사 연구기지로써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졌다. 본 박물관은 50여년간의 노력을 통해 전시 진열, 문물 소장, 자료 출판, 학술 연구, 학술적 교류 협력 및 애국주의 교육의 장으로써 눈부신 성과를 일궈냈고 오늘날 자타가 공인하는 태평천국 문물, 자료, 전시, 정보 및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3. 학계 연구 및 각지의 기념 활동

1) 풍부한 학술 성과

청나라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후 국내외적으로 소장된 태평천국 관련 문헌 및 문물이 속속들이 출판되고 공개됨에 따라 학계는 점점 태평천국사 연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신중국 수립 이후 태평천국사 연구는 높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학계에 태평천국 연구 붐이 일어나고 많은 연구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놓아 중국 사학연구 영역에서 유례없는 진풍경을 이루어 하나의 “현학(显学)” 발전하였다.¹⁵⁾ 수십 년의 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태평천국 관련 기록 및 사료를 정리, 공개하였고 태평천국 혁명의 성격, 제도정책, 인물 평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

15) 모가기(茅家琦) 편찬, 『태평천국통사』서론, 남경 : 남경대학출판사, 1991.

와 학술논문을 이끌어 냈다. 또한 수준 높은 전문 학술서적을 출판하여 태평천국사학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2) 학술 연구 모임

1979년 남경에서 개최된 태평천국사 국제학술회의는 신중국 수립 이래 사학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술향연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회의 개최 후 북경, 남경, 광서, 광둥, 상해, 절강, 안휘, 사천 및 중경 등 각 성시 및 자치구는 지역 차원에서 태평천국사학회와 같은 학술모임을 만들어 전국적인 태평천국 사학계 간의 상호 소통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십여년 넘게 태평천국사 연구의 최고조 시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 밖에도 각지에서 매 3년, 5년, 10년을 주기로 각각 소형, 중형, 대형 회의라는 형식으로 태평천국 학술세미나를 번갈아 개최하는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국 태평사학계의 힘을 모아 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는 동시에 태평천국 사학연구발전에 기여하였다. 1989년 11월, 국가민정부(民政部)의 허가를 받아 전국적 학술 모임인 중국 태평천국사 연구회가 정식 출범하여 이 분야의 학술연구가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었다.

3) 각지의 기념 활동

신 중국 수립이래 당시 태평천국 활동무대가 되었던 지역에서 관련 유적지와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그 중 중요한 문물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각 지방정부에 의해 문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예를 들어 광서 귀평(桂平)의 금전기의(金田起义), 광서 몽산(蒙山)의 영안건제(永安建制), 강소 남경의 태평천국 천조궁전, 당자로(堂子街)의 태평천국 벽화, 강소 소주(苏州)의 충왕부(忠王府), 강소 의흥(宜兴)의 태평천국 관아, 절강 금화(金华)의 시왕부(侍王府), 절강 소흥(绍兴)의 태평천국 벽화, 안휘 안경(安庆)의 영왕부(英王府), 안휘 적계(績溪)의 태평천국 벽화 등 다양한 유적지를 자랑한다. 이와 같은 유적지 및 유물은 정부의 보호를 받아 관련 역사 전시관에서 진열되거나 현지 태평천국 기념의 중심지가 되어 정기적인 대외 개방과 함께 국민 그리고 특히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는 공간이 되었고 나아가 선조들의 지혜를 물려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장으로 거듭났다.

中国太平天国纪念事业

张铁宝

中国太平天国史研究会 / 太平天国历史博物馆 教授

-
1. 国家层面对太平天国的基本评价
 2. 国家设立太平天国历史博物馆
 3. 学界研究与各地纪念
-

太平天国是中国历史上规模最大的一次农民起义，也是中国进入近代社会后农民阶级探索救国救民道路的一次伟大实践。这次起义历时18年(另有14年和16年之说)，遍及十数省，在南京建立了政权，颁布了纲领，组织起千百万民众进行武装斗争，不仅沉重打击了清王朝的腐朽统治，英勇抗击了外国列强的侵略干涉，而且大大推动了中国近代化的历史进程，在中国历史上写下了光辉的篇章。

太平天国失败后的近百年里，中国发生了翻天覆地的变化。先是镇压太平天国的清政府被推翻，接着是国民党政府退往台湾，到1949年10月中华人民共和国的成立，历史翻开了崭新的一页。随着国家层面政权的更迭，不同政党政府对太平天国功过是非的评价出现很大差异。认真梳理和考察各个时期政党政府对太平天国评价的异同，探究出现这些异同的原因和过程，显然有助于了解太平天国的革命性质和进步作用，深入研究那段历史，积极开展纪念活动，更好地进行爱国主义和革命传统教育。

1. 国家层面对太平天国的基本评价

1) 清政府的全面否定与清算

1851年1月太平天国在广西桂平金田村起义, 仅用两年多时间就攻占清朝江南统治中心的南京, 定为首都, 正式建立了与北京相对峙的农民政权。1864年7月, 清军“穷天下力”攻陷南京。¹⁾1866年2月, 南方太平军在广东嘉应黄沙嶂战败。1868年8月, 与太平军联合作战的西捻军在山东茌平徒骇河全军覆没, 标志着太平天国的最后失败。

清政府在太平天国战事结束不久, 就旨令把历年来镇压太平天国过程中逐日积存的皇帝谕旨、将帅大臣奏折类档案文献, 按日期之先后顺序进行编排, 编纂成《钦定剿平粤匪方略》等刻印出版。其后又旨令宫廷画师绘制平定太平天国等战绩图以及与太平天国作战有功的将帅功臣像悬挂清廷中南海紫光阁, 以宣扬“庙谟”, 显示“武功”。在这些方略、战绩图和当时所有的公私文献中, 充满着“逆”、“贼”、“匪”、“寇”之类诬蔑性话语, 对太平天国进行全面的否定与清算。

2) 国民党政府从肯定到否定的转变

革命先行者孙中山先生从小喜听太平天国故事, 并以“洪秀全第二”自诩, 称“洪秀全起自布衣, 驱逐异族, 虽及身而亡, 固不能以成败论英雄也, 因深慕其为人”。太平天国是“纯民族革命的代表”。²⁾他领导的国民党把“太平诸杰”视为民族革命英雄及革命先进, 辛亥年一举推翻封建清王朝, 建立民国政府。1928年, 包括后来成为国民党总裁的蒋介石都认为, “太平天国之历史, 为十九世纪在东方第一光荣之历史, 而其政治组织与经济制度, 则尤足称焉。”“洪杨诸先民, 崛起东南, 以抗满清, 虽志业未究遽尔败亡, 而其民族思想之发皇, 轰轰烈烈, 在历史上足以留一重大之纪念焉。”³⁾甚至国民党中央宣传部还专

1) 曾国藩撰《攻占金陵缺口碑记》之语。见太平天国历史博物馆编:《天国春秋——太平天国历史图录》, 北京:文物出版社, 2002, 第111页。

2) 转引自方之光、袁蓉:《国民党对太平天国评价转变的历史启示》,《南京大学学报》(哲学、人文社会科学版), 2010年第1期, 本节的主要观点亦参考该文。

3) 转引自简又文:《太平天国典制通考》绪言, 香港:猛进书屋, 1958, 第39页。

门发文,要求国民政府一切公文和教科书等均需正面评价太平天国,不准出现诬称“贼”、“匪”之类的话语。⁴⁾

然而到了1931年之后,国民党对太平天国的评价来了一个大转变,由全面肯定变成全面否定。造成这种转变的是与当时共产党领导的武装斗争兴起以及日本发动侵华战争等内外因素有关。

本来,孙中山是在中国共产党的建议下,制定了联俄、联共、扶助农工的三大政策,实行国共两党的第一次合作,进而取得北伐战争的节节胜利,占领了长江和黄河流域的广大地区。但是当北伐军在工人武装起义支援下攻占上海后,国民党就公开背叛孙中山的三大政策,发动了镇压共产党人和广大工人农民的“四·一二”反革命政变。“大敌当前,他们要联合工农反对敌人;工农觉悟,他们又联合敌人反对工农。”“昨天的同盟者——中国共产党和中国人民,被看成了仇敌,昨天的敌人——帝国主义者和封建主义者,被看成了同盟者。”⁵⁾这就是国民党惧怕共产党领导的工农运动蓬勃发展对太平天国评价大转变的内因。而日本策动“九·一八”事变,加速侵略中国则是国民党对太平天国评价转变的外因。正是这种所谓的“内忧外患”的新形势,促使国民党自上世纪三十年代初,始在政治上效法曾国藩当年“攘外必先安内”的方针,在思想文化上采取保卫以儒学为代表的传统文化的立场。一旦国民党认为民族文化主义能够成为抵御各种外来意识形态的坚强壁垒,那么太平天国便不再得到肯定,相反代表“同治中兴”的曾国藩之辈就会成为民族英雄,因为他们捍卫了中国的传统文化。

1932年5月,蒋介石在一次演讲中强调:日本致强的原因不是得力于欧美的科学,而是得力于中国的哲学。他们立国以来,举国上下普遍学习中国的儒道。儒家才是复兴中国的“紧要武器”和“立国精神”。⁶⁾而太平天国宣扬的拜上帝教,恰恰源自于外来的基督教,被视作是一种违背中国传统思想、文化、习俗及国民心理的“异端邪说”。⁷⁾同样,共产党信奉的共产主义,也被视作是一种外来文化。国民党从“外来文化邪恶论”的视角,肯定曾国藩“卫道辟邪”的历史贡献,因而全面否定了洪秀全与太平天国。国民党之所以这样做,完全是为了政治上维护和巩固统治的需要,主要目的是反对共产党领导的民族民主革命。

可以说,国民党是从反清革命的政治需要出发,利用并肯定了洪秀全和太平天国;后来又从维护自己统治和反共反革命的政治需要出发,转而肯定镇压太平天国的曾国藩之辈,全面否定太平天国。

4) 该印刷件藏南京图书馆特藏部。

5) 毛泽东:《新民主主义革命论》、《论联合政府》。

6) 秦孝仪:《先总统蒋公全集》(一),台北:中国文化大学出版社,1984,第627页。

7) 陈训慈:《太平天国之宗教政治》,《史学杂志》1930年,卷二,第1期。

3) 共产党政府的全面肯定与宣传纪念

鉴于太平天国在中国近代史上所起的巨大进步作用，中国共产党人在建党之初就给予高度的评价。革命先驱李大钊说：“太平天国的运动，是满清入关以来中国民族反抗满洲的民族革命运动，同时也是反抗帝国主义武力的经济的压迫的民族革命运动。”⁸⁾毛泽东主席更认定：“自从一八四〇年鸦片战争失败那时起，先进的中国人经过千辛万苦，向西方国家寻找真理。洪秀全、康有为、严复和孙中山，代表了在中国共产党出世以前向西方寻找真理的一派人物。”⁹⁾1949年10月新中国建立后，共产党又从国家层面上为太平天国恢复了应有的历史地位。

1951年1月11日是太平天国起义百周年纪念日，中央的《人民日报》在头版显著位置发表了《纪念太平天国革命百周年》社论，全面评价了太平天国的历史功绩及其局限性。国家邮政局特地发行了一套四枚的纪念邮票。北京以及当年太平天国曾经活动过的全国各省市地区也开展了各种形式的纪念活动，一扫百年来统治阶级强加在太平天国头上的种种诬蔑之词，重塑了太平天国的正面形象。几年后建成的北京天安门广场中央，矗立起一座人民英雄纪念碑，碑身正面镌刻着毛泽东主席题写的“人民英雄永垂不朽”八个大字；碑身背面镌刻着周恩来总理书写的纪念自1840年以来，为了反对内外敌人，争取民族独立和人民自由幸福，在历次斗争中牺牲的人民英雄的碑文。纪念碑的碑座四周镶嵌着八块汉白玉浮雕，主题分别为“虎门销烟”、“金田起义”、“武昌起义”、“五四运动”、“五卅运动”、“南昌起义”、“抗日游击战”和“百万雄师过大江”，形象地概括了中国人民从1840年鸦片战争到1949年新中国成立百余年间中国革命的艰难历程，热情讴歌了包括以“金田起义”为象征的太平天国农民英雄在内的人民英雄们前赴后继的光辉业绩。每年的10月1日新中国国庆纪念日，党和国家最高领导集体都会来到天安门广场，向这座巍巍丰碑敬献花篮，以永远铭记人民英雄们的不朽功勋。

南京作为当年太平天国的首都，纪念太平天国起义百周年就有着特殊的意义。早在1950年12月1日，由南京各界人士组成的纪念太平天国起义百周年筹备委员会就通过四项决议：1. 在南京、上海等地举办太平天国历史文物展览会；2. 在当年天王洪秀全居住和主持政务的天朝宫殿遗址前树立“太平天国起义百年纪念碑”；3. 筹建太平天国历史博物馆；4. 编纂太平天国文献和资料¹⁰⁾。

1951年5月18日，经过近半年的积极筹备，“太平天国起义百年纪念展览会”分别在南京

8) 中国李大钊研究会编注：《李大钊全集》（五），北京：人民出版社，2006，第100页。

9) 毛泽东：《中国革命与中国共产党》。

10) 罗尔纲著：《困学丛书》下册，南宁：广西人民出版社，1989，第761页。

天朝宫殿遗址和上海跑马厅举办。该展览由序、图画和照片、实物、模型、图表、拓片、手札及书刊等八个部份组成，展出各类展品945件(套)，两个月内接待观众超过了100万人次。

1952年1月11日，南京各界人士聚集在太平天国天朝宫殿遗址前，举行隆重的"太平天国起义百年纪念碑"落成典礼。纪念碑正面镌刻着郭沫若题写的"太平天国起义百年纪念碑"十一个大字；背面镌刻着南京市太平天国起义百年纪念展览会筹备委员会撰写的纪念碑文。¹¹⁾纪念碑上端正中还刻有五角星，周边饰以祥云环绕，寓意神圣而崇高。碑文和碑记的四周，另雕有太平天国常用的回纹边饰，象征着太平天国的正义事业连绵不断，薪火相传。

2. 国家设立太平天国历史博物馆

1) 博物馆的筹建

太平天国历史博物馆的筹建始于1950年12月南京纪念太平天国起义百周年筹备之时。在相继筹办"太平天国历史文物展览"、树立"太平天国起义百年纪念碑"的过程中，发现并征集到一批太平天国文物文献，这就为成立博物馆创造了条件。1952年1月，南京城西堂子街一处民宅里发现了18幅壁画，经考证为太平天国遗存的珍贵壁画。该民宅当年曾做过太平天国东王杨秀清属官衙署和某位不知名的列王府。随后由政府出资收购，并进行修缮。1953年1月22日，国家文化部批复："在太平天国解放南京百周年时(1953年3月19日)开放堂子街某王府，并请罗尔纲先生负责太平天国纪念馆事。"¹²⁾成立太平天国历史博物馆一事正式提上了议事日程。1955年3月28日国家文化部批准："同意成立太平天国历史陈列馆。"¹³⁾1956年10月1日，"太平天国纪念馆"在南京堂子街太平天国某王府遗址内正式成立。后由于参观者日益增多，堂子街某王府遗址场地狭小，已不能适应纪念馆发展的需要，1958年初太平天国纪念馆迁往南京城南原太平天国幼西王府所在地的瞻园。1961年1月11日是太平天国起义110周年纪念日，太平天国纪念馆正式更名为"太平天国历史博物馆"。

11) 罗尔纲著：《困学丛书》下册，南宁：广西人民出版社，1989，第617~618页。

12) 国家文化部批文抄件藏太平天国历史博物馆。

13) 国家文化部批文抄件藏太平天国历史博物馆。

2) 博物馆的建设与发展

作为国家设立的中国唯一的太平天国史专题博物馆，该馆自成立之日起，就积极围绕太平天国历史陈列、文物收藏、史料搜集、学术研究诸方面展开工作，56年来取得了令人瞩目的成绩。

(1) 陈列展览

陈列展览是博物馆发挥教育功能，服务社会大众的主要途径，也是博物馆学术水平和综合能力的集中体现。该馆常年举办的“太平天国历史陈列”是中国最专业、最系统、最丰富的太平天国通史和专题陈列，一般每隔8~10年进行一次大的改造，除了展览内容不断充实、调整外，陈列形式也注意与时俱进，力求内容与形式的和谐统一，全面提升展览品位，让观众在参观过程中接受教育，了解历史。2000年为纪念太平天国起义150周年而进行的陈列改造，运用最丰实的文物资料、最权威的研究成果、最新的陈列手段来全面展示太平天国历史及其经验和教训，并一举获得2000年度中国博物馆“十大陈列精品奖”的殊荣。

¹⁴⁾近年来，博物馆年均接待观众都超过了80万人次。

该馆自上世纪八十年代起，在办好本馆常态陈列外，还制作了一套相应规模较小的《太平天国历史陈列》展品，抽出部分人员组成太平天国历史巡回宣讲小分队，赴全国各地巡回展出。这支小分队先后到过北京、天津、沈阳、郑州、西安、武汉、南宁、广州等十多个城市，宣传普及太平天国及中国近代史知识，受到所到之处民众的热烈欢迎，被誉为爱国主义教育可移动的课堂。

近十年来，该馆又立足于南京，以爱国主义教育基地为平台，与一些大、中、小学校以及驻宁部队、居民社区等建立了共建关系。根据不同的共建对象，积极拓展社会“第二课堂”，定期为城区的学校、部队、社区“送课上门”，为农村的孩子“送展下乡”，足迹遍及南京三区两县近四十个乡镇，宣讲太平天国和中国近代史，进行素质教育，让数十万青年、学生、居民和农村孩子受益。

(2) 文物收藏

太平天国失败后，其“汗牛充栋”的文献文物遭到清政府毁灭性的损毁，加上太平天国距

14) 参见李文儒主编：《中国博物馆陈列精品图解》(二)，第74~83页，北京：文物出版社，2002。

今已过去了一百多年，历经劫难后留下来的已属凤毛麟角，极为罕见了。抢救性征集太平天国文物便成为该馆工作中的重中之重。

现存太平天国文物大致有四：一是收藏于国外。这些文物主要是由当时的外国外交官、军人、商人、传教士等出于各种原因在与太平天国打交道时所得，尔后带到国外，收藏于各博物馆、图书馆及档案馆中。这类太平天国文物只能征集到照片。二是收藏于国内各档案馆、图书馆、博物馆。这些文物主要是当年太平军与清军作战时被缴获，作为证物上呈清廷存于档案之中而留下来的；亦有民国年间从民间发现后被博物馆、图书馆收藏的。这类太平天国文物也只能征集到照片。三是因各种偶然因素散落于民间的。这类文物是该馆鉴定征集的重点。四是现存的太平天国遗址、遗迹。56年来，该馆通过不同渠道从全国各地的民间陆续鉴定征集了一大批太平天国文物真品。其中有堪称国宝级的太平天国绣龙黄缎马褂，太平天国《钦定士阶条例》、《钦定军次实录》、《钦定英杰归真》原刻本，太平天国各级官员发布的告示，以及太平天国官印、田凭(土地证)、商凭(营业执照)、征粮征银公据、钱币、门牌、缙丝织品、铜铁炮、石刻、年画等数千件(套)。又调查发现了太平天国天官正丞相曾水源墓和南京堂子街、如意里、罗廊巷、黄泥岗、竺桥等太平天国壁画遗址。调查拍摄了包括天保城、地保城、仪凤门、神策门、太平门、七桥瓮等在内的诸多太平天国重要遗迹。尤其是随着岁月的流逝，有些太平天国文物、遗址、遗迹由于自然或人为等种种因素造成损坏或灭失，使得当年拍摄的该文物、遗址、遗迹的照片更显得弥足珍贵。这些照片在陈列展示、学术研究等方面发挥了无可替代的作用。

为了弥补现存太平天国文物的不足，该馆还把征集的视野扩大到清方的文物文献上。争取到国家调拨的原清苏松太道、署理江苏布政使吴煦的原始档案数十箱，1000多万字。先后征集了曾国藩、李鸿章、左宗棠等一批清方重要官员的档案、函札、禀牍、手稿及大清宝钞、户部官票、功牌、奖牌等文献文物，用于陈列和研究。

(3) 史料搜集

太平天国史料搜集包括两个方面，一是太平天国文献，二是清方记载的资料。太平天国文献有原件和抄件两种，原件属文物，这里讲的太平天国文献主要指抄件。抄件一般是由于某种原因依据原件抄录的副件或传抄件，在找不到原件的情况下，抄件的价值也很高。清方资料的范围很广，诸如谕旨、奏议、官书、公私档案、函牍、著作、传记、野史笔记、年谱、诗文、方志、图说、报刊等等都列其中。该馆在史料搜集上主要采取了三条途径：一是面向全国广泛征集；二是到当年太平天国统辖时间最长的江苏、安徽、浙江三省重点搜访；三是到南京图书馆颐和路、龙蟠里书库以及苏南地区文保单位书库里摸底抄录。通过这三条途径钩沉索隐，披沙拣金，共搜集太平天国史料1500多万字。

(4) 学术研究与出版

大量太平天国文物、史料征集抄录后,该馆按类进行了编纂。第一类为太平天国文献,第二类为清方资料。前者是将当时所能见到的太平天国印书、文书、文物和艺术原件,经过严格鉴定编成《太平天国文献四集》;后者是将搜集到的1500多万字的清方资料经过筛选,选出其中史料价值较高的800多万字编成《太平天国资料汇编》,余下的400多万字史料则编成《太平天国参考资料》,供来馆查阅资料的学者使用。

《太平天国文献四集》第一集《太平天国印书》,收官书42部,按其刻印年份之先后编次,1961年影印出版。为方便研究者使用,后又将其改为简体字横排本再版。第二集《太平天国文书》,收文书114件,分为诏旨、布告、下行公文、禀报、外交文书和其他六部分,1991年影印出版。需要说明的是,该集所收文书为广义上的文书,即太平天国文献除印书、文物、艺术之外一切书面文件的原件,都作为文书收入其中。另有一定数量的太平天国文书抄件没有收入。1979年该馆将所能搜集到的太平天国文书,包括原件和抄件计418件,分为诏旨、布告、公文、外事及与外人文书、论序、兵册馆衙名册和家册、门牌名册、簿记、油盐口粮挥条、其它等十卷及附录,编成《太平天国文书汇编》出版,以满足学界研究之需。第三集《太平天国文物》,收文物168件,分为经济、政治、军事和其他四部分,1992年影印出版。第四集《太平天国艺术》,收艺术198件,分为壁画、彩画、板画、雕刻和缂丝·刺绣五部分,1959年影印出版。1994该馆又编纂了《太平天国艺术》增补本,收艺术370件,分壁画、板画(新增印书封面图案和文书、文物边饰图案)、彩画、雕刻、缂丝·刺绣和书法·印章六部分,影印再版。《太平天国文献四集》的出版,是迄今为止国内外收集太平天国文献文物最全面、最权威、最有价值的集大成者,是从事太平天国史研究的专家学者案头必备之工具书,也为太平天国文献文物鉴定提供了标准的参照物。

《太平天国资料汇编》编成后多至800多万字,卷帙浩繁,出版费时耗力,周期也长。该馆与出版社协商后,决定从中抽出未刊和罕见的重要资料180万字,先行编成《太平天国史料丛编简辑》六册,1961年陆续出版。该六册书与中国史学会主编的《中国近代史资料丛刊——太平天国》八卷本,并列为研究太平天国史最基本的资料。

1959年国家文化部调拨该馆收藏的吴煦档案,时间上至乾隆中期,下至民国,内容极其庞杂。其主要有上海小刀会起义、太平天国战争、第二次鸦片战争和江浙地区经济资料等,多为第一手的原始档案。该馆从总数1000多万字的档案中筛选出200多万字,分为太平天国资料、会党活动及农民抗漕斗争资料、中外交涉及资本主义列强侵华资料、清政府财政经济资料等四部分,编成《吴煦档案选编》七辑,1983年出版。由于史料价值高,

倍受学界关注。

此外,该馆学者还先后编著出版了《太平天国天京图说集》、《清咸同年间名人函札》、《天国春秋——太平天国历史图录》、《太平天国文化》、《太平天国王府》、《太平天国博物志》、《太平天国史新论》和《太平天国壁画全集》等资料书籍和学术专著40余部,发表学术论文400余篇。

(5) 合作交流

该馆与国内研究太平天国史的专家学者建立了良好的合作关系,先后聘请一批知名教授为特约研究员,定期或不定期举办学术讲座,进行学术交流。长期以来,该馆利用馆藏丰富的文物史料资源,为全国各地的学者进行学术研究提供文物档案史料查阅、检索的便利,不少在国内外享有盛誉的专家与博物馆结下了深厚的情谊。

该馆还接待来自英、日、美、澳、德、俄等国以及中国香港、台湾等地区学者的访问讲学,接受文物文献捐赠,互赠研究成果。1979年英国柯文南博士捐赠了参加太平军,并在常州阵亡的英国人史密斯的日记原件。1981年澳大利亚堪培拉国立图书馆亚洲部主任赠送了该馆收藏的太平天国《新遗诏圣书》复印本。1989年日本小岛晋治教授也转赠了他在台北故宫博物院复印的太平天国幼天王洪天贵福和干王洪仁玕的亲笔供词等珍贵资料。2004年该馆又与韩国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及全州博物馆建立了联系,并进行互访。中国太平天国农民起义和韩国东学农民革命都是东亚民众运动史上的重大事件,也是亚洲民族独立运动的重要组成部分。认真研究和总结那段历史,是中韩史学工作者的责任,加强彼此间的交流,显然对学术研究有益。

(6) 经济增收

该馆馆址瞻园,是南京现存唯一的明清古典园林,素有“金陵第一园”之美誉。其原为明初中山王徐达府邸一部分,嘉靖初年始筑园,清代为布政使司衙署,乾隆皇帝南巡曾驻蹕斯园,太平天国时期先后做过东王府和幼西王府。现为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和5A级景区。

由于该馆是馆、园结合的博物馆,既有全国最系统的太平天国历史陈列,又有景致秀丽的古典园林风光,每年吸引数十万中外观众游客。近十年来,该馆又与旅游部门通力合作,推出太平天国与瞻园王府文化展演项目,着力打造太平天国文化和瞻园王府文化品牌,收到了很好的社会效益和经济效益。近年来的年均门票收入约有人民币500万元,加上博物馆新开发的临街商业门面房的租赁收入100多万,两项合为600多万元。在国家财政拨款

之外增加的这600多万元资金，有力地支撑了博物馆事业的可持续发展。

如今，太平天国历史博物馆已经走过了56年历程。56年来收藏的太平天国文物、资料数量之多、种类之全，在中国首屈一指。现收藏太平天国文物档案4000余件(套)，保存的各类太平天国文物、遗址、遗迹底片资料10000余张；收藏清政府及曾国藩等重要人物的原始档案、函札2000余卷宗1500余万字，收藏国家档案馆藏清政府镇压太平天国全宗档案缩微胶卷80多盘约2000多万字，收藏清咸同以来各时期刻印、出版有关太平天国史的刻本、图书6000余册，抄录各类记述太平天国史事的稿本、刻本和抄本史料1400余万字，形成了文物文献资料类型丰富、特色鲜明的藏品体系。经过多次调整改造推出的《太平天国历史陈列》，全面系统地展示了太平天国18年来从揭竿而起到最后失败的历史过程，成为对人民群众进行中国近代史和爱国主义传统教育的生动课堂。该馆学者编著出版的太平天国及中国近代史资料书籍和学术专著40余部约1000余万字，发表学术论文400余篇约200万字，从而确立了该馆作为太平天国及中国近代史研究基地的重要地位。经过50多年的不懈努力，该馆在陈列展览、文物收藏、资料出版、学术研究、学术交流合作和爱国主义教育基地建设诸方面都取得了丰硕的成果，已成为公认的太平天国文物、资料、陈列、信息和研究中心。

3. 学界研究与各地纪念

1) 学术成果丰硕

清政府退出历史舞台后，随着一批批收藏在国内外的太平天国文献文物的出版公布，太平天国史研究逐渐引起学界的关注。尤其是新中国成立以来，太平天国史研究受到高度重视，学术界出现了一股太平天国研究热，从事这项研究的学者之多，成果之丰硕，在中国史学研究领域里实属罕见，被称为“显学”。¹⁵⁾在这几十年里，整理公布了大量太平天国档案史料，围绕着太平天国革命性质、制度政策、人物评价等一系列学术问题展开讨论，百家争鸣，论文繁多，还出版了不少高质量的学术专著，显著提高了太平天国史学研究的整体水平。

15) 参见茅家琦主编：《太平天国通史》导言，南京：南京大学出版社，1991。

2) 学术研究社团

1979年在南京召开的太平天国史国际学术研讨会，是新中国成立以来史学界规格最高的一次学术盛会，影响深远。这次会议后，北京、南京、广西、广东、上海、浙江、安徽、四川和重庆等省市自治区先后成立了地区性的太平天国史学会一类的学术社团，以加强全国太平天国史学界的沟通互动，由此掀起了持续十多年的太平天国史理性研究的新高潮。并形成每三年一小会，五年一中会，十年一大会的各地轮流召开太平天国学术研讨会的惯例，集全国太史学界之力，围绕相关话题集中探讨，从而大大扩大了影响，推进了太平天国史学研究的深入发展。1989年11月，经国家民政部批准，正式成立了全国性的学术社团——中国太平天国史研究会，标志着这一领域的学术研究进入了一个新阶段。

3) 各地的纪念

新中国成立以来，在当年太平天国活动过的区域内，陆续发现了一些太平天国的遗址遗迹，其中有重要文物价值和历史价值的多被各级政府列为文物保护单位。如广西桂平的金田起义遗址、广西蒙山的永安建制遗址、江苏南京的太平天国天朝宫殿遗址、堂子街太平天国壁画遗址、江苏苏州的忠王府遗址、江苏宜兴的太平天国衙署遗址、浙江金华的侍王府遗址、浙江绍兴的太平天国壁画遗址、安徽安庆的英王府遗址和安徽绩溪的太平天国壁画遗址等等。这些被保护起来的遗址遗迹，一般都陈列有与之相关的太平天国历史展览，或是作为当地太平天国的纪念基地，定期对外开放，让民众特别是青少年接受教育，牢记历史，缅怀前贤，热爱祖国。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광환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 이사장

-
1. 시작하는 말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연원과 현황
 3.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의 활동과 현황
 4. 맺는 말
-

1. 시작하는 말

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비록 좌절되었지만 조선 후기 농민항쟁을 통해 성장한 농민대중이 스스로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자각하여 낡은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이래 그에 대한 평가는 한국근현대사의 격랑과 혼동 속에서 수차례의 굴곡을 거쳐 왔다.

이러한 시대적 굴곡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 또한 사건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역사인식의 차이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해왔으며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도 지금껏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의미가 투사되며 이루어져 왔다.

본 발표문은 지난 백여 년 간 시대별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전시시설 현황과 전시·기념사업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이뤄진 국가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학농민혁명관련 민간 기념사업 단체들의 활동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연원과 현황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단계별 현황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1단계(1894~1910)

이 시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은 관(官)이나 반농민군(反農民軍) 후손이 주도하였고, 목적도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 반농민군 측의 순절과 충의를 기리는 데 있었다.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반대와 일제 침략에 저항한 의미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기념물의 양식도 모두 망자를 제사 지내는 단(壇)이나 특정인의 활동상을 기록한 비석 등 전통적인 것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몇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흥의 영회당(永懷堂) 건립과 수성장졸순절비(守城將卒殉節碑)를 들 수 있는데 동학농민군을 완전히 진압한 후 조선 정부는 박헌양(朴憲陽)과 함께 죽은 수성장졸(守城將卒)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고종(高宗)은 영회당을 사액하고 순절비를 건립하였다.

이 비의 전면에는 「광서(光緒) 20년(年) 갑오동란(甲午東亂) 수성장졸(守城將卒) 순절비(殉節碑)」란 비명(碑銘)아래 부사 박헌양과 함께 순절한 장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기우만(奇宇萬)이 찬양한 박헌양의 공적에 관한 글이 새겨져 있다.

전남 나주시 과원동(果院洞)에 있는 금성토평비(金星討平碑)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과 싸워 나주성을 수성(守城)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95년에 세웠다. 본래는 나주목(羅州牧) 내의 정수루(正綏樓) 앞에 세워졌으나 1930년에 금성관(錦城館) 앞으로 옮겼고, 1976년에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비문(碑文)의 내용은 먼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나주에까지 농민농민군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민중열 목사가 여러 장수들을 지휘, 치밀한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끝으로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나주목 내에서 직접 접전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 서림 숲에 세워진 갑오토비사적비(甲午討匪事蹟碑)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 동학농민군이 운봉으로 진출을 하려하자 박봉양(朴鳳陽)이 운봉의 민보군과 함양 등지에서 보내온 지원병과 합세하여 방어치와 관음치 전투에서 격퇴시켜 운봉을 지킨 공로로 문중에서 세운 사적비이다.

본래 비의 위치는 운봉초등학교 교문 앞 민가에 있었으나 어느 때가 현 위치에 옮겨 방치하다가 1993년 경 비석의 좌대를 새로 만들어 세웠다. 건립 연대는 비문이 훼손되어 해독할 수 없으며 좌대에 박봉양 장군비(將軍碑)라 새겨져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갑오토비사적비인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慕忠洞)에 있는 모충사(慕忠祠)는 1894년 당시 대전 방면에서 집결한 동학군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충청병영(忠淸兵營)의 영관(領官) 염도희(廉道希)가 70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진하였다가 청원군 강외면 지역에서 모두 전몰하였다.

이들 장졸들의 순절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1894년 11월 전임목사 임택호(任澤鎬)가 모충단(慕忠壇)을 설치하였다. 1903년 당산(堂山)에 단(壇)을 쌓고 제사하였으며, 그 뒤 갑오전망기념비각(甲午戰亡紀念碑閣)도 건립하였다.

그 뒤 모충계(慕忠契)가 조직되어 1914년 가을에 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당산공원에 사당을 건립하였다.

일제가 당산을 신사(神社)터로 삼게 되자 다시 1923년에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고당마에 옮겨지게 되었으며, 1975년에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경내에 동학농민군 초토사(招討使)였던 홍재희(洪在義)의 사적비가 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독배마을의 남쪽 끝에는 광천 옛 장터에서 옮겨온 ‘증군무참의김공병돈유공지비(贈軍務參議金公秉墩有功之碑)’라고 새겨진 ‘보부상감의비



〈금성토평비(錦城討平碑)〉
전남 나주시



〈갑오토비사적비(甲午討匪事蹟碑)〉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갑오전망장졸기념비>
충북 청주시 흥덕구

(裸負商感義碑)가 서 있다. 이 비는 부보상들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광천 등지에서 전공을 세우고 신례원에서 전사한 부상(負商) 출신이었던 중군 김병돈의 공을 기리기 위해 1896년에 세운 것이다.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 병참부(兵站部)가 있던 곳이다. 그곳에 일본군 위령비 2기가 세워졌는데 그 중 하나는 비석에 새긴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석 바위를 깎아 새긴 비이다. 두 비는 모두 1894년 양력 12월에 새겼으며 그 당시 일본군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위령비는 1996년에 주민들에 의해 훼손되었는데, 비석은 현재 밑 부분이 잘린 상태에서 충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비석의 현재 모습과 새긴 글씨는 아래와 같다. 현재 이 비석 크기는 가로 56cm, 세로 90cm, 너비 12.5cm인데, 하단부 일부가 잘리어 나갔다.



충주 가흥 일본군 위령비 비문

大日本帝國
勇士 南海爲三郎 君之碑
明治二十七年十二月有志建之



충주 가흥 일본군 위령비 2 비문 2

大日本帝國
清水正瑞
新谷?舍 君之碑
掘田源太郎
明治二十七年十二月有志建之

또 다른 하나의 위령비는 일본군 병참부가 위치했던 곳의 언덕 위에 솟은 바위를 깎아 낸 뒤 새겼다. 위령비문은 바위를 깎아 새겼는데, 가로 55cm, 세로 107cm이다. 비문은 현재 주민들에 의해 훼손되어 전혀 판독이 되지 않으나, 훼손되기 이전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3행 세로로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 용사(勇士) 남해위삼랑(南海爲三郎) 군지비(君之碑) 명치이십칠년십이월유지건지(明治二十七年十二月有志建之)”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바위 글씨 상태와 원문은 위와 같다.¹⁾

1) 이 지면을 빌어 귀중한 사진과 자료를 제공해주신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양식 사무처장께 감사드립니다.

〈표1〉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²⁾

기념물	장소	건립연도
일본군위령비(日本軍慰靈碑) 1	충북 충주시 가금면	1894
일본군위령비(日本軍慰靈碑) 2	충북 충주시 가금면 (충주대 박물관)	1894
장충단(獎忠壇)	서울 성동구 장충동	1895
초토사이공승후청덕비 (招討使李公承侯淸德碑)	충남 아산군 도고면	1895
관찰사박공제순애민선정비 (觀察使朴公齊純愛民善政碑)	충남 홍성군 갈산면	1895
행목사겸초토사이공승후백세불망비 (行牧使兼招討使李公承侯百歲不忘碑)	충남 홍성군 광천읍	1895
초토사이공비(招討使李公碑)	충남 서산군 고북면	1895
금성토평비(錦城討平碑)	전남 나주시 과원동	1895
유회장유학박순식저덕비 (儒會將幼學朴순식著德碑)	충남 서산군 해미면	1896
증군무참의김공병돈유공지비 (贈軍務參議金公秉墩有功之碑)	충남 홍성군 광천읍	1895
증군무참의김공병돈충절전망비 (贈軍務參議金公秉墩忠節戰亡碑)	충남 서산군 해미면	1896
의사한기경정려비(義士韓基慶旌閭碑)	충남 홍성군 홍성읍	1896
증좌승지이공학승순의비 (贈左承旨李公學承殉義碑)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1897
영회당(永懷堂)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898
광서이십년갑오동학란수성장졸순절비 (光緒二十年甲午東學亂守城將卒殉節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899
벽사도찰방김후일원청사복성불망비 (碧沙道察訪金侯日遠請師復城不忘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1900
흥룡단(興龍壇)	전남 장흥군 부산면	1901
공조참의정숙조순의비문 (工曹參議鄭嗣朝殉義碑文)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1902

2)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51, 1997.

기념물	장소	건립연도
군관정지환순의비문(軍官鄭志煥殉義碑文)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1902
모충단(慕忠壇)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904
갑오토비사적비 [甲午討匪事績碑, 박봉양비(朴鳳陽碑)]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갑오전망장졸기념비(각) [甲午戰亡將卒紀念碑(閣)]	충북 청주시 당산	1905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2단계(1910~1945)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각종 기념행위나 기념물들을 억압하고 파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암흑기속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은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었다. 박은식(朴殷植)은 우리나라 평민(平民)의 혁명이란 표현을 썼으며, 김상기(金庠基)는 민중의 혁명사상이 나타난 조선민중운동사상에 일대 선구를 이룬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비록 동학란이라는 용어사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지라도, 폄하된 인식을 깨고 민중 혁명 운동의 선구로 평가한 것은 큰 진전이었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태동과는 달리 이 시기에 조성된 동학관련 기념물은 거의 없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기념물은 충남 홍주군 홍주향교 앞에 ‘칠의비(七義碑)’를 들 수 있는데 이는 1894년 10월 28일 밤 홍주향교를 지키다 동학농민군에게 죽은 7명의 유생들의 순절을 칭송하기 위해 1912년 지방유림이 주도하여 건립하였다.

(3)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3단계(1945~1950년대)

해방 이후 50년대 후반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는 사회주의계열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청원의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의”(《역사계문제》, 1948), 전석담의 “이조 봉건사회의 총결로서의 동학농민란”(《조선경제사》, 1949)이 이 시기의 대표적 논문이다. 이청원이 사용한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북한학계의 ‘1894년 사건’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첫 번째 기념행사는 천도교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해방 후인 1947년에 북한 평북 구성군(龜城郡)에서 시작되었다. 이때의 기념일은 『천도교창건사

『天道敎創建史』에 따라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난 1월 1일로 잡았다.

한편 남한에서는 천도교 차원으로 1955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행사를 부활시켜 보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이 극도로 대치하는 상황 이어서 여의치 않게 되자 보류해오다가 마침내 1961년 3월 21일(양)을 기해 동학농민 혁명기념 행사를 부활시켰다.

이 시기에 건립된 기념물은 현재 정읍시 이평면 장내 리 조소마을에 있는 ‘갑오민주창의통수(甲午民主倡義統帥) 천안전공봉준지단(天安全公琿準之壇)’이라고 새겨진 단비(壇碑)가 유일하다. 천안 전씨 종친들에 의하여 전 봉준 장군의 위국 혼을 모시려고 1954년 11월 15일 지금의 전북 정읍시 이평면에서 국내 최초로 소박한 5척 남짓한 갑오민주창의통수(甲午民主倡義統帥) 천안전공봉준지단(天安全公琿準之壇)을 건립하고 추도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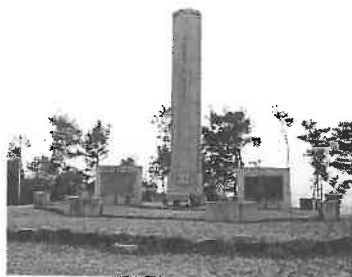


휴전이 이뤄진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어려운 형편 속 <천안전공봉준지단> 전북 정읍시에서도 당시 천안 전씨 문중에서는 쌀 한줌 모으기 운동을 하여 백미 백여 가마를 각출 하여 단을 세운 것이다.

(4)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4단계(1960~1980년대)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4·19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히는 신동엽(申東曄)의 서사시 ‘금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는 1963년 정읍 황토현(黃土峴)에 ‘동학혁명기념탑(東學革命紀念塔)’을 건립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전북일보 기자 이치백씨가 서울대 역사학과 김상기 박사를 취재하면서 ‘동학혁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북 정읍시 황토현

명기념탑’ 건립얘기가 나왔고 그 결과 가람 이병기 선생을 건립위원장으로 선출, 마침내 1963년 10월 3일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甲午東學革命紀念塔)’이 세

워지게 되었다.

이 탑의 건립은 이때까지만 해도 동학란으로 불려진 이 사건이 ‘혁명’으로 격상되는 계기를 가져왔을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전국 각 동학전적지에 농민군 후손이나 천도교 측에서 적극 나서 기념탑 등 조형물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황토현에 건립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을 위한 재정은 주로 각계의 성금을 통해 마련했지만 당시 형식적이거나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략적 계산에 따라 공화당에서 일부 성금을 냈으며 1963년 10월 3일 개막식 행사에 박정희가 참석하여 기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기념탑이 박정희정권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임을 이 기회를 통해 밝혀둔다.



〈동학혁명모의탑〉
전북 정읍시 고부면

사발통문(沙鉢通文)이 발견된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에는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들에 의해 ‘동학혁명모의탑(東學革命謀議塔)’이 건립되었다. 현재 널리 알려진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에 고부 송두호(宋斗浩)의 집에서 전봉준·최경선(崔景善) 등 20명이 결의사항과 함께 사발모양으로 등글게 서명된 문서로서 1968년 12월 4일 신중리에 거주하는 송기태씨가 신문에 발표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발견자 송기태는 내용의 중요함을 알고 통문에 서명한 20인의 후손을 찾아 기념사업을 벌이기로 하여 마침내 동학혁명모의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손들이 쌀 1가마씩 거출하여 1969년 12월 1일에 모의탑을 세웠다.



〈만석보유지비〉
전북 정읍시 이평면

이 시기에는 전국 유일한 동학관련단체인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의 활동이 단연 돋보였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이 뜻대로 이루어지자 정읍을 중심으로 1967년 30여명의 민간인이 모여 최초의 동학관련단체인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이듬해부터 기념제를 개최하였다. 기념제 성공에 고무된 사업회의 활동은 만석보유지비(萬石淤遺址碑) 건립(1973. 5. 11)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쳐 충남 공주 우금치 고개에 1973년 11월 11일에 동학혁명군위령탑(東學革命軍慰靈塔)이 세워졌다. 공주 사람 이창덕

의 주선으로 동학혁명군위령탑건립위원회가 마련되고, 공주시민과 천도교 교인들이 건립비용을 모금했다. '동학혁명군위령탑'이라는 휘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으며, 비문에 '동학혁명'이 5.16과 유신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새겼다.



〈동학혁명군위령탑〉 충남 공주시



〈동학혁명군위령탑〉 강원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풍암리 자작고개는 차기석(車箕錫)이 이끄는 동학군이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800여명이 전사한 강원도 최대 최후의 전적지다. 그래서 이곳에는 800여명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후손들과 지역민들이 모금한 성금과 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 1977년에 동학혁명군위령탑(東學革命軍慰靈塔)을 건립했다. 또한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지역민 23명의 기일인 10월23일을 기해 매년 동학혁명군 희생자 추념식을 가져왔다.

〈표2〉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기념물	장소	건립연도
갑오동학혁명기념탑(甲午東學革命紀念塔)	전북 정읍시 덕천면	1963
의암손병희동상(義菴孫秉熙銅像)	서울 파고다 공원	1966
동학혁명모의탑(東學革命謀議塔)	전북 정읍시 고부면	1969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	전북 정읍시 이평면	1973
동학농민군위령탑(東學農民軍慰靈塔)	충남 공주시 금학동	1973
동학혁명위령탑(東學革命慰靈塔)	강원 홍천군 풍암리	1977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	충남 태안군 태안읍	1978
해월최시형동상(海月崔時亨銅像)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	1979

(5)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5단계(1980년대)

박명규는 그의 논문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에서 이 시기 기념사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학농민전쟁이 지역적 정체성의 강화와 강하게 연계된 곳은 아무래도 이 사건이 발발했던 전북지방이었다. 일찍부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고 80년 관에 의해 강제로 해산 당했던 정읍의 기념사업회는 고부봉기와 황토현의 전투를 강조하면서 동학농민전쟁을 정읍의 지역적 정체성과 결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였다

정읍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1967년 12월 전북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이듬해인 1968년부터 매년 기념제를 개최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80년 5월 11일 제13회 기념제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학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정의한 뒤,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은 3.1운동과 4.19혁명이고, 현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의를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서울의 봄을 구가하던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야망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대변한 것으로서, 과거 박정희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한 거부였고 신군부의 집권행보에 맞선 것이었다.

결국 신군부세력은 이 일을 구실삼아 기념사업회 이회우 회장과 당시 정읍군수, 내무과장 등을 구속하였고 일주일 후인 5월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연행당하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광주에서는 시민항쟁이 전개되었으나 신군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암흑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980년 12월 1일 기념사업회도 강제로 해체당하고야 말았다.

회원들은 황토현기념관(黃土峴紀念館) 건립추진계획을 내세워 해체의 부당함을 항변했으나, 황토현 사업을 관(官)에서 맡아서 추진하겠다는 회유와 압박으로 결국 해체되고 만 것이다.

이후 기념제와 황토현 선양사업은 관변사업으로 이관되었고 황토현기념관은 국민을 짓밟고 올라선 전두환의 손으로 건립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황토현기념관〉 전북 정읍시 덕천면

펼쳐졌다.

기념사업회를 해체한 신 군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한편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함과 동시에 지역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에 나섰다.

1981년 전두환은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뒤 정읍에 들러 당시 정읍군수실에서 지역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전봉준은 우리 전(全)씨이기도 하며 위대한 군인이었다”라며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의해 1983년 12월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황토현 동남쪽 기슭에 황토현기념관이 자리하게 되었다.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에 있는 전봉준(全琫準) 선생(先生) 고택지(古宅址)는 1981년 11월 28일 사적 제293호로 지정되었는데 이 건물은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당시 거주하였던 집으로 안핵사(按察使) 이용태(李容泰)에 의해 불타버렸다고 한다. 당시 정읍군에서 1974년에 국비와 군비로 크게 수리한 집으로 정면 4칸, 측면 1칸의 안채로 세



〈전봉준선생 고택지〉 정읍시 이평면

워졌다. 1974년에 보수를 하면서 해체작업을 하는 중에 밝혀진 상량문에 “무인(戊寅) 2월 26일(1878)” 세운 것으로 되었으니 어쩌면 전부 타지는 않고 남아 있는 폐옥을 보수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구대접주(金溝大接主) 김덕명추모비(金德明追慕碑)는 1987년에 김제시 금산면 학수재에 건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같은 장소에 위령각이 세워졌고, 매해 10월 15일에 김덕명과 무명농민군을 비롯한 애국지사 추모위령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전북 부안 백산의 정상에는 1989년 11월에 동학혁명백산기념사업회가 건립한 ‘동학혁명백산창의비(東學革命白山倡義碑)’가 서 있다. 백산은 해발 47미터 정도의 야트막한 야산으로 1894년 3월 21일(25일 설도 있음)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들로써 본격적인 농민군 부대를 편성하고 호남창의 대장소의 이름으로 격문과 농민군 행동강령을 발



〈김덕명장군추모비〉
전북 김제시 금산면



〈동학혁명백산창의비〉
전북 부안군 백산면

표했던 곳이다.

임실군 운암면 운암초등학교 앞에 있는 갑오동학혁명기념비(甲午東學革命紀念碑)는 천도교와 임실지역 동학군 후손들에 의해 임실지역의 동학농민혁명, 3.1 만세운동, 무인멸왜운동(戊寅滅倭運動, 1936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3년에 동시에 건립되었다. 중앙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좌우에는 기미삼일운동기념비와 무인멸왜운동기념비가 나란히 서있다.

서로 다른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기념비들은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동학농민군이었던 최승우, 김영원, 한영태 등이 임실 일대에서 봉기를 일으켜 남원에 나아가 활동하였다. 갑오년 11월 남원성 전투에서 패전하자 이들은 임실로 돌아와 순창 회문산으로 몸을 피했다.

그 후 이들은 3.1운동과 무인멸왜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동학농민혁명 이후 농민군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며,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역사적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3〉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기념물	장소	건립연도
전봉준선생고택(全琿準先生古宅)	전북 정읍시 이평면	1981
황토현전적지(黃土峴戰蹟址)	전북 정읍시 덕천면	1981
전봉준선생상(全琿準先生像)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1981
전봉준장군동상(全琿準將軍銅像)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1981
갑오동학혁명기념비(甲午東學革命紀念碑)	전북 임실군 운암면	1983
춘암상사박인호유허지(春庵上師朴寅浩遺墟碑)	충남 예산군 삼교읍	1985
의암손병희어록비(義菴孫秉熙語錄碑)	충남 청원군 북이면	1986
구민사(求民祠)	전북 정읍시 덕면천	1987
김덕명묘역(金德明墓域)	전북 김제시 금산면	1987
동학혁명백산창의비(東學革命白山倡義碑)	전북 부안군 백산면	1989

(6)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6단계(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작과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이 겹친 1990년대에는 인식의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 졌다. 특히 백주년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을 대중화시켰으며 그 동안의 기념사업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내적, 외적인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항쟁정신을 현재에 계승코자 했던 일반 대중이 기념사업의 주체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반란군이 아닌 혁명군이란 역사인식의 전환에 따라 전북 특히 정읍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이 백주년을 기해 전국각지로 확산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전북 여러 지역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된 전국 주요 도시에 기념사업단체가 잇따라 조직되었다.³⁾

1980년 이후 관(官) 주도의 기념사업이 전개되던 정읍에서도 순수 민간단체로 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1993년에 재창설되었으며 같은 해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백주년 행사를 위해 1992년 전주에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를 창립한 것을 필두로 경남 진주와 경북 상주, 예천, 전북 부안, 완주, 고창, 광주·전남, 충남 공주, 태안 등에서 기념사업 단체들이 잇따라 창립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1989년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에 즈음하여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혁명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활동이 준비되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처럼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념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개 지역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마침내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를 결성하였고 백주년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첫 번째 행사는 전북 정읍에서 ‘고부봉기 역사맞이곳’으로 정하였다. 100년 전 그때, 고부 농민 봉기일에 맞춰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이뤄졌다. 두 번째 행사로는 4월29일과 30일에 전북 전주에서 진행한 백주년 기념대회였다. 세 번째로는 10월29일과 30일에 충남 공주에서 ‘우금티 순국영령 추모예술제’였다.

한편 백주년 행사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각종 기념물들이 만들어졌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기본계획』, 1999. p.20.

〈표4〉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기념물	장소	건립연도
해월신사추모비(海月神師追慕碑)	강원 원주시 호저면	1990
구민사[求民祠, 황토현사우(黃土峴祠宇)]	전북 정읍시 덕천면	1991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東學農民軍全州入城碑)	전북 전주시 다가공원	1991
동학농민혁명기념탑(東學農民革命紀念塔)	전남 장흥군	1992
김개남장군추모비(金開南將軍追慕碑)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1993
해월신사독공지비(海月神師篤工地碑)	강원 정선군 고한읍	1993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無名東學農民軍慰靈塔)	전북 정읍시 고부면	1994
무장창의포고비(茂長倡義布告碑)	전북 고창군 공음면	1994
동학혁명군위령탑(東學革命軍慰靈塔)	경남 하동군 고승당산	1995
장성황룡촌기념탑(長城黃龍村紀念塔)	전남 장성군	1995
원주최시형체포지기념비(原州崔時亨逮捕地紀念碑)	강원 원주시	1995
보은취회기념비(報恩聚會紀念碑)	충남 보은군	1995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東學革命百週年紀念館)	전북 전주시 풍남동	1996
상주동학농민기념상(尙州東學農民紀念像)	경북 상주시	1996
동학농민군지도자전기항의사추모비 (東學農民軍指導者全基恒義士追慕碑)	경북 예천군	1997
손화중추모비(孫華仲追慕碑)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1998
동학농민혁명삼례봉기비(東學農民革命參禮蜂起碑)	전북 완주군 삼례읍	1996
손화중장군묘역(孫華仲將軍墓域)	전북 정읍시 상평동	1996
동학군영술장최경선지묘(東學軍領率將崔景善之墓)	전북 정읍시 칠보면	1996
김개남장군묘역(金開南將軍墓域)	전북 정읍시 산외면	1995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탑 (甲午東學革命百週年紀念塔)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1997
동학농민혁명대둔산항쟁전적지 (東學農民革命大菴山抗爭戰績碑)	전북 완주군 대둔산	1998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報恩東學農民革命紀念) 장승 4기	충북 보은군 보은읍	1999
동학농민혁명재기포기념비 (東學農民革命再起包紀念碑)	충북 옥천군 청산면	1997

그 중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송골에 있는 해월신사(海月神師) 추모비(追慕碑)는 원주를 터전으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장일순 선생의 제안으로 '치악고미술 동호회'에서 해월 선생이 체포된 곳에 1990년 4월 12일 자그마한 비석을 세우고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아담한 추모비도 세웠다. '모든 이웃의 벗 최보파리 선생님을 기리며'라는 추모비 비문은 장일순 선생이 직접 쓴 것이다.



〈해월신사(海月神師) 추모비〉
강원 원주시

1991년에 건립된 정읍 황토현에 있는 구민사(求民祠, 사우(祠宇))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학농민군 영령을 모시는 제례시설이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무후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원혼이 된 농민군과 그와 관련된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모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건립하여 매년 5월 11일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기해 제례를 지내고 있다.

전북 전주 다가공원(多佳公園)에 있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東學農民軍全州入城碑)는 1991년 8월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영래, 조병희가 글을 지었으며 김윤길씨 썼다고 한다. 동학농민군의 전주城 점령의 의미를 담은 기념물이다.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
전북 전주시 다가공원

전남 장흥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끝나자 관에서 장흥부를 지키다가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부사 박헌양을 비롯한 수성장졸 96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영희단을 세워 해마다 전몰수성장병 기일이면 장흥의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유지들이 모두 모여들어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동학농민혁명백주년에 즈음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가 이뤄지게 되면서 장흥에서도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제껏 역적으로만 알았던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의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관군 후손들과 동학농민군 후손들 양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석대들 전투에서 숨진 동학농민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92년에 충렬리



〈동학혁명기념탑〉 전남 장흥군



〈김개남장군추모비〉 전북 전주시

언덕 위에 동학혁명기념탑(東學革命紀念塔)을 세웠지만, 관군 후손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동안 공식적인 제막식을 가져보지 못했다가 지난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2004년 4월 26일 비로소 기념탑 조성 12년 만에 제막식을 가지게 되었다.

김개남장군추모비(金開南將軍追慕碑)는 1993년 5월 '김개남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란 모임에 의해 전주 덕진공원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강희남 목사가 글은 신영복이 썼다. 동학농민혁명이 지나치게 전봉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3대 거두인 김개남(金開南)과 손화중(孫華仲)에게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건립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같은 장소에 '손화중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란 모임에 의해 손화중추모비가 건립되었는데 최현식 선생의 글에 여태명의 글씨를 썼다. 또 1995년 4월 전북 정읍시 산외

면 동곡리 지금실 윗마을의 옛 집터 옆에 김개남 장군 묘역도 조성되었다. 손화중 장군 묘역도 1996년 후손들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묘역에는 돌테석을 두른 봉분과 제단, 비석이 세워져 있다.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념하여 전북 정읍 고부에 세워진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無名東學農民軍慰靈塔)은 조금 특별한 조형물이다. 동학농민군지도자가 아닌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수 많은 동학농민군의 영혼과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려고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1994년 9월에 조형물을 세웠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민 단체와 뜻 있는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웠으며 조형물 제작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이 맡았다.

중앙 주탑에는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無名東學農民軍慰靈塔)'이라고 이름을 새긴 받침대 위 넓적하게 네모난 화강암 판에는 쓰러진 동료들 일으켜 감싸 안고 죽창 들고 외치는 농민군 모습을 알게 파서 새겼다. 주변에는 작은 화강암으로 32기의 보조탑이 있는데 농민군들이 무기로 썼던 죽창이며 괭이, 낫, 쇠스랑 따위 농기구와 함께 농민군의 머리와 밥그릇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최경선의 묘는 1996년 9월 최경선의 101주기를 맞아 후손들과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관하여 원래 묘지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유해를 이장하고, 묘역을 단장하였다. 호석을 두른 봉분 앞에는 상석과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 영솔장(領率將) 최경선지묘(崔景善之墓)’라 쓰인 비석이 서 있고, 봉분 뒤로는 높이 3m의 직사각형 화강암 조형물 11기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북 정읍시

조형물에는 죽창을 들고 있는 농민군들의 모습이 동일한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름 모를 농민군들의 영혼이 장군을 호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조형물은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역사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상징한다.



〈동학농민군 최경선지묘(崔景善之墓)〉 전북 정읍시

전북 고창에 있는 무장기포지는 당시 고창문화원장이었던 이기화 선생 등의 노력으로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東學農民革命發祥地)라는 비석과 함께 무장창의 포고비(茂長倡義布告碑)가 세워졌다. 그러나 현재 세워져 있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는 명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⁴⁾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황룡전적지에 기념탑이 건립된 것은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이 되던 1994년이다.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1백주년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건립한 이 탑은 농민군과 관군의 전투장면이 부조된 가로 5m, 높이 3m의 기단과 높이 27m, 둘레 2.5m의 죽창모양의 탑신으로 이뤄져 있다. 이후 장성군은 1994년 기념탑과 건립에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전남 장성군

4)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기본계획』, 1999, p.202.

이어 1997년 황룡촌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1998년 이곳을 사적지로 지정했다.



〈동학농민군위령탑〉 경남 하동군

경남 하동 고성산은 지난 1894년 11월 서부 경남에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군과 진주 주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1개 중대와 맞서 치열하게 격전을 벌인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적지로, 동학군 1백86명이 전몰한 역사의 현장이다. 천도교에서 추진한 동학혁명군위령탑(東學革命軍慰靈塔)은 원래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은 1994년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이곳에 고성산성, 임진왜란 전적지 등 경남도지정 기념물로 선정돼있어 건립 허가문제 등으로 1년 뒤인 1995년에 건립 제막식을 갖게 됐다.



〈동학농민혁명삼례봉기기념비〉
전북 완주군 삼례읍

전북 완주 삼례는 1892년 11월 동학교도들 천여 명이 모여 교조신원과 동학교도들에 대한 수탈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던 곳이며, 1894년 9월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반외세 · 반침략을 위한 재봉기를 단행하였던 역사적인 고장이다. 삼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1996년 완주군 삼례읍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전북 전주에 있는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東學革命百週年紀念館)은 1995년 천도교에서 국고보조금과 성금을 가지고 건립하였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270평 규모로 지하에는 기념관사무실과 천도교 사무처가 있으며 1층은 회의실, 2층은 전시실, 3층은 동학문화예술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전시실에는 서지학자 이종학씨가 기증한 동학 관련 자료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상주동학농민기념상(尙州東學農民紀念像)은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1996년 경북대 상주캠퍼스 인근에 회원 회비와 시민 성금 등으로 건립했다.

최현식 선생에 제안으로 건립된 갑오동학혁명 백주년 기념탑은 원래 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유보되었다가 마침내 1997년 5월 11일 황토현전승일을 기해 정읍시가 내장산 진입 우회도로변에 터를 잡고 건립하였다.

전봉준공원에 세워진 이 탑은 전주천 작가의 작품으로 가로 20m, 세로 15m의 화강암 판석 위에 가로세로 3m, 높이 18.94m의 4각 뿔기둥 중앙탑과 좌우에는 지름 0.8m, 높이 11m의 자주색 화강암 원기둥 2기씩 4기를 배치했다.

전북 완주 대둔산 입구에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 전적비’가 서 있다. 금산접주 최공우가 이끈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패한 후 대둔산 미륵바위(715.1m) 정상으로 근거지를 옮겨 저항하다 1895년 1월 24일 후방에서 기습한 일본군을 막지 못해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에서는 이곳에서 희생된 25명의 농민군 영령을 추모하고자 2001년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전적비를 건립하였다.



〈갑오동학혁명백주년기념탑〉
전북 정읍시

(7)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7단계(2000년 ~ 현재)

2000년대에 들어 기념사업과 기념물은 민간주도의 동학관련 단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성되는 경향이 짙었다. 특히 2004년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자 그 동안 무관심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을 다투어 동학농민혁명과 연관된 지역적인 사건을 내세워 상징화함으로써 자기 지방의 정체성을 강화하려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 주도 행사를 지원하기보다는 관주도로 사업이 전개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민간 관련 단체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야말로 지난 과거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미약한 편이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은 그 의의에 공감하면서도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5〉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기념물	장소	건립연도
삼례봉기역사광장(參禮蜂起歷史廣場)	전북 완주군 삼례읍	2002
전봉준장군생가복원(全琫準將軍生家復元)	전북 고창군 당촌마을	2000
전주역사박물관(全州歷史博物館)	전북 전주시 효자동	2002
동학농민혁명포고문조형물 (東學農民革命布告文造形物)	전북 고창군 공음면	2002
자작고개 노래비	강원 홍천군 풍암리	2000
동학농민혁명기념교육관(東學農民革命紀念教育館)	전북 정읍시 덕천면	2004
남원교룡산성은적암기적비 (南原蛟龍山城隱寂庵紀績碑)	전북 남원시 교룡산성	2006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東學農民革命紀念公園)	충북 보은군 성죽리	2007
해월최시형선생피체지원진녀생가 (海月崔時亨先生被逮地元鎮汝生家)	강원 원주시 고산리	2008
동학농민혁명유적지요천표지석 (東學農民革命遺跡地蓼川標識石)	전북 남원시 쌍교동	2007
청주동학농민혁명기념(淸州東學農民革命紀念) 기념(紀念)장승	충북 청주시 분평동	2009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東學農民革命紀念公園)	충북 보은군 보은읍	2006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조형물 (報恩東學農民革命紀念造形物)	충북 보은군 보은읍	2006
동학농민혁명기념탑(東學農民革命紀念塔)	충북 보은군 보은읍	2008
갑오동학농민혁명전적지비 (甲午東學農民革命戰迹地碑)	충북 옥천군 군북면	2009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2차 봉기 터인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2002년 12월 6일 완주군과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노력으로 마련되었다. 이 광장에는 당시 농기구를 든 농민군의 봉기 모습을 형상화한 ‘대동의 장’과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념의 장’, 농민혁명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선양의 장’ 등으로 나뉘어 각각 특성에 맞는 상징물이 들어섰다.



〈삼례봉기 역사광장〉
전북 완주군 삼례

전북 고창군 죽림리 당촌에 전봉준장군 생가 복원사업이 고창군에 의해 추진되어 2001년 3월 19일 완공됐다. 전봉준 장군의 생가는 현재 5칸 겹집으로 지어져 있다. 또 고창군에서는 2002년 4월 25일 고창 무장에 동학농민혁명포고문(東學農民革命布告文)이란 이름으로 조형물을 세웠다.



〈전봉준 생가〉 전북 고창군



〈전주역사박물관〉 전북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은 2002년 5월 24일 개관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2005년 2월까지 수탁 운영하였고, 이후에는 전주문화사랑회가 수탁 운영을 맡았다. 박물관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이다. 특히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는 1996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도하여 일본으로부터 봉환해온 동학농민군 유골이 보관돼 있다.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있는 강원도 홍천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위에는 정두수 작사, 이윤희 작곡의 ‘자작고개’란 노래비가 서있는데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전국 유일한 비로 이 노래는 가수 주현미가 불렀다고 전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김대중 대통령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에 교육관과 전시관등의 건립사업이 추진되어 2004년 건립되었다.⁵⁾ 2009년까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해왔으나 현재는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수법인으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5) 10만평 부지에 건물 1,871평(전시관 2개 층 1,155, 교육관, 강당 등 467), 사업비 393억 (현재 243억 투자), 유물 1,437점.



〈자작고개 노래비〉 강원 홍천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북 정읍시

충북 보은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동학농민군이 1894년 우금티 전투에서 패하면서 전라도로 퇴각하다가 다시 충청도 보은 북실 들판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2,600여명 이상이 희생되었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보은군은 성족리 산 16번지 일대에 약 3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기념관과 상징조형물 등의 교육시설 및 문화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충북 보은군

그러나 조성과정에서 역사적 고증 없이 조성되는 공원사업의 문제점과 보은취회의 현장인 장내리를 제외하고 예산을 북실에만 투입하는 점 등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들어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비롯한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한편 보은의 민예충지부에서는 장내리와 북실에 장승을 세우고, 북실마을 입구에는 동학농민군의 행군도와 전투지를 그린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2)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현황⁶⁾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5년에 조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시설은 모두 130개소이다. 그 가운데 전북이 62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전남 27개소, 경북 15개소, 충남 10개소, 충북 9개소, 강원 4개소, 경남 2개소, 울산 1개소였다.⁷⁾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관은 총 4곳에 건립되어 있는데 그 중 3곳이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 상주와 전주 기념관은 천도교 측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읍은 국가에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은 지자체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념관 대부분이 소규모 전시기능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읍 기념관의 경우는 타 기념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과 큰 규모로 건립되어 있다. 또 교육관과 전시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기념조형물의 경우 대부분 기념탑이나 기념비, 동상 또는 묘소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갑오년 당시 농민군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탑으로는 정읍의 무명농민군위령탑(無名農民軍慰靈塔), 공주 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東學農民革命軍慰靈塔), 태안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 하동 고성산 동학혁명위령탑(東學革命慰靈塔), 홍천의 동학혁명위령탑(東學革命慰靈塔)이 있다.

특히 정읍의 무명농민군위령탑은 특별한 개인이 아닌 이름 없이 쓰러져간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추모함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구체화시켰으며 다수의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조형물이라 볼 수 있다.

〈표6〉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 지역별 현황

연번	도별	시군별	조형물명
1	전북	정읍	황토현갑오동학혁명기념탑(黃土峴甲午東學革命紀念塔)
2			전봉준단소(全琫準壇所)
3			동학농민혁명모의탑(東學農民革命謀議塔)
4			최경선장군묘역(崔景善將軍墓域)
5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탑(東學農民革命100週年紀念塔)
6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無名東學農民軍慰靈塔)

6) 지수걸(공주대 교수), 「기념사업의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공청회, 2005년 6월 17일(금).

7)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정비 및 기념물 건립사업의 추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 워크샵>, 2009년 9월 3일(목).

연번	도별	시군별	조형물명
7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
8			만석보시비(萬石湫詩碑)
9			만석보혁파선정비(萬石湫革罷善政碑)
10			전봉준고택(全琫準古宅)
11			김개남묘역(金開南墓域)
12			손화중묘역(孫華仲墓域)
13			동학농민혁명기념관[東學農民革命紀念館, 황토현(黃土峴)]
14		완주	동학농민혁명대둔산항쟁기념비 (東學農民革命大苴山抗爭紀念碑)
15			삼례역사광장(參禮歷史廣場)
16			삼례봉기비(參禮蜂起碑)
17		전주	동학농민군전주입성기념비(東學農民軍全州入城紀念碑)
18			전봉준장군동상(全琫準將軍銅像)
19			손화중장군추모비(孫華仲將軍追慕碑)
20			김개남장군추모비(金開南將軍追慕碑)
21			전주역사박물관(全州歷史博物館)
22			동학혁명기념관(東學革命紀念館)
23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東學農民革命紀念公園)
24			갑오동학농민고창주의장추모비 (甲午東學農民軍高昶柱義將追慕碑)
25			여시외봉기념비(여시외봉紀念碑)
26			전봉준장군생가터(全琫準將軍生家터)
27		부안	동학농민혁명백산창의비(東學農民革命白山倡義碑)
28		김제	김덕명장군추모비(金德明將軍追慕碑)
29	전남	장성	동학농민혁명기념탑(東學農民革命紀念塔)
30		함평	동학농민혁명장경삼옥삼공삼선생공적비 (東學農民革命張京三玉三公三先生功績碑)
31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東學農民革命紀念塔)
32	충북	옥천	동학농민군재기포기념비(東學農民軍再起包紀念碑)
33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기념탑 (東學農民革命紀念公園紀念塔)
34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報恩東學農民革命紀念) 장승 4기
35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조형물(報恩東學農民革命紀念造形物)
36		청주	청주동학농민혁명기념(淸州東學農民革命紀念) 기념(紀念)장승
37	충남	공주	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東學農民革命軍慰靈塔)

연번	도별	시군별	조형물명
38		태안	우금티봉수대
39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
40			태안지역동학전래비(泰安地域東學傳來碑)
41	경북	상주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상(尙州東學農民革命紀念像)
42	경남	하동	고성산동학혁명위령탑(高城山東學革命慰靈塔)
43	강원	홍천	동학혁명위령탑(東學革命慰靈塔)
44			자작고개노래비
45		원주	해월최시형선생피체지추모비(海月崔時亨先生被逮地追慕碑)
46			해월최시형선생피체지원진녀생가 (海月崔時亨先生被逮地元鎭汝生家)

3.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의 활동과 현황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단체들의 활동의 시작과 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작단계는 정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민간조직은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현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다. 지난 1967년에 창립된 이래 수십 년 동안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정읍 사람들에게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동학은 정읍의 역사이자 정읍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렇듯 정읍만의 것으로 인식되어 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1990년대 들어 이뤄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한국민중운동사에서 민중운동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즈음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거나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기념사업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이때 결성된 각 지역의 기념사업 단체들의 공통점은 민간이 주도하였다는 점과 그 속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활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개인의 활동 폭과 열정의 고저에 따라 향후 기념

사업회의 활동이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04년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별법으로 농민군들이 ‘역적’의 오명을 벗고 정부차원의 선양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확인되자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이후 활동이 주춤하거나 중단되었던 기념사업단체들이 재가동하기에 이른다. 이들 단체들의 활동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1967년 12월 최초의 민간단체인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를 창립하였다. 이듬해인 1968년부터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이하 문화제)를 매년 치러왔다. 그러던 1980년 5월 행사에 당시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이 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제5공화국 신군부에 의해 제13회 문화제를 끝으로 사업회는 그 해 12월 1일 강제해체 당하였고 기념문화제 또한 관 주도 행사로 치러지며 명맥만을 유지하였다.

이후 1987년 12월부터 황토현 전적지 및 전봉준고택 정비사업을 추진되었고, 1988년 9월 강제 해체 당했던 사업회의 옛 회원들 중심으로 황토현 사우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1992년 12월에 구민사를 건립하였다.

한편 1993년 4월 정읍지역의 시민단체와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모여 문화제를 다시 민 주도로 환원하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재건하여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여는 첫 행사로 1994년 2월에는 ‘고부봉기역사맞이 곳’을 민예총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읍천변과 고부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4년 9월 전북 정읍 고부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건립하였다.

이렇듯 정읍군과 정주시가 각각 따로 동학관련단체를 두고 이원화되어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마침내 1995년 민(民)이 주도하여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란 이름으로 통합하였으며 1996년 9월 최경선 묘역 정비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또 현재까지 매년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을 기해 제45회 문화제를 치러오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관련단체들과 함께 추진하여 마침내 2004년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봉준역사캠프, 문화유산답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 東學길 걷기대회, 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주)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앞둔 1988년 5월 전주에 있는 <전북문화저널사>에서 전북 도민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기행 '우리는 녹두세를 보았다'를 기획, 추진하였는데 이 순례길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학술세미나와 공개 토론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31일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로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1993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 시청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대회를 펼쳤다.

이밖에도 전적지 답사, 무용제, 연극제, 그림전시회 등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남 진도에서 처형당한 후 일본으로 반출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해 1기가 일본 북해도대학 문학부 사무실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해봉환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1996년 10월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 건립을 비롯하여 학술대회 개최, 동학관련 출판사업 등을 펼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사단법인 동학농민전쟁우금티 기념사업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출발은 1993년 공주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인 우금티 위령탑 옆에 들어설 계획이던 주유소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1993년 2월 18일 우금티동학혁명전적지성역화추진회를 창립하고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1994년 3월 18일 우금티 일대가 사적지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여기에 힘입어 1994년 6월 11일 사업회를 창립하여 10월 29일~10월 30일 양일간에 걸쳐 '우금티 순국영령 추모예술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를 마친 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 사업을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4월 8일 사업회를 창립하여 매년 10월~11월경에 우금티 순국영령 추모제례 및 우금티예술제를 연례행사로 열어왔으며 지금껏 동학농민혁명 유물전시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및 안내, 관련 책자 발간, 역사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4)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1993년 11월 19일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茂長起包) 백주년기념 학술발표회’를 고창문화원이 고창군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학술발표회 이후 무장봉기 100주년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으며 1994년 1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1994년 4월 25일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위령제 개최, 무장기포지 발상지 비석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학술대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왔다. 2001년 3월 24일 전봉준 장군 생가 복원사업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군 상징 기념탑 건립, 걷기대회, 학술토론회 등 매년 4월 25일을 기해 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강수 고창군수가 5대 이사장이 되면서 2008년 4월 1일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학농민혁명스터디그룹 ‘녹두교실’창립, 고창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자료집 발간, 읍면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찾아 가는 녹두교실운영 등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5) 광주 · 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광주 · 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전남대학교 호남사회연구소의 발의로 1994년 1월에 발족되었다. 사업회는 창립 이후 동학농민군 자료발굴사업과 『동학농민혁명과 광주 · 전남』을 발간하였으며 학술대회, 창작 마당굿, 국악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조선대와 광주 · 전남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의 노력으로 1997년에 황룡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 1기를 건립하였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황룡전적비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 1998년, 국가사적지 제406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재 사업회는 제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6)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86년 충북대 신영우 교수가 상주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논문을 발표되었다. 이때부터 상주 시민들이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1989년 1월 상주 서문동 천주교회에서 개설한 '민족학교'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마침내 1994년 4월 상주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상주지역의 기념사업회 출범은 전라도 일로만 알았던 동학농민혁명이 경상도 상주 지역의 일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상주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1994년 6월 연극 '궁궁울'을 비롯하여 7월에는 동학농민혁명백주년미술대전, 10월에 동학농민군이 처형당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태평루에서 동학농민군 합동위령제를 모시기도 하였다. 1996년 11월 상주동학농민기념상 제작 완공식과 전적지 답사안내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7) 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89년 6월 경남 남서부 8개 시군의 뜻있는 인사 75명이 모여 고승당산 항일 동학농민군 전적지보존회를 발족하였다. 고승당산 항일 동학농민군 전적지보존회는 학술 세미나, 유적지 성역화 사업 등을 펼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해 동학농민군 전몰의사 천도제를 거행하였다.

1995년 3월에는 천도교 측에서 동학농민혁명백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동학농민군위령탑을 건립하고 천도교 경남연원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치른 11월 11일을 기일로 삼아 매년 고성산 앞에서 위령제를 지내왔다. 그후 동학농민혁명백주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해 오고 있다.

8)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동학농민군 처형지로 알려진 충남 태안 백화산 기슭 교장바위 아래에는 1978년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이 건립되어 있는데, 건립 주체의 이름이 '서산·당진·예산·홍성·아산 지역 동학혁명기념탑 건립위원회'였다.

이듬 해 유족회 결성 이후 이곳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 후손들을 중심으로 1985년부터 1993년까지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앞에서 매년 10월에 동학혁명군 위령제를 지내왔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되어 태안지역 동학농민군 후손, 천도교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위령제를 지내왔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태안지역의 시민단체들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98년 4월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태안 기념사업회는 동학혁명의 복점 기포지였던 태안지역의 사료 발굴 및 각종 연구 활동과 선양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9)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1995년 예천시민을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1996년 5월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순례, 1997년 4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全基恒) 의사 추모비 건립 등을 전개하여왔다. 1998년 5월 10일 예는 1894년 지금의 문경 소야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꽃재를 넘어 예천으로 들어왔는데 문경과 예천을 잇는 고갯길인 꽃재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새김돌을 세우기도 하였다.

1998년 갑오년 당시 예천동학농민군이 일어난 날인 10월 18일을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선포하고 기념일 행사와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관련 유적지 정비와 더불어 전적지 안내 및 책자 발간 등 예천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0)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완주지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완주지부(이하 완주지부)는 1996년 10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주)에서 건립한 동학농민혁명삼례봉기 기념비 건립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태동하게 된다. 1998년 10월 25일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04주년 기념대회 기간에 그 창립대회를 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지부형태인 완주지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완주지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완주군 삼례’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1999년부터 매년 10월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2001년에는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전적비를 건립하였으며 2002년 12월 삼례봉기역사광장을 조성할 비롯하여 2003년 10월 10일에는 동학농민혁명봉기비 건립, 2004년 10월 20일 역사광장 내에 동학농민군 출진상 건립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11)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주민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백산성보존회는 1995년 결성되었다. 이 후 동학농민혁명백산성보존회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 백산성 집결 봉기를 기념하는 백산봉기(白山蜂起) 기념식을 매년 4월 26일을 기해 개최하여왔다.

특히 1998년 10월 백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백산성 사적지정 기념 학술강연회 등을 개최하여왔다. 그 후 백산성보존회는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로 명칭과 조직을 재정비한 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면단위 행사였던 이 행사에 부안군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9년부터이다. 2009년 4월 25일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4월 25~26일에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를 부안군이 직접 주체가 되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12) 사단법인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금산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 발굴사업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3월 24일 금산동학농민혁명사업기념회가 결성되었다.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08년 5월 26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이래 매년 학술발표회를 실시해왔으며 금산군 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여오고 있다. 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순회교육 실시, 금산군 내 역사유적지 탐방 실시, 금산군 내 초등학교 백일장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3)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03년 준비단계를 거쳐 2004년 5월 22일 창립하고 현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과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6년 11월 ‘남원 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007년 남원시 쌍교동 요천제방에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요천 표지석을 세우고 같은 해 11월 17일 남

원시 산동면 부절리 방아치에 ‘동학농민혁명 방아치 전투지’라는 비석을 세우고 2008년 11월 22일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여원치에 ‘동학농민혁명유적 백두대간’이란 표시석을 세우고 위령제를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4)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4년부터 장흥군 농민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항쟁 정신을 계승하고자 매년 11월 기념탑 앞에서 조촐하게 위령제를 지내다가 마침내 2003년 11월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발족하면서 공식적인 기념식과 위령제를 치렀으며 지난 2004년 3월 5일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2004년 4월 26일 비로소 기념탑 조성 12년 만에 제막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장흥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사업과 학술편찬사업, 문화사업, 기념조형물 건립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

15)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는 1994년 3월 3일 창립되었다. 열악한 재정형편과 정부의 무관심속에서도 회지인 『사발통문』, 동학농민군 후손들의 증언록인 『다시 피는 녹두꽃』,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등을 출간하였다. 이후 유족회는 동학농민군 유족들을 발굴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업에 경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2월 9일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동학농민군 영상증언록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 구성의 필요성은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개별적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각 지역이나 단체에 대표들이 모여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행사로 고부봉기역사맞이 굿, 동학농민혁명1백주년 기념대회, 우금티 순국영령 추모예술제를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행사 이후 각 지역의 사업회와 유족회의 숙원은 동학농민군 명예회복이었다. 이에 동학농민군 국가서훈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1997년 11월 29일자 한겨레신문에 동학농민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광고를 3차례에 걸쳐 상징적인 숫자인 1894명 국민의 이름으로 게재하였다.

같은 해 12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 동시 서명대회를 추진하여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 결과로 2004년 특별법을 제정케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후의 동단협 활동은 순탄치 못하였다. 그 이유를 동단협 내부 자료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 지원사무국은 특별법에 명시된 기념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 단체들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역사 기념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노하우를 축적해온 각 지역사업회와의 연계를 추진하기는커녕 관련법규의 규정 등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 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단체와 철저히 괴리된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 지원사무국이 업무를 시작한지 3년이 지났으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비롯하여 특별법에 명시된 기념사업 4개 조항 중 그 어느 것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입법취지를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조차 구체화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17)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의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취지로 2006년 12월 5일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 1차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2006년 12월 21일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 2차 발기인 모임을 통해 곧바로 창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07년 4월 26일을 기해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2009년 11월 7일 청주 무심천 꽃다리에 장승과 기념 표지석을 세우고 <동학농민혁명 청주성 전투 기념 장승곳>을 치렀다. 특히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처음으로 도 단위 기념사업회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8)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 <심의위원회 업무추진 요청>, 2007. 7.

18)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⁹⁾

1987년에 모악향토문화연구회에서 ‘김덕명장군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최초의 기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7월에 주민들이 원평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뜻이 김제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12월 22일에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2009년 3월에 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2008년 12월 학술강연회, 2009년 『김제땅 동학농민혁명』발간, 2009년 “김제땅 동학농민혁명 흔적을 찾아서 옛길걷기” 등을 통해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10년 2월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조사가 진행되어 주변의 종교자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19)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11년 8월 19일 발족되었다. 이후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유족회는 2011년 12월 9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군청 새마을회관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 순국하신 무안군 영령들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헌하였다.

2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특별법 제정 이후 대정부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전국 16개 기념사업회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2004년 9월 2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설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25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 후 2006년 1월 8일 충남 공주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12주년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11월 9일 동학농민혁명 제113주년 기념대회(서울), 2008년 11월 1일 동학농민혁명 제114주년 기념대회(충남 태안), 2009년 11월 7일 동학농민혁명 제115주년 기념대회(전남 장흥)를 치렀다. 특별법에 따라 2010년 4월 19일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8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재단사무실을 두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에 대한 제반 업무를 보게 되었다. 2010

9) 디지털김제문화대전에서 인용.

년 10월 29부터 30일까지 동학농민혁명 제116주년 전국기념대회를 경북 상주시에서 개최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 정읍 황토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표7〉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현황

순번	단 체 명	소재지	창립연도
1	사단법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북 정읍	1967
2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전주	1992
3	사단법인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충북 공주	1994
4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고창	1994
5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서울특별시	1994
6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광주광역시	1994
7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경북 상주	1994
8	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경남 진주	1994
9	부안동학농민혁명백산성보존회	전북 부안	1995
10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경북 예천	1995
11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완주지부	전북 완주	1997
12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남 태안	1997
13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남 금산	2000
14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충북 보은	2001
15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남 장흥	2003
16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 보은	2004
17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남원	2004
18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 청주	2007
19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김제	2008
20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남 무안	2011
21	서석면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	강원 홍천	

4. 맺는 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사업주체의 역량,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적지 발굴 및 추모 사업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보다 현재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동학선열들의 정신을 계승 실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결성되어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활동을 전개해온 각 지역 기념사업 단체의 활성화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 이후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업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재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각 지역 관련 사업단체들의 연대와 조율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발발 2갑자(2014년)를 맞이하는 120주년 기념사업을 전국적인 행사로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韩国的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

曹光焕

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 前 理事长

翻译：朱玫(成均馆大学 东亚细亚学术院)

-
1. 导论
 2.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的渊源和现况
 3. 东学农民革命相关团体的活动和现况
 4. 结论
-

1. 导论

东学农民革命象征着朝鲜后期农民大众通过农民抗争得以成长，自觉认识到自己是国家真正的主人，为了打破旧的封建秩序和驱逐资本主义列强的侵略，高举反封建反外势旗帜。革命虽然造成了数十万的牺牲者未获成功，却是韩国历史上最大规模的民众抗争。

东学农民革命的历史意义毋庸置疑，但在 1894 年革命爆发以来，对它的评价伴随着韩国近现代史的激浪多次被歪曲。

根据由此而产生的对东学农民革命的认识, 以及事后人们对它的历史认识差异和政治利害关系, 对其解读也有所不同, 到目前为止相关的各种纪念事业因主体的不同也被赋予了不同的意义。

本文旨在考查过去百余年各时代由不同主体从不同角度推进的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的历史, 考察现存的东学农民革命相关纪念、展示设施现况和展示·纪念事业的性质。同时, 考察韩国国家和地方自治团体及东学农民革命相关的民间纪念事业团体的活动和现况。

2.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的渊源和现况

1)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的各阶段现况

(1)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第一阶段(1894年~1910年)



〈锦城讨平碑〉全南 罗州市

这一时期的东学农民革命的纪念事业由官方和反农民军的子孙主导, 目的是用儒教世界观, 称颂反农民军侧的殉节和忠义, 因而没有涉及反对统治阶级和抵抗日帝侵略的内容。纪念物主要以祭祀亡者的祭坛或者记录特定人物活动的碑石等传统形式为主。其中, 最具代表的事例如下。

长兴永怀堂的建立和守城将士殉节碑。在镇压东学农民军之后, 朝鲜政府为了慰劳和朴宪阳一同阵亡的守城将士们的灵魂和称颂他们的斗志, 高宗赐额永怀堂, 并设立殉节碑。

碑的正面刻有「光绪 20 年甲午东乱守城将卒殉节碑」的碑铭, 下面刻有府使朴宪阳和一同殉节的将士名字, 后面刻有奇字万赞扬朴宪阳功绩的文字。

全南罗州市果院洞的金星讨平碑。这是于 1895 年为了纪念东学农民革命时和东学农民军交战、守卫罗州城的事绩而

设立的。原先是立在罗州牧内的正绥楼前面，1930年移到了锦城馆前面，1976年重新移到现在的位置。

碑文简单地记述了东学农民革命爆发后农民军进入罗州的过程，以及闵钟烈指挥诸将帅制定缜密的防御计划的内容。最后还比较详细地叙述了官军和东学农民军在罗州牧里直接交战的过程。

南原市云峯邑西林树林里的甲午讨匪事绩碑。这主要是关于1894年东学农民革命当时朴凤阳得知南原东学农民军想要进入云峯，便将云峯的民堡军和从咸阳等地派来的志愿兵合并后，在方峨峙和观音峙战斗中击退农民军的事绩。门中其以守卫云峯的功劳设立此事绩碑。

碑的位置原先在云峯小学校门前的民家，不知何时起被移到现在的位置，1993年重新铸造了坐台。碑的设立年代因碑文的毁损不得而知，坐台刻有朴凤阳将军碑。

忠北清州市兴德区慕忠洞的慕忠祠。这是为了纪念1894年为解散集结在大田一带的东学军，在清原郡江外面地区全部战亡的忠清兵营的领官廉道希及其带领的70名兵士而建的。为了称赞将士们的殉节行蹟，1894年11月前任牧使任泽鎬设立了慕忠坛。1903年在堂山建坛祭祀，还建立了甲午战亡纪念碑阁。之后，又结成忠慕契，1914年秋在现清州市上党区大成洞堂山公园建立了祠堂。

日帝将堂山作为神社之地后，1923年祠堂重新被移到了清州市兴德区慕忠洞高堂村，1975年再次被移到现在的位置。境内有东学农民军招讨使洪在义的事绩碑。

忠南洪城郡广川邑瓮岩里石船村(독배마을)的南面有从广川旧址移来的刻有“赠军务参议金公秉噉有功之碑”的‘裸负商感义碑’。此碑是负裸商们于1896年为称颂在东学农民革命时在广川等地树立战功并在新礼院战死的负商出身的中军金秉噉的战功而设立的。

忠州市可金面可兴里在东学农民革命当时有日本军兵站部驻扎。那里树着两块日本军慰灵碑，其中一块刻在碑石上，另一块是用自然岩石雕琢而成的碑石。两块碑都于1894年12月雕刻，经推测是日本军建立的。这些慰灵碑于1996年被居民损毁，碑石下面部分



〈甲午讨匪事绩碑〉
全北 南原市 云峯邑



〈甲午战亡将卒纪念碑〉
忠北 清州市 兴德区

被分割后，现保存在忠州博物馆。这块碑石现在的样子和上面刻的字迹如下。碑石的大小长 56cm，高 90cm，厚 12.5cm。

还有一块慰灵碑被刻在日本军兵站部所在山坡上的一块突兀的岩石上。慰灵碑文雕琢在岩石上，长 55cm，宽 107cm。碑文现已被军民所损坏，无法辨别。根据毁损以前的资料，竖着刻有三行“大日本帝国 勇士 南海爲三郎 君之碑 明治二十七年十二月有志建之”。现在的岩石上的字迹状态和原文如下¹⁾。



忠州 可兴 日本军 慰灵碑 碑文



忠州 可兴 日本军 慰灵碑 2 碑文 2

<表 1> 东学农民革命相关纪念物²⁾

纪念物	场所	建立年度
日本军慰灵碑 1	忠北 忠州市 可金面	1894
日本军慰灵碑 2	忠北 忠州市 可金面 (忠州大 博物馆)	1894
奖忠坛	首尔 城东区 奖忠洞	1895
招讨使 李公承候 清德碑	忠南 牙山郡 道高面	1895
观察使 朴公齐纯 爱民善政碑	忠南 洪城郡 葛山面	1895
行牧使兼招讨使 李公承候 百岁不忘碑	忠南 洪城郡 广川邑	1895
招讨使 李公碑	忠南 瑞山郡 高北面	1895
锦城讨平碑	全南 羅州市 果院洞	1895
儒会将 幼学 박순식 着德碑	忠南 瑞山郡 海美面	1896
赠 军务参议 金公秉 有功之碑	忠南 洪城郡 广川邑	1895
赠 军务参议 金公秉 忠节战亡碑	忠南 瑞山郡 海美面	1896
义士 韩基庆 旌闾碑	忠南 洪城郡 洪城邑	1896
赠左承旨李公学承殉义碑	全南 长城郡 黄龙面 莘湖里	1897

1) 在此向提供珍贵照片和资料的忠北农学革命纪念事业会的金洋植事务处长表示感谢。

2) 朴明圭, 「历史经验的再阐释和象征化: 东学农民战争的纪念物」, 『社会和歷史』 51, 1997.

纪念物	场所	建立年度
永怀堂	全南 长兴郡 长兴邑 汭阳里	1898
光绪二十年甲午东学乱守城将卒殉节碑	全南 长兴郡 长兴邑 汭阳里	1899
碧沙道察访 金侯日远请师复城不忘碑	全南 长兴郡 长兴邑 忠烈里	1900
兴龙坛	全南 长兴郡 夫山面	1901
工曹参议 郑翹朝 殉义碑文	忠南 锦山邑 锦山郡 锦山邑 下屋里	1902
军官郑志焕殉义碑文	忠南 锦山邑 锦山郡 锦山邑 下屋里	1902
慕忠坛	忠北 清州市 兴德区 慕忠洞	1904
甲午讨匪业绩碑(朴凤阳碑)	全北 南原市 云峯邑	
甲午战亡将卒纪念碑(阁)	忠北 清州市 堂山	1905

(2)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第二阶段(1910年~1945年)

即使在日帝故意镇压和破坏寻找我们民族认同感的各种纪念行为和纪念物的黑暗时期,东学农民革命仍可以从民族运动的视角上被重新诠释。朴殷植称其为'平民的革命',金库基则高度评价其是体现民众革命思想的朝鲜民众运动的一大先驱。

由此可见,虽然没有摆脱'东学乱'这一用语,但打破贬低的认识,评价其为民众革命运动的先驱本身就是一大进步。与对东学农民革命认识的萌发时期有所不同,这一时期相应的东学纪念物几乎很少。其中具有代表性的纪念物是忠南洪州郡洪州乡校前树立的'七义碑',这是为了纪念1894年10月28日晚上因守卫洪州乡校被东学农民军杀害的7命儒生的殉节,于1912年地方儒林的主导下建立的。

(3)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第三阶段(1945年~1950年代)

到解放后50年代后期为止,社会主义派学者对东学农民革命的研究较活跃。李清源的"甲午农民战争的性质和历史意义"('历史问题研究',1948),全锡淡的"作为李朝封建社会终结的东学农民乱"('朝鲜经济史',1949)是这一时期的代表性论文。李清源使用的'甲午农民战争'至今仍被北韩学界当做正式名称使用。

东学农民革命相关的第一个纪念活动是由天道教主持的,于解放后1947年在北韩平北龟城郡举行。纪念日则根据『天道教创建史』,定为古阜农民起义发生的1月1日。

另一方面,南韩从天道教的角度从1955年开始试图恢复东学农民革命纪念活动。但由于韩国战争民主阵营和共产阵营处于极度对立的状态,纪念活动十分艰难才得以维持,终于在1961年3月21日举行了东学农民革命纪念活动。

现在位于井邑市梨平面长内里鸟巢村里的'甲午民主倡议统帅天安全公琫準之坛'是这一时期建立的唯一纪念物。据天安全氏宗亲介绍,为了侍奉全琫準将军的卫国魂,1954年



〈天安全公瑋準之坛〉
全北 井邑市

11月15日国内最初的五尺多长的甲午民主倡议统帅天安全公瑋準之坛(全北井邑市梨平面)建成并举行了纪念仪式。

由于当时休战才一年，经济情况恶劣，天安全氏门中通过捐米运动，一点一滴募集后才得以修建坛。

(4)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第四阶段(1960~1980年代)

60年代发生了4·19历史事件，东学农民革命被赋予新的历史意义。东学农民革命的文学复原事业中最具革命性成果要数申东晔叙事诗‘锦江’的发表。

东学农民革命在历史的巨变中得以登场的最主要契机是1963年井邑黄土岬‘东学革命纪念馆’的建成。当时全北日报记者李治白在采访首尔大学历史系金庠基博士时谈到了建立‘东学革命纪念馆’，随后李秉岐先生被选为建立委员长，并于1963年10月3日在井邑黄土岬建成‘甲午东学革命纪念馆’。

纪念馆的建立在当时来说不仅使‘东学乱’的称呼变为‘革命’，而且此后农民军子孙或者天道教也积极参与在全国各东学战争遗址建立纪念馆等建筑。

在黄土岬建立‘甲午东学革命纪念馆’的财政主要来源于各界的捐款，当时又正好有文人政府禅让的选举，在精心策划后共和党提供了一部分资金。不能认为因朴正熙参加了1963年10月3日的开幕式并致开幕词就认为是朴正熙政权支援建立的。

在沙钵通文发现的井邑市古阜面新中里，沙钵通文签名者的子孙们建立了‘东学革命谋议塔’。现在广为人知的沙钵通文是于1893年11月在古阜宋斗浩的家中由全瑋準、崔景善等20名将结义内容签名环刻在钵模样上的文书，1968年12月4日由居住在新中里的宋基泰发表在报纸上才为世人所知。



〈甲午东学革命纪念馆〉
全北 井邑市 黄土岬



〈东学革命谋议塔〉
全北 井邑市 古阜面

宋基泰深知通文内容的重要性，于是找到了在上面签名的 20 个人的后孙，决心发起纪念事业，最后终于组成了东学革命谋议塔建立推进委员会，由后孙们每人捐一小袋米，于 1969 年 12 月 1 日得以建成。

这一时期作为全国唯一的东学相关团体的甲午东学革命纪念事业会的活动十分引人注目。甲午东学革命纪念塔顺利建成后，于 1967 年以井邑为中心 30 余名民间人聚在一起结成了最初的东学相关团体‘甲午东学革命纪念事业会’，翌年起实行纪念祭。受到纪念祭成功举办的鼓舞，事业会又展开了万石湫遗址碑的设立(1973.5.11.)活动。



〈万石湫遗址碑〉

全北 井邑市 梨平面



〈东学革命军慰灵塔〉忠南 公州市



〈东学革命军慰灵塔〉江原 洪川郡

在这样的氛围中，其他地区也受到影响，忠南公州牛禁峙于 1973 年 11 月 11 日建立了东学革命军慰灵塔。以公州人李昌德为首成立了东学革命军慰灵塔建立委员会，公州市民和天道教教民们募集建立资金。‘东学革命军慰灵塔’由朴正熙前总统亲笔题词，碑文刻有‘东学革命’精神为 5.16 和维新所继承的内容。

江原道洪川丰岩里啾啾岭(자작고개)是车箕锡率领的东学军和官军激烈交战、造成 800 余名战死的江原道最大最后的战迹地。为了慰藉 800 余名死亡的灵魂，后孙和地域民经捐款和郡的支援，在 1977 年建立了东学革命军慰灵塔。又决定在当时战斗中战死的地域民 23 名的祭日 10 月 23 日，进行每年的追悼东学革命军牺牲者仪式。

〈表 2〉 东学农民革命相关纪念物

纪念物	场所	建立年度
甲午东学革命纪念塔	全北 井邑市 德川面	1963
义菴孙秉熙铜像	首尔 宝塔公园	1966
东学革命谋议塔	全北 井邑市 古阜面	1969
万石淤遗址碑	全北 井邑市 梨平面	1973
东学农民军慰灵塔	忠南 公州市 锦鹤洞	1973
东学革命慰灵塔	江原 洪川郡 豊岩里	1977
甲午东学革命军追慕塔	忠南 泰安郡 泰安邑	1978
海月崔时亨铜像	庆北 庆州市 隍城公园	1979

(5)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第五阶段(1980年代)

朴明圭在他的论文「历史经验的再诠释和象征化：东学农民战争的纪念物」里对这一时期的纪念事业的特征描述如下：“东学农民战争和地域认同感的强化有着很大的关系，最明显的要数全北地区。这一地区从很早开始活动就很活跃，80年被政府强行解散的井邑纪念事业会强调古阜起义和黄土岬战役，努力将东学农民战争和井邑的地域认同感联系在一起。”

井邑的情况前面已经提到，1967年12月由全北地区有志之人发起纪念事业会后，翌年开始每年都举行纪念祭。期间，金大中总统参加了1980年5月11日召开的第十三届纪念祭，将东学革命定义为：“与世界上任何地方相比都毫不逊色的革命”，“三一运动和四一九革命继承了农民革命精神，现在实现民主主义是恢复其精神”，事实上赋予了东学农民革命现代意义。

他的发言通过东学农民革命想要表达对讴歌首尔之春的民众民主化的强烈愿望，否定了过去朴正熙政权的历史认识，向新军部的集权行为做了挑战。

结果，新军部势力以此为由，拘留了纪念事业会李喜禹会长和当时井邑的郡守、内务课长等，一周后即5月18日，金大中前总统被带走，戒严令扩散到全国。光州爆发的市民抗争，遭到了新军部的残酷镇压，之后大韩民国的民主政治陷入黑暗。

在这一气氛中，1980年12月1日纪念事业会也遭到解散。会员们提出黄土岬纪念馆的建立促进计划，抗议不当解体，但是官方通过怀柔和施压，称黄土岬事业将由官方负责，事业会最终还是遭了解体。

之后，纪念祭和黄土岬宣传事业成了官方事业，具有历史讽刺意义的是黄土岬纪念馆在践踏国民的全斗焕手中建成。

解体纪念事业会的新军部一边镇压民间团体的自律活动，一边将软弱的政权正统性和东学农民革命联系在一起，同时为了笼络民心整理东学农民革命遗址。

1981年全斗焕访问灵光原子发电所后，顺便来到井邑，在井邑郡守办公室和地域团体负责人做了会谈，称“全瑛準既是全氏，又是伟大的军人”，将逐年促进设立全瑛準将军遗址为特别保护区。根据这一指示，1983年12月开始，在黄土岬东南地区的山麓下建立了黄土岬纪念馆。

位于井邑市梨平面长内里鸟巢村的全瑛準先生的古宅遗址于1981年11月28日被指定为历史遗迹第293号，这一建筑是全瑛準将军发起东学农民革命时居住的地方。据按核使李容泰称，房子后来被火烧毁。当时井邑郡于1974年用国费和郡费对此进行了维修，正面4间，侧面1间。1974年在补修和解体的过程中发现上梁文刻有“戊寅2月26日(1878年)”，有可能一部没有被烧毁，残留的废屋通过维修被保存下来。

金沟大接主金德明追慕碑于1987年在金堤市锦山面鹤寿斋建成，在同一场所还建了慰灵阁，每年10月15日以金德明和无名农民军为首举行爱国志士追慕慰灵祭活动。

现在全北扶安白山的山顶立有1989年11月东学革命白山纪念事业会建立的“东学革命白山倡义碑”。白山是海拔47米左右较平缓的野山，1894年3月21日从各地蜂拥而来的农民编成农民军，以湖南倡义大场所的名义发布了檄文和农民军行动纲领。

任实郡云岩面云岩小学前面的甲午东学革命纪念碑是由天道教和任实地



〈黄土岬纪念馆〉 全北 井邑市 德川面



〈全瑛準先生古宅址〉 全北 井邑市



〈金德明将军追慕碑〉
全北 金堤市 锦山面



〈东学革命白山倡义碑〉
全北 扶安郡 白山面

区东学军子孙为了纪念任实地区的东学农民革命、三一万岁运动、戊寅灭倭运动(1936年)于1983年同时建立的。中央立有甲午东学革命纪念碑,左右分别立有己未三一运动纪念碑和戊寅灭倭运动纪念碑。

这些纪念碑看似为了纪念不同的事件,但彼此间却关系密切。东学农民军崔承雨,金荣远,韩荣泰等在任实一带发起起义,并在南原一带活动。甲午年11月在南原城战役中失利后,回到任实,在淳昌回文山一带避难。之后他们参与到三一运动和戊寅灭倭运动中,象征性地展示了东学农民革命后农民军的动向,可以说是具体体现东学农民革命和三一运动历史联系性的事件。

<表 3> 东学农民革命相关纪念物

纪念物	场所	建立年度
全瑋準先生古宅	全北 井邑市 梨平面	1981
黄土岬战迹地	全北 井邑市 德川面	1981
全瑋準先生像	全北 全州市 德津公园	1981
全瑋準将军铜像	全北 全州市 德津公园	1981
甲午东学革命纪念碑	全北 任实郡 云岩面	1983
春庵上师朴寅浩遗墟碑	忠南 禮山郡 插桥邑	1985
义庵孙秉熙语录碑	忠南 清原郡 北二面	1986
求民祠	全北 井邑市 德面川	1987
金德明墓域	全北 金堤市 锦山面	1987
东学革命白山倡议碑	全北 扶安郡 白山面	1989

(6)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第六阶段(1990年代)

1990年代恰值地方自治制和东学东民革命一百周年,人们的认识发生了重大转变。特别是一百周年纪念事业使东学革命更加大众化,过去的纪念事业无论内外都提高了一个层次。

特别是人们进一步认识到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和我国民族民主运动的发展息息相关,它的抗争精神到今天仍需要继承,特别是一般大众成了纪念事业的主体。

随着对农民军的历史认识从叛乱军转换到革命军,全北特别是井邑为中心开展的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在一百周年之际向全国各地扩散。因此,以全北各地为首,东学农民革命相关的各主要城市都相继成立了纪念事业团体。³⁾

3) 全罗北道,『东学农民革命精神宣传事业基本计划』,1999, p.20.

1980年以后,主要是官方主导纪念事业展开的井邑也于1993年重新创建了民间团体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同年韩国民族艺术人总联合会里成立了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特别委员会。为了组织一百周年活动,1992年在全州创立了东学农民革命百周年纪念事业会,之后在庆尚道晋州、尚州、礼泉,全罗道扶安、完州、高敞、光州、全南,忠南公州、泰安等地相继成立了纪念事业团体。

为此,1989年历史问题研究所还单独组成了甲午农民战争百周年纪念事业推进委员会,展开学术活动。

在东学农民革命百周年之际,各阶层以多种多样的活动重新阐释革命的历史。以此为契机,人们认识到有必要建立使各地纪念事业实现共享和协力的统合机构,于是以九个地区的纪念事业会为中心,结成了'东学农民革命百周年纪念事业团体协议会'(以下东团协),将百周年事业分为三大活动促进。

第一大活动定为全北井邑的'古阜起义历史神祭'。互动配合100年前的古阜农民起义日,活动从2月26日到27日分为两天进行。第二大活动是4月29日到30日间在全北全州举行的百周年纪念大会。第三大活动是10月29日到30日在忠南公州举行的'牛禁峙殉国英灵追悼艺术祭'。和百周年活动一道,各地区还建造了重温其历史意义的各种纪念物,整理如下。

〈表4〉东学农民革命相关纪念物

纪念物	场所	建立年度
海月神师 追慕碑	江原 原州市 好楮面	1990
求民祠(黄土岬祠宇)	全北 井邑市 德川面	1991
东学农民军全州入城碑	全北 全州市 多佳公园	1991
东学农民革命纪念塔	全南 长兴郡	1992
金开南将军追慕碑	全北 全州市 德津公园	1993
海月神师 笃工地碑	全北 全州市 德津公园	1993
无名东学农民军慰灵塔	全北 井邑市 古阜面	1994
茂长倡义布告碑	全北 井邑市 古阜面	1994
东学革命军慰灵塔	庆南 河东郡 高僧堂山	1995
长城 黄龙村 纪念塔	全南 长城郡	1995
原州 崔时亨 逮捕地 纪念碑	江原 原州市	1995
报恩聚会 纪念碑	忠南 报恩郡	1995
东学革命百周年纪念馆	全北 全州市 豊南洞	1996
尙州 东学农民 纪念像	庆北 尙州市	1996
东学农民军指导者 全基恒 义士 追慕碑	庆北 醴泉郡	1997
孙华仲 追慕碑	全北 全州市 德津公园	1998
东学农民革命 叁礼峰起碑	全北 完州郡 叁礼邑	1996

纪念物	场所	建立年度
孙华仲 将军 墓域	全北 井邑市 上坪洞	1996
东学军 領率将 崔景善之墓	全北 井邑市 七宝面	1996
金开南 将军 墓域	全北 井邑市 山外面	1995
甲午东学革命 百周年 纪念塔	全北 井邑市 内藏上洞	1997
东学农民革命 大茈山 抗争 战绩碑	全北 完州郡 大茈山	1998
报恩 东学农民革命 纪念 长柱 4基	忠北 报恩郡 报恩邑	1999
东学农民革命 再起包 纪念碑	忠北 沃川郡 青山面	1997



〈海月神师追慕碑〉江原 原州市



〈东学农民军全州入城碑〉
全北 全州市 多佳公园

其中，原州市好楮面高山里송골的海月神师追慕碑是以原州为基地投身于民主化运动的张一淳先生提议而建的。‘雉岳古美术同好会’于1990年4月12日在海月先生逮捕的地方立了一个小碑，并在村口立了一个追慕碑。‘致挚友崔包裹先生’是由张一淳先生亲笔题写的。

1991年建立的位于井邑黄土岬的求民祠(祠宇)是全国唯一悼念东学农民军英灵的祭礼设施。东学农民革命虽然造成了众多死伤者，但还没有哪个追慕设施是用来慰抚那些成为冤魂的农民军和无数无名牺牲者的。因此，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决定每年5月11日举行黄土岬东学农民革命纪念祭，实施祭礼。

位于全北全州多佳公园的东学农民军全州入城碑是于1991年8月由全罗北道文化财委员会为中心，由全荣来、赵炳喜提笔，金允吉成文，含有东学农民军占领全州城意义的纪念物。

全南长兴东学革命结束后，府使朴宪阳为首的守城将士96人遭到东学农民军袭击而身亡，为此建立了永怀坛纪念。每年在守城将士的忌日，长兴的政府机关为首的地方有志之士在此聚举行祭祀。

在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之际，随着人们对东学农民革命的重新评价，长兴的氛围也发生了变化。之前被看作是逆贼的东学农民军的活动被重新评价，同时官军和东学农民军之间的褒贬也发生了微妙的变化，这主要体现在官军和东学农民军子孙之间的矛盾。

例如，为了纪念石台战役中牺牲的东学农民军，1992年在忠烈里山坡上建立了东学革命纪念塔，因官军子孙们的反对，迟迟没有举行揭幕仪式。2004年3月5日以制定‘关于

恢复东学农民革命参与者名誉特别法'的规定为契机, 12年后的2004年4月28日才举行了正式的揭幕仪式。

金开南将军追慕碑是1993年5月由团体'追慕金开南将军的人们'在全州德津公园建立的。碑文由姜希南先生提笔, 申荣福先生作文。这追慕碑的建立主要针对过去东学农民革命太过于以全琫準为中心, 是为了引起对东学农民革命三大巨头之一的金开南和孙华仲的关注。

1998年12月在同一地点, 由团体'追慕孙仲华将军的人们'建立了孙华仲追慕碑, 崔玄植先生作文, 余泰明先生提笔。1995年4月全北井邑市山外面东谷里知琴谷后村的旧址边上, 建了金开南将军的墓地。孙华仲将军的墓地位于1996年由后孙建立, 墓地里由坟堆、祭坛和碑石组成。

为了纪念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 在全北井邑古阜所立的无名东学农民军慰灵塔属于比较特别的建筑物。这一建筑不是为了纪念东学农民军指导者, 而是为了抚慰无名牺牲的无数东学农民军的灵魂, 在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的促进下于1994年9月建立的。不是由国家或者地方自治团体, 而是由市民团体和地方有志之士捐款铸造的这一建筑, 由建造首尔日本大使馆前慰安妇少女像的金运成负责建造。

中央的主塔部分刻有'无名东学农民军慰灵塔', 底部四方的花岗岩刻着怀抱倒下的同



〈无名东学农民军慰灵塔〉全北 井邑市



〈东学革命纪念塔〉全南 长兴郡



〈金开南将军追慕碑〉全北 全州市

志, 举着竹枪高喊的农民军的模样。周围还有用花岗岩造的32基的辅助塔, 刻有农民军的武器竹枪、镐头、镰刀、铁耙等农具, 农民军的头和碗被重点雕现出来。

崔景善的墓地是于1996年9月崔景善101年忌日时, 在子孙和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主导下, 将原先墓地的遗骸往下移葬后整修而成的。坟墓前立有石供桌和刻有'东学农民军领率

将崔景善之墓'的碑石，坟墓后面立有屏风状的高3米的直四角形花岗岩建筑11基。为了像将军一样护卫无名的农民军，这一建筑物象征着东学农民革命未完成的历史使命和新的历史开端。



全北 井邑市 <东学农民军崔景善之墓>



<东学农民革命纪念塔>全南 长城郡

在当时担任高敞文化院长的李起华先生的努力下，于1994年在全北高敞的武长起包地建立了东学农民革命革命发祥地的碑石和茂长倡义布告碑。但是，现在很多人对'东学农民革命发祥地'的名称仍持有怀疑。⁴⁾

全南长城郡黄龙面莊山里的东学农民革命黄龙战迹地纪念塔的建立是在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的1994年。以光州·全南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纪念事业会为首建立的此塔，由长5米、高3米的基坛和高27米、周长2.5米的竹枪模样的塔身组成，将农民军和官军的战斗场面浮雕出来。之后，长城郡于1994年建成纪念塔后，于1997年在黄龙村一带建立了纪念公园，1998年被指定为史迹地。

庆南河东高城山是1894年11月西部庆南起义的东学农民革命军和晋州驻屯的东学农民军与日本军1个中队展开激烈战斗的东学农民革命的最后战迹地，也是东学军186名战死的历史现场。天道教促进的东学革命军慰灵塔原来打算在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之际，即1994年建立，但因为高城山城、壬辰我乱战迹地等庆南道制定纪念物的选定及建立许可等问题于1年后的1995年才举行揭幕式。

叁礼是1892年11月东学教徒千余名聚集，要求终止对教祖伸冤和东学教徒的收夺而举行大规模集会的地



<东学农民革命叁礼起义纪念碑>
全北 完州郡 叁礼邑

4) 全罗北道, 『东学农民革命精神宣传事业基本计划』, 1999, p.202.

方，也是 1894 年 9 月东学农民军数千名为了反对外势和反侵略断然举行起义的历史现场。为了广泛宣传叁礼起义的历史意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1996 年在完州郡叁礼邑建立东学农民革命叁礼起义纪念碑。

全北全州的东学革命一百周年纪念馆是用 1995 年天道教的国库补助金和捐款建立的。地下 1 层地上 3 层，建筑总面积达 270 坪，地下有纪念馆办公室和天道教事务所，1 层是会议室，2 层是展示室，3 层是东学文化艺术中心。展示室里有书志学者李钟学寄赠的东学相关资料 400 余件。

尚州东学农民纪念像是由尚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于 1996 年建于庆北大学尚州校区附近，这一纪念像是用会员会费和市民捐款建立的。

由崔玄植提议建立的甲午东学革命一百周年纪念塔原来作为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纪念事业推进的，但因为预算困难，直到 1997 年 5 月 11 日黄土岬战胜日纪念时才在井邑市进入内藏山迂回道路边得以建立。

全琫準公园建立的此塔是全寿千作家的作品。在长 20 米，宽 15 米的花岗岩板石上面立有长宽各 3 米、高 18.94 米的四角牛柱状中央塔，左右各有两个直径 0.8 米、高 11 米的紫色花岗岩圆柱。

全北全州大茈山入口处立有‘东学农民革命大茈山抗争战绩碑’。锦山接主崔公雨带领的东学农民军在公州牛禁峙中失败后，将根据地移到大茈山弥勒岩石(715.1 米)顶上继续反抗，1895 年 1 月 24 日农民军未能顶住从后方袭击的日本军遭到惨败。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完州支部为了追慕在这里牺牲的 25 名农民军的英灵，2001 年建立了东学农民革命大茈山勘正战绩碑。



〈东学革命军慰灵塔〉
庆南 河东郡



〈甲午东学革命百周年纪念塔〉
全北 井邑市

(7)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第七阶段(2000年~现在)

2000 年以后，纪念事业的展开和纪念物的建立渐渐从民间主导转变为地方自治团体组织主导。特别是 2004 年国会制定了特别法，过去不太关心纪念事业的各地方自治团体

将各地和东学农民革命有关的地区性事件象征化，以强化地方的认同感。但大部分地区仍主要由官方主导此项事业，这一过程里有可能和相关团体产生摩擦。

但这样的变化反过来证明了对东学农民革命的认识变化。尽管如此，对东学农民革命的大众认识仍然很不足。各地居民既认同东学农民革命相关事业的意义，但也认为和自己关系不大。

〈表 5〉 东学农民革命相关纪念物

纪念物	场所	建立年度
叁礼蜂起 历史广场	全北 完州郡 叁礼邑	2002
全琫準将军生家复元	全北 高敞郡 堂村	2000
全州历史博物馆	全北 全州市 孝子洞	2002
东学农民革命布告文 造形物	全北 高敞郡 孔音面	2002
啞啞岭(자작고개) 歌碑	江原 洪川郡 豊岩里	2000
东学农民革命纪念教育馆	全北 井邑市 德川面	2004
南原 蛟龙山城 隐寂庵 纪绩碑	全北 南原市 蛟龙山城	2006
忠北报恩郡声足里	忠北 报恩郡 声足里	2007
海月 崔时亨 先生 被逮地 元鎮汝 生家	江原 原州市 高山里	2008
东学农民革命遗迹地 蓼川 标識石	全北 南原市 双桥洞	2007
清州东学农民革命纪念 纪念长柱	忠北 清州市 粉坪洞	2009
东学农民革命纪念公园	忠北 报恩郡 报恩邑	2006
报恩 东学农民革命 纪念 造形物	忠北 报恩郡 报恩邑	2006
东学农民革命 纪念塔	忠北 报恩郡 报恩邑	2008
甲午东学农民革命战迹地碑	忠北 沃川郡 郡北面	2009

东学农民革命叁礼起义广场位于东学农民革命时农民军的第二次起义之地全北完州郡叁礼邑，于 2002 年 12 月 6 日经完州郡和完州洞穴农民革命纪念事业会的共同努力而建成。这一广场分三大场面象征不同的特色，'大同之场'再现了举着农具起义的农民的样子，'追念之场'为了慰劳他们的灵魂，'宣扬之场'为了纪念农民革命的意志。



〈叁礼蜂起历史广场〉 全北 完州郡 叁礼邑

位于全北高敞郡竹林里堂村全琫準生家的复原事业由高敞郡促进, 于 2001 年 3 月 19 日竣工。全琫準将军的生家现由 5 间屋子组成。高敞郡于 2002 年 4 月 25 日在高敞武长建立了名为'东学农民革命布告文'的建筑。



〈全琫準生家〉全北 高敞郡

有由全州爱文化会受托运营。博物馆建筑由地下 2 层和地上 5 层组成。特别是全州历史博物馆收藏库里有 1996 年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主导的从日本奉还的东学农民军遗骨。

东学革命军慰灵塔所在的江原道洪川瑞石面丰岩里 啾啾岭上面立有郑斗守作词、李宥林作曲的'啾啾岭'颂歌碑。这是全国惟一的以东学农民革命为素材的石碑, 由歌手周炫美歌唱。



〈全州历史博物馆〉全北 全州市



〈啾啾岭(자작고개)颂歌碑〉江原 洪川郡



〈东学农民革命纪念馆〉全北 井邑市

东学农民革命纪念馆由金大中总统促进, 于 2004 年在全北井邑市德川面黄土岬建成, 分为教育馆和展示馆⁵⁾。2009 年为止, 主要由全罗北道东学农民革命纪念馆管理事务所运营, 现根据特别法第九条即附则第三条, 由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于 2010 年从文化体育观光部获得特殊法人的认可后运营。



〈东学农民革命纪念公园〉忠北 报恩郡

忠北报恩所在的东学农民革命纪念公园是为了纪念 1894 年牛禁峙战役中败北后, 退到全罗道后重新在忠清道报恩钟谷田野里与官军和日本军激战中牺牲的 2600 余名农民军, 在报恩郡声足里山 16 番地一带划出约三万坪敷地建造的纪念馆和象征性建筑物, 内有教育设施和文化体验设施。

但是, 在建造过程中没有历史考证建造公园事业, 除帐内里外, 预算主要集中投资在钟谷, 没有充分考虑到居民舆论而促进事业的开展, 因此和报恩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为首的忠北市民社会团体联代会等发生了摩擦。同时, 报恩的民艺总支部在帐内里和钟谷建立了长生柱, 在钟谷村入口处设置了介绍东学农民军行军道和战斗地的介绍文字。

2) 东学农民革命纪念设施现况⁶⁾

东学农民革命参与者名誉恢复审议委员会于 2005 年调查的东学农民革命遗址纪念设施共有 130 个。其中全北 62 个, 和别的地区相比较多, 之后是全南 27 个, 庆北 15 个, 忠南 10 个, 忠北 9 个, 江原 4 个, 庆南 2 个, 蔚山 1 个。⁷⁾

5) 10万坪敷地里建筑面积为1871坪(展示馆2个共1155坪,教育馆\讲堂等467坪), 事业费用393亿(现在243亿韩币投资), 遗物1437件。

6) 池秀杰(公州大教授), 「纪念事业的基本方向和基本构想」,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基本计划〉相关的公听会, 2005年6月17日(五)。

7) 朴准成(历史学研究所研究员), 「东学农民革命遗迹整理及纪念物建立事业的趋势」, 〈东学农民革命

东学农民革命相关纪念馆建在 4 个地方, 其中 3 个都在全北。尚州和全州纪念馆都是由天道教运营, 井邑由国家建立运营, 淳昌由地方自治团体建立运营。

纪念馆大部分带有小规模展示功能, 井邑纪念馆比其他纪念馆的预算和规模要大, 由教育观和展示馆构成。

纪念建筑的大部分是纪念塔或者纪念碑, 铜像或者墓地, 大部分和东学农民军指挥者相关。其中, 为了抚慰甲午年当时农民军英灵而建的塔有井邑无名农民军慰灵塔、公州东学农民革命军慰灵塔、泰安甲午东学农民革命军追慕塔、河东高城山东学革命慰灵塔、洪川东学革命慰灵塔。

特别是井邑的无名农民军慰灵塔追慕的是无数无名牺牲者, 将东学农民革命事件的性格具体化, 强调多数民众是历史主体。

〈表 6〉东学农民革命纪念建筑各地区现况

序号	道别	市郡别	建筑名
1	全北	井邑	黄土峴 甲午东学革命纪念塔
2			全琫準 坛所
3			东学农民革命谋议塔
4			崔景善 将军 墓域
5			东学农民革命 100 週年 纪念塔
6			无名东学农民军慰灵塔
7			万石湫遗址碑
8			万石湫诗碑
9			万石湫革罢善政碑
10			全琫準 古宅
11			金开南 墓域
12			孙华仲 墓域
13			东学农民革命纪念馆(黄土峴)
14		完州	东学农民革命 大苞山抗争纪念碑
15			叁礼歷史广场
16			叁礼峰起碑
17		全州	东学农民军 全州入城纪念碑
18			全琫準 将军 铜像
19			孙华仲 将军 追慕碑
20			金开南 将军 追慕碑

纪念事业的历史讨论会〉, 2009年9月3日(四).

序号	道别	市郡别	建筑名
21			全州歷史博物館
22			东学革命纪念馆
23		高敞	东学农民革命纪念公园
24			甲午东学农民军 高昶柱 义将 追慕碑
25			孤山峰(여시외봉) 纪念碑
26			全琫準 将军 生家址
27		扶安	东学农民革命 白山倡义碑
28		金堤	金德明 将军 追慕碑
29	全南	长城	东学农民革命 纪念塔
30		咸平	东学农民革命 张京叁 玉叁 公叁 先生 功绩碑
31		长兴	东学农民革命 纪念塔
32	忠北	沃川	东学农民军再起包纪念碑
33		报恩	东学农民革命 纪念公园 纪念塔
34			报恩 东学农民革命 纪念 长柱 4 基
35			报恩 东学农民革命 纪念 造形物
36		清州	清州东学农民革命纪念 纪念长柱
37	忠南	公州	东学农民革命军 慰灵塔
38			牛禁峙 烽燧臺
39		泰安	甲午东学革命军 追慕塔
40			泰安地域东学 传来碑
41	庆北	尙州	尙州东学农民革命纪念像
42	庆南	河东	高城山东学革命慰灵塔
43	江原	洪川	东学革命慰灵塔
44			啫啫岭 歌碑
45		原州	海月 崔时亨 先生 被逮地 追慕碑
46			海月 崔时亨 先生 被逮地 元鎮汝 生家

3. 东学农民革命相关团体的活动和现况

东学农民革命相关的纪念事业团体活动的开始和发展主要分为三个阶段。第一开始阶段，以井邑为中心进行。最早开展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的民间组织是甲午东学革命纪念事业会(现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该会自1967年创立数十年以来，开展了宣传东学农民革命的事业。

其结果，井邑人民产生了作为'东学农民革命后裔'的自豪感，其他地区的人们则形成了'东学是井邑的历史和事业'的认识。就这样，把其和井邑联系起来的东学农民革命的认识转换到了90年代才得以实现。1980年代中期以后东学农民革命在韩国民众运动史上渐渐被认为是民众运动的原动力。

特别是1994年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之际，对东学农民革命的关注逐渐高涨，各地广泛开展东学农民革命的研究活动或是为了促进纪念活动纷纷组织纪念事业团体，展开活动。

这一时期各地结成的纪念事业团体的共同点是由民间主导，很多偏僻的地方也不乏对东学农民革命有特别感情的人。个人活动的范围和热情，决定了日后纪念事业会的活动。

第三个阶段，是以2004年国会制定特别法为契机展开。农民军摆脱了'逆贼'的污名，政府也开始促进宣传事业，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之后一度遭到中断的纪念事业团体再次启动。这些团体的活动和现况如下。

1) 社团法人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

1967年12月创立了最初的民间团体甲午东学革命纪念事业会(以下简称事业会)。翌年即1968年开始，每年举行甲午东学革命纪念文化祭(以下简称文化祭)。1980年5月活动当时因野党指挥者金大中的参加和致辞，第五共和国新军部于当年12月1日强行解散了事业会，纪念文化祭变成官方主导被保留下来。

1987年12月开始，黄土岬战迹地及全琫準古宅整顿事业得到促进，1988年9月以遭到强制解散的事业会的老会员为中心发起了黄土岬祠宇建立促进委员会，1992年12月建立求民祠。

同时，1993年4月井邑地区的市民团体和进步活动家聚在一起重新使文化祭变为民众主导，再建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的第一个活动的'古阜起义历

史神祭', 于 1994 年 2 月由民艺总和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共同主管, 在井邑川边和古阜一带盛大举行。1994 年 9 月全北井邑古阜建立了无名东学农民军慰灵塔。

井邑郡和井州市各自有东学相关的团体促进事业, 于 1995 年由民间主导统和为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1996 年 9 月展开崔景善墓地整顿事业, 并决定在每年黄土岬战胜日的 5 月 11 日举行文化祭。为了制定特别法, 和相关团体共同促进了全国民签名运动等, 并于 2004 年在国会通过了特别法。此外, 以全国青少年为对象举行全琿準历史夏令营、文化遗产探访、东学农民革命遗址介绍、东学路徒步大会、学术大会等事业。

2) 社团法人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全州)

在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之际, 1988 年 5 月全州『全北文化杂志社』企划和促进以全北道民为参与对象的历史文化纪行'我们看到了绿豆鸟', 很自然地受到人们的关注和议论。

之后经过数次的学术会议和公开讨论会, 创立了为促进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纪念事业的东学农民革命百周年纪念事业会。1993 年 7 月 31 日, 东学农民革命百周年纪念事业会登录为社团法人, 1993 年 4 月 29 日到 30 日在全州市厅前面召开了东学农民革命百周年纪念大会。

此外, 持续展开了战迹地探访、舞蹈祭、话剧祭、美术展示会等多彩的纪念活动。而东学农民革命当时全南珍岛受刑后被送到日本的东学农民军指导者的一具遗骸在日本北海道大学文学部办公室发现, 事业会主导促进了遗骸的奉还事业。在其主导下, 1996 年 10 月东学农民革命叁礼起义纪念碑建成、学术大会召开, 东学相关的出版事业等一系列活动的开展持续至今。

3) 社团法人东学农民战争牛禁峙纪念事业会

东学农民战争牛禁峙纪念事业会(以下事业会)的出发是市民运动为了反对 1993 年在公州东学农民革命遗址地牛禁峙慰灵塔边上建加油站而成立的。以此事为契机, 1993 年 2 月 18 日, 创立了牛禁峙东学革命战迹地特别保护区设置促进会, 开展了以学术大会为首的多种活动, 1994 年 3 月 18 日牛禁峙一带终于被指定为史迹地。

参与此运动的人士借此机会于 1994 年 6 月 11 日创立了事业会, 10 月 29 日到 30 日举办了'牛禁峙殉国英灵追慕艺术祭', 盛况空前。

活动结束后，人们认识到有必要持续地促进宣传东学农民革命精神事业，于是于 1995 年 4 月 8 日创立了事业会，决定每年 10 月-11 月左右举行牛禁峙殉国英灵追慕祭礼及牛禁峙艺术祭等活动。至今，开展了东学农民革命遗物展示会、东学农民革命遗址探访、相关书籍的发行、历史夏令营的运营等活动。

4) 高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高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主办的 1993 年 11 月 19 日东学农民革命'茂长起包百周年纪念学术会议'是高敞文化院在高敞郡的支援下召开的。学术会议以后创立了茂长起义 100 周年纪念事业会，1994 年 1 月改名为高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使用至今。

高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于 1994 年 4 月 25 日召开了东学农民革命 100 周年慰灵祭，在茂长起包地发祥地建立碑石，举办东学农民革命纪念学术大会等活动。2001 年 3 月 24 日除了全瑋準将军生家复原事业以外，还建立了东学农民革命军象征纪念塔，举行徒步大会、学术讨论会等，并于每年 4 月 25 日举行慰灵祭。

李康洙高敞郡守作为第五届理事长，制定了 2008 年 4 月 1 日高敞郡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支援有关条例，创立了东学农民革命学习小组'绿豆教室'，发行了高敞东学农民革命故事资料集，作为邑面巡回教育一环的绿豆教室运营等，积极展开对市民宣传活动。

5) 光州·全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光州·全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以下简称事业会)是由全南大学湖南社会研究所提议的，于 1994 年 1 月发起的。事业会创立后展开了东学农民军资料发掘事业，发行了『东学农民革命和光州·全南』，促进了学术大会、创作神祭、国乐演出等事业。

通过朝鲜大学和光州·全南地区有识之士的努力，1997 年在黄龙战迹地建立了东学农民革命战胜纪念公园和纪念塔。之后，东学农民革命黄龙战绩碑通过历史考证，1998 年被指定为国家史迹地第 406 号。但是，以后的活动没能持续，现在事业会正处于再挑战的路上。

6) 尚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1986年忠北大学申荣祐教授发表了关于尚州地区东学农民革命的论文。从那时起，尚州市民们开始关注东学农民革命，1989年1月通过尚州西门洞天主教会开设的‘民族学校’，人们进一步增加了对东学农民革命的关注，终于于1994年4月创立了尚州东学农民革命百周年纪念事业会。

尚州地区的纪念事业会的创立说明东学农民革命不仅在全罗道有，庆尚道也有发生。尚州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纪念事业会于1994年6月举办了话剧‘弓弓乙’，7月举办了东学农民革命百周年美术大展，10月在东学农民军遭处刑的太平楼举行东学农民军共同慰灵祭。1996年11月开展了尚州东学农民纪念像之作竣工仪式和战迹地探访介绍等活动。

7) 晋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1989年6月庆南西南部8市郡有志之士75名聚集在一起，发起高僧堂山抗日东学农民军战迹地保存会。高僧堂山抗日东学农民军战迹地保存会一方面开展学术会议、遗迹地特别保护事业，一方面以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为契机，举行东学农民军战亡义士荐度祭。

作为东学农民革命百周年事业的一环，1995年3月天道教在这里建立东学农民军慰灵塔。天道教庆南渊源以东学农民军和日本军激战的11月11日为祭日，每年在高城山前举行慰灵祭。东学农民革命百周年事业结束后，改为晋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活动延续至今。

8) 东学农民革命泰安郡纪念事业会

事业会在东学农民军处刑地的忠南泰安白华山山麓绞刑岩石下，建立了甲午东学革命军追慕塔。建立侧的名字为‘瑞山·唐津·礼山·洪城·牙山地域东学革命纪念塔建立委员会’。

翌年，遗族会结成后以这里牺牲的东学农民军子孙为中心，从1985年到1993年，每年10月在甲午东学革命军追慕塔前举行东学革命军慰灵祭。1994年创立了东学农民革命遗族会，以泰安地区东学农民军子孙和天道教会员为中心举行慰灵祭。

此事业使泰安地区市民团体对东学农民革命的关心高涨，1998年4月创立了东学农民革命泰安郡纪念事业会。泰安纪念事业会主要挖掘东学革命北接起包地泰安地区的史料，进行各种研究活动和宣传事业。

9) 礼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礼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以1995年礼泉市民为中心创立。1996年5月展开了东学农民革命战迹地巡礼活动，1997年4月建立东学农民军指挥者全基恒义士追慕碑。1894年在现在的闻庆苏野一带的东学农民军越过花岭(꽃재)来到礼泉，1998年5月10日在连接闻庆和礼泉的山路花岭上设了'人乃天'之碑。

1998年将甲午年当时礼泉东学农民军发起的日子定位礼泉东学农民革命纪念日，进行纪念日的活动和慰灵祭。礼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展开了东学农民革命相关的遗迹地整顿、战迹地介绍和书籍的发行等宣传礼泉东学农民革命的多种多样的事业。

10)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完州支部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完州支部是在(以下完州支部)1996年10月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全州)建立东学农民革命叁礼起义纪念碑过程中意识到必要性而建立的。

1998年10月25日东学农民革命叁礼起义104周年纪念会期间，举行了创立大会，是全国唯一一个以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支部形态而存在。

完州支部发行了'东学农民革命和完州郡叁礼'书籍，1999年开始每年10月召开'东学农民革命叁礼起义纪念大会'，2001年建立了东学农民革命大茆山抗争战迹地，2002年12月建立叁礼起义历史广场，2003年10月10日建立东学农民革命起义碑，2004年10月20日在历史广场内建立东学农民军出陈像等，至今为止开展了形式多样的活动。

11) 东学农民革命白山起义纪念事业会

1995年以全北扶安郡白山面居民为中心成立了东学农民革命白山城保存会。以后东学农民革命白山城保存会每年4月26日举行纪念东学农民革命军白山城集结起义的白山起义纪念式。

特别是 1998 年 10 月白山被指定为国家史迹, 以此为契机, 召开白山城史迹指定纪念学术会议。之后白山城保存会又将名称和组织改为东学农民革命白山起义纪念事业会, 举行了纪念活动。

但是, 以面为单位的此活动得到扶安郡的关注是从 2009 年以后开始的。以 2009 年 4 月 25 日召开的东学农民革命白山起义历史意义再阐释大会为契机, 以后每年 4 月 25-26 日扶安郡直接主导召开东学农民革命白山起义大会, 举行丰富多彩的活动。

12) 社团法人锦山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以制定特别法为契机, 为了开展锦山地区东学农民军参与者发掘事业, 为此于 2005 年 3 月 24 日结成锦山东学农民革命事业纪念会。

锦山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于 2008 年 5 月 26 日以社团法人登录以来, 每年召开学术发表会, 直接访问锦山郡小学·初中·高中, 以东学农民革命为主题演讲, 开展宣传东学农民革命的历史意义。又以 初中·高中生为对象, 实施历史巡回教育、锦山郡内历史遗迹探访, 锦山郡内小学作文大会等多种多样大会。

13) 南原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经过 2003 年准备阶段, 2004 年 5 月 22 日创立了南原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现在主要开展东学农民革命遗迹地发掘和史料收集, 2006 年 11 月以'南原地区东学农民革命和其历史意义'为主题召开学术会议。2007 年南原市双桥洞蓼川堤防建立东学农民革命遗迹地蓼川标识石。同年 11 月 17 日在南原市山东面釜节里方峨峙立了'东学农民革命方峨峙战斗地' 标识石, 2008 年 11 月 22 日在南原市云峯邑长桥里女院峙立了'东学农民革命遗迹白头大干'的标识石, 举行了慰灵祭等多种活动。

14) 长兴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1994 年开始, 长兴郡农民军为了继承东学农民革命抗争精神, 每年 11 月在纪念塔前面举行慰灵祭。2003 年 11 月发起长兴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举行正式的纪念仪式和慰灵祭。2004 年 3 月 5 日以制定特别法为契机, 2004 年 4 月 26 日才在纪念塔建成

12年后举行揭幕仪式。之后，长兴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为了纪念长兴东学革命举行了以纪念活动为首的各种文化艺术事业和学术编撰事业、文化事业、纪念建筑建立事业等。

15) 东学农民革命遗族会

东学农民革命遗族会在迎来东学农民革命百周年之际，于1994年3月3日创立。即使在恶劣的财政情形和政府的无关心下，依然发行了会刊『沙钵通文』，东学农民军子孙们则发行了『再次盛开的绿豆花』、『全琫準和他的同志们』等。之后，遗族会展开发掘东学农民军遗族的活动，倾注全部力量制定特别法。其结果，2004年2月9日特别法在国会得以通过。最近主要促进编撰东学农民军影像证言录。

16) 东学农民革命团体协议会

在企划和准备东学农民革命百周年活动的过程中，人们认识到有必要建立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团体协议会(以下东团协)。协议会将准备各纪念活动的各地区和团体代表聚在一起，决定和促进东学农民革命百周年活动的内容。活动内容定为古阜起义历史神祭、东学农民革命一百周年纪念大会，牛禁峙殉国英灵追慕艺术祭。

东学农民革命百周年活动以后，各地区的事业会和遗族会的夙愿是恢复东学农民军的名誉。协议会组织了东学农民军国家授勋促进委员会，1997年11月29日在韩民族新闻上通过三次广告象征性地登载了东学农民军国家有功者1894名。

同年12月11日开始的一个月间，全国同时开展签名大会，获得了众多国民的响应。这一活动促成了2004年特别法的制定。但是以后的东团协活动并不顺利，其理由根据东团协内部的资料⁸⁾解释如下。

"根据特别法设置的恢复东学农民革命参与者名誉的审议委员会支援事务局为了有效地促进特别法明确规定的纪念事业，认为各地区活动的东学农民革命相关纪念事业团体需在紧密联合中促进纪念事业。

各地域事业会在20余年期间为了促进符合各地区现实的纪念事业，虽然积累了历史纪

8)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团体协议会，〈审议委员会业务促进邀请〉，2007. 7.

念事业的专门性和执行事业的经验，但没有促进各地域事业会的联合，行政上随意解释和使用法规规定，结果事业和地域团体仍出现较大的隔合。

其结果，审议委员会支援事務局业务开始已过三年，但以东学农民革命纪念日制定等特别法里有明确规定的四大纪念事业中，没有一个取得有效的成果。不仅没有取得成果，连体现东学农民革命特别法立法宗旨的纪念事业的基本计划都没有具体得到实现。”

17) 忠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为了探究忠北东学农民革命，2006年12月5日忠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召开了第一次创立发起人会议。2006年12月21日忠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召开了第二次创立发起人会议，并成立了创立准备委员会。之后通过数次准备会议，2007年4月26日终于成立了忠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2009年11月7日，清州无心川花桥(꽃다리)立了长生柱和标识石，举行了'东学农民革命清州城战役纪念长生神祭'。忠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第一次以道为单位组织了纪念事业会，具有重要意义。

18) 金堤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⁹⁾

1987年母岳乡土文化研究会建立了'金德明将军追慕碑'，开始了最初的纪念事业。2008年7月居民成立了院坪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准备委员会，其立意传遍了金堤全境，12月22日创立了金堤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2009年3月设立了社团法人。

2008年12月举行学术会议，2009年发行『金堤大地东学农民革命』，2009年'重温金堤大地东学农民革命之路'和地域居民形成了共鸣。2010年2月展开了金堤地区东学农民革命学术研究调查，并结合周边的宗教资源和东学农民革命遗迹地，促进了观光项目的开发。

19) 务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务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于2011年8月19日成立。务安郡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9) 引用「金堤文化大典电子版」.

和遗族会于2011年12月19日上午11时在全南务安郡厅新村会馆里举行了纪念参与东学农民革命中殉国的务安郡英灵的共同慰灵祭。

20) 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

特别法制定后, 为了对政府窗口的一元化, 全国 16 个纪念事业会代表和相关人员聚在一起, 经 2004 年 9 月 20 日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设立总会, 同年 11 月 25 日从文化观光部获得了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法人设立许可。

2006 年 1 月 8 日以忠南公州东学农民革命第 112 周年纪念大会为开端, 陆续召开了 2007 年 11 月 9 日东学农民革命第 113 周年纪念大会(首尔), 2008 年 11 月 1 日东学农民革命第 114 周年纪念大会(忠南泰安), 2009 年 11 月 7 日东学农民革命第 115 周年纪念大会(全南长兴)。根据特别法, 2010 年 4 月 19 日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作为特殊法人重新出发, 在全北井邑市德川面下鹤里的东学农民革命纪念馆设置了财团办公室, 主管宣传东学农民革命的整体事务。2010 年 10 月 29 日到 30 日, 东学农民革命第 116 周年全国纪念大会在庆北尚州市召开, 2011 年 1 月 1 日受委托运营在井邑黄土岬的东学农民革命纪念馆。

〈表 7〉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团体现况

序号	团体名	所在地	创立年度
1	社团法人 井邑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	全北 井邑	1967
2	社团法人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全北 全州	1992
3	社团法人 东学农民战争牛禁峙纪念事业会	忠北 公州	1994
4	高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全北 高敞	1994
5	东学农民革命遗族会	首尔特别市	1994
6	光州·全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光州光域市	1994
7	尚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庆北 尚州	1994
8	晋州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庆南 晋州	1994
9	扶安东学农民革命白山城保存会	全北 扶安	1995
10	礼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庆北 礼泉	1995
11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完州支部	全北 完州	1997
12	泰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忠南 泰安	1997
13	锦山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忠南 锦山	2000
14	报恩东学农民革命继承事业会	忠北 报恩	2001

序号	团体名	所在地	创立年度
15	长兴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全南 长兴	2003
16	报恩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忠北 报恩	2004
17	南原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全北 南原	2004
18	忠北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忠北 清州	2007
19	金堤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全北 金堤	2008
20	务安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会	全南 务安	2011
21	瑞石面东学农民革命追慕事业会	江原 洪川	

4. 结论

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随着时代发展、事业主体力量以及政府和地方自治团体的支援与否发生了变化。但是, 过去的纪念事业主要以探究东学农民革命真相、发掘遗迹地和追慕事业为主。今天, 我们从现代的观点重新审视东学农民革命的性质, 认识到继承东学先烈的精神, 真正实现东学农民革命的真正意义和价值所在。

为此, 不管条件多么艰难, 需要促进各地区纪念事业团体展开民间主导的继承已在历史中埋没多年的东学农民革命精神并展开活动。为此, 2010 年以后以特殊法人重新出发的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的作用尤为重要。

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作为包括多种形态纪念事业会的综合性财团需要继续发挥其作用, 通过联合和协调各地相关的事业团体, 积极企划东学农民革命爆发 120 周年的全国性纪念事业活动。

토론문 :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의 기념사업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1. 연구의 의미

1) 중국의 태평천국혁명[太平天國起義]과 한국의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위한 것으로 후세인들이 그 정신을 배우고 계승할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2) 태평천국혁명은 동학농민혁명과 동시대에 전개된 운동임과 더불어 그 지향점에 서도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각도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절실하다. 예컨대 농민중심의 운동, 토지개혁(土地改革),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 운동, 외세(外勢)에 의한 좌절, 이후 근현대 민중운동의 효시(嚆矢) 등에서 그러하다. 태평천국혁명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평천국 기념사업」(장철보)에 대하여.

1. 연구의 방향

1) 역대 중국 정부차원의 태평천국 평가에 대한 논의를 청조시대(淸朝時代), 국민당(國民黨)-공산당(共產黨) 정부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철보(張鐵寶) 선생은 이를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표

문을 통해 우리는 특히 장개석(蔣介石) 정부의 입장이 공산당과의 내전, 일본과의 전쟁에 따라 긍정에서 전면적 부정으로 변하였던 사실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이후 공산당 정부에 의해 다시 역사적 지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 중국 내 유일하게 국가차원으로 남경(南京)에 설립된 태평천국역사박물관(太平天國歷史博物館)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소장품의 전시 시스템, 유물 수집 작업의 여러 과정들과 방법, 유적지 발굴, 학술연구 및 출판, 유물의 감정기준, 국내외 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상세한 소개이다. 또한 학술성으로 1979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후 학술 봄이 조성되어 각 성별 단위로 지역 차원에서 학술모임이 이루어졌고 소통이 강화되고 있음도 밝혔다. 그 결과 1989년 중국태평천국사연구회(中國太平天國史研究會)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도 활발히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태평천국역사박물관은 손문(孫文), 마오쩌둥[毛澤東], 장쩌민[江澤民] 등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해 역사적 평가는 물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도 일찍부터 이루어졌고 그 열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현재 태평천국박물관은 ‘전국(全國) 청소년(靑少年) 교육기지(教育基地)’, ‘애국주의(愛國主義) 교육기지(教育基地)’로 명명되어 있다. 토론자는 작년 봄 장철보 선생의 호의에 힘입어 남경의 태평천국역사박물관(瞻園)과 손중산릉(孫中山陵)을 방문하여 기념시설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며 더불어 남경대학(南京大學)에서 개최된 태평천국 1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행운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의 대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생각해 볼 점

발표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지만 다만 토론자의 임무로서 장철보 선생에게 몇 가지 점을 묻고 싶다. 첫째, 그간 오랜 기간 태평천국 기념사업을 주도하면서 부딪혔던 큰 문제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둘째, 향후 태평천국 사업의 발전적 계획은 있는가? 셋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멀리서 보면서 특별히 한국 관계자들에게 바라거나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조광환)에 대하여.

1. 연구의 방향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 관련 시설, 기념사업의 현주소, 기념사업 단체의 현황을 중심으로 폭넓게 살피고 있다. 기념사업의 역사를 식민지 이전, 일제강점기, 해방이후~1950년대, 1960~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7단계로 나누어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추진 주체들의 이해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사진과 함께 매우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이상의 내용과 연계된 전국의 기념관과 기념조형물 현황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념단체도 21개의 각 사업회와 단체별로 정리하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진행과정, 현실 등에 대해 소상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2)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그간 기념사업의 문제는 진상규명과 유적지 발굴, 추모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적 관점에서 이를 재정립하여야만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활성화를 위한 기념재단의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120주년 기념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발표자도 지적한 바 있듯이 1970년대의 경험은 우금치의 예에서 보듯이 유신(維新)시절 관(官) 주도의 동원체제에 의해 위상이 훼손된 적이 있었고, 1980년대는 민간이 배제된 대통령 개인에 의한 황토현의 재정비의 왜곡된 사례도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학계와 민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을 탈락하려는 시도가 나타났고, 그 결과 100주년 기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별법에서 기념사업으로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전시,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의 3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힘겨운 과정을 거쳐 현재의 기념재단 건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생각해 볼 점

1)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점은 먼저 태평천국의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보다 연대가 40년 이상 빠른 태평천국 관련하여 민간차원과 국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그간 어떻게 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며 기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아카이브(기념자료관), 네트워크 구축 등도 포함된다. 특히 빠른 시간 내에 기념일 제정의 당위성을 가진 우리의 현실은 그 경험의 창조적 적용이 절실하다.

다음 기념사업의 확대는 엄밀성을 전제로 전국성 강조와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인권 평화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염두에 둔 공교육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진행 중이나 우리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

2) 2014년 2갑자(甲子)인 120주년 준비를 통해 활성화를 기대하는 발표자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 이점에 부연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는 발표자의 구체적인 복안(腹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묻고 싶다.

인식공유를 위한 제안

1. 역사상으로 보면, 태평천국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은 양국 모두 전체 민중운동의 호수(湖水)로 근대이행기(近代移行期)에 위치하여 그곳으로 에너지가 유입되고 거기서 종합/분출/확산되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역사상 자체는 물론 나아가 농민운동 전체, 농민생활사 연구 기념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이해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2. 태평천국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은 모두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역사화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원칙은 당위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통한 가치와 의미 확산, 미래지향성, 당대 민중의 꿈과 희망의 동시대적 확산,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의 화해와 상생의 극대화를 기하는 기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끝으로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지향과 역사적 활동상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조망하는 차원에서 12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전반에 대한 집중조명과 토론, 유족과 역사연구자 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을, 특히 장철보 선생은 작년 태평천국기의 160주년 행사의 소중한 성과와 향후 중국의 기념사업 전망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한다.

讨论稿：东学农民革命和太平天国运动的纪念事业

赵宰坤

东国大学 研究教授

翻译：朱玫(成均馆大学 东亚细亚学术院)

1. 研究意义

1)中国的太平天国起义和韩国的东学农民革命所体现的人的尊严和自由平等的精神值得后人学习和继承。

2)太平天国革命不仅和东学农民革命同时代发生，而且在目的上也有很多相似性，值得韩国从多角度积极地进行借鉴和学习。比方说，农民中心的运动、土地改革、反帝国主义运动、因外势导致的挫败、开启了近现代民众运动的先河等内容。太平天国广为人知，而东学农民革命人在这方面还有一定差距。

关于中国的太平天国纪念事业(张铁宝)

1. 研究的方向

1)作者系统整理了从清朝、国民党到共产党政府，即中国历代政府对太平天国的评价。张铁宝老师认为这一变化过程和当时的政治情势紧密相关。文章揭示了随着和共产党的内战及中日战争的爆发，蒋介石政府的立场由肯定逐渐转变为全面否定的事实。之后，得益于共产党政府其历史地位才得到重新评价。

文章还对中国政府唯一设立的位于南京的天平天国历史博物馆进行了说明, 具体介绍了藏品的展示体系, 遗物收集的各种过程和方法, 遗迹地的发掘, 学术研究基础版, 遗物的鉴定标准, 国内外协力和交流等内容。同时在学术方面, 1979 年国际学术会议举办后, 曾一度掀起了天平天国研究热, 以省为单位召开了各种学术研讨会, 强化了彼此间的交流。终于在 1989 年成立了中国太平天国史研究会, 该会一直致力于开展各种研究活动。

2) 通过发表文, 我们可以知道人们很早就致力于太平天国革命的名誉恢复和各种纪念事业, 包括孙文、毛泽东及江泽民等国家最高领导人都对太平天国革命作了历史评价, 这些努力一直到今天都一直持续下来。太平天国博物馆被指定为'全国青少年教育基地'和'爱国主义教育基地'。我在去年春天受张铁宝老师的邀请, 访问了位于南京的太平天国历史博物馆(瞻园)和孙中山陵, 通过现场考察纪念设施以及参加在南京大学召开的纪念太平天国 160 周年国际学术大会, 有幸地目睹了上述内容。

2. 讨论

我对张老师的文章基本没有异议, 只是有几点疑问想请教张铁宝老师。第一, 过去在主导太平天国纪念事业的过程中, 有没有遇到较大的困难或者问题, 具体内容是什么? 第二, 今后对发展太平天国纪念事业有什么计划? 第三, 基于老师对韩国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的了解, 您有什么希望或者好的建议吗?

关于韩国的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曹光焕)

1. 研究方向

1) 文章以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的历史、相关设施、纪念事业和团体的现状为中心做了广泛的说明。文章将纪念事业的历史分为殖民地以前、日帝强占期、解放以后至 50 年代、60-70 年代、80 年代、90 年代, 2000 年以后至今共七个阶段, 结合照片十分详细地整理了各时代的情况和相关事业推进主体对东学农民革命的理解及其在现实中的反响。和以上内容一道, 作者还介绍了分布于全国的相关纪念馆和纪念建筑的现况。特别是对构成纪

念团体的 21 个事业会和团体分别做了整理，一一介绍了各类纪念活动，加深了我们对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的历史和展开过程、现实等的理解。

2) 作者在结论部分指出过去纪念事业过于集中于真相探究、遗迹地发掘和追慕事业，从今天的观点来看，只有重新审视才能实现东学农民革命的真正意义和价值，同时还强调了纪念财团在推动其发展方面的重要地位和 120 周年纪念活动的重要性。

3) 作者在文中也提到，70 年代诸如在评价牛禁峙时，因维新时期官方主导的动员体制使东学农民革命的形象受到毁损，80 年代也因排除民间而由总统个人的体制，出现了诸如对黄土岬再整理事业的评价方面的歪曲。90 年代以后，学界和民间试图摆脱上述问题做出了很大的努力，2004 年特别法的制定就是基于 100 周年纪念事业上最具代表的成果。特别法阐明了纪念馆和纪念塔建立，资料收集、调查、研究、保存、管理及展示，遗迹的发掘和复原等三大纪念事业。现在的纪念财团就是依据这一特别法，经过艰难的过程才得以成立的。

2. 讨论

1) 在读曹老师的文章后，我深感有必要借鉴太平天国的经验。太平天国比东学农民革命要早 40 年，通过理解过去中国从民间和国家的层面各种事业的展开过程有助于提高韩国纪念事业的效率和事业的进一步开展。这里包括纪念资料馆和各种网络关系的建设等。特别是关于纪念日的设立，迫切需要创造性地借鉴中国的经验并即使适用到我们的现实中。

此外，有必要在保持严密性的前提下，将纪念事业扩大到全国、东亚甚至是、可以提升 to 世界史的人权和平的高度，同时将其内容反映到以青少年为主的公共教育和相关面向未来的各种事业中。这一点中国已在实践中，但我们还有很长的路要走。关于这一点，我想请教老师的意见。

2) 我十分同意作者将 2014 年东学农民革命 120 周年纪念的准备活动看作是促进事业发展契机的观点。作者具有多年亲身参与东学农民革命纪念事业活动的经验，借此机会想知道作者已经有了哪些具体的方案和想法。

共识的几点提议

1.纵观历史像，我们可以发现太平天国革命和东学农民革命都是处于近代转型期的全体民众运动，因此有必要强调民众力量的流入和扩散。这不仅关系到历史像本身的问题，我们应该将外延扩张到东学农民运动全盘和农民生活史研究纪念事业。

2.有必要从更丰富的角度进行新的诠释太平天国运动和农学农民革命，面向未来开展历史化的事业。我们期待纪念事业能在正当性和世界史普遍性的高度进一步提升价值和意义，成为面向未来并承载当代民众理想和希望的、最大促进加害者和被害者遗族间和解和理解的事业。

3.最后我想提议的是为了重新认识 1894 年东学农民军的性质和历史活动像，在即将迎来东学农民革命 120 周年(2014 年)之际，除了对东学农民革命进行全面地集中研究和讨论，我们还需要向遗族和历史研究者特别是国民为对象继续宣传。关于这一点，我想听取两位老师的意见，特别是张铁宝老师能否介绍一下去年中国纪念太平天国运动 160 周年活动的经验和对今后中国纪念事业的展望。

동학농민혁명 정기심포지엄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발행일 : 2012년 11월 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80-833)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8-2894

정읍시

(580-701)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관광산업과

TEL. 063-539-5432

전북사학회

(560-759)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전북사학회

TEL. 063-220-2450
